

2019-13

정책 연구 보고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연구

연구책임 |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재희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박승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연구진

연구 책임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 연구 임세희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김재희 경기복지재단 초빙연구위원
박승희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박예은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보고 2019-13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

발간사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및 긴급지원사업, 경기도의 긴급지원사업(舊 무한돌봄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빈곤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며, 2018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해 빈곤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동안 빈곤문제는 한국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통해 빈곤의 문제가 경기도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적·빈곤유형별 분석을 통한 지역적 단위의 분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빈곤문제가 소득을 중심으로한 절대적 빈곤 및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주로 활용해왔으나, 실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등에서는 자산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산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빈곤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지니계수를 활용한 불평등 중심의 소득과 자산의 비교를 통한 연구의 확장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차별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그동안 경기복지재단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적된 데이터가 풍부하다는데서 기인한다. 경기복지재단은 2016년 복지균형발전기준선,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주민 욕구조사, 2019년 복지기준선 등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기초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빈곤실태를 분석하는 본 연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에 연구를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소득/자산/이중빈곤의 실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며, 경기도정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초연구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가 경기도 빈곤완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기도의 빈곤실태 분석을 위해 고민을 함께 해준 담당 공무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재단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9년 12월

경기복지재단 대표 이사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경기도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경기도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소득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체에 비해 소득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31개 시군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2018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조사에 비하여 빈곤가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고, 가구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이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약 111,220가구 정도로 추정됨

□ 분석방법

- 지역적·빈곤요인별로 종합적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既(기) 축적된 경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적 단위의 분석을 수행
 -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통계청 자료를 통해 빈곤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분석에는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 기준 6,721패널가구(98표본 및 통합표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약 1,500가구가 조사대상임
 - 1,500가구의 표본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특성을 조망할 수는 있으나 빈곤요인별 특성 및 31개 시군별 빈곤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 존재
 -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약 2만가구를 조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15%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보다는 표본수가 많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행복e-음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와 2016년 경기복지 기준선 자료, 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시군별 빈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
 - 2016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위해 경기도 내 18,573가구, 30,918명의 소

득, 주거, 일자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복지 인프라 등 7개 영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축적

- 또한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를 통해 27,153가구(시군별 인구규모에 따라 500가구~1250가구 차등)의 아동돌봄, 성인돌봄(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신체적, 정신적),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11대 영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축적
- 이외에도 경기도 기초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계층별(빈곤)특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대상자,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빈곤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자 구분)빈곤층의 구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차상위/사각지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정의는 과거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차용
- 최근 OECD 등이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의 규모 및 여러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빈곤층을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를 빈곤층으로 설정
-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은 다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적부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함
- 차상위계층의 설정은 하한선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하고, 상한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 50% 이하에 위치하면서도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함
- 차상위계층을 빈곤특성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들은 상황변화에 민감하여 언제라도 절대빈곤으로 떨어져 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이상봉·한준, 2016)
- 또한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부의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대상자 등을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특성 구분)빈곤의 특성은 인구·사회학적/노동시장/경제적 가치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

- 빈곤특성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빈곤수준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특성, 노동

시장 특성, 경제적 가치 특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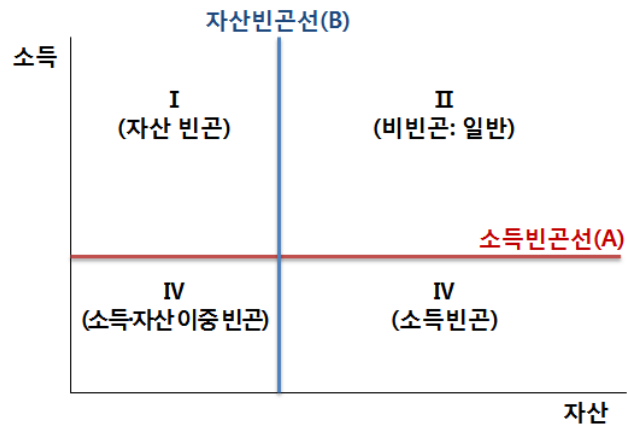
- 사회인구특성은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 등이 해당되며, 노동시장 특성변수는 노동참여형태가 포함됨

〈표〉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변수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변수		빈곤수준	수급자, 차상계층, 사각지대 등
독립변수	사회인구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세 이하 ~ 65세 이상(10세 단위 구분)
		학력	무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 석사이상
		거주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노동시장 특성	노동참여 형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 구직활동, 주부, 학업, 무직 등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이중 기준에 따른 분석을 위해 경제적 가치 특성(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

〈그림〉 자산·소득 기준에 따른 빈곤 지위



□ 분석결과

- ①기초수급자 : 경기도의 기초수급자는 전국 평균(3.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시군별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남

- 전국의 기초수급자 183만명 가운데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30.6만명)보다 많은 수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 그러나 수급률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2.4%는 전국(3.5%), 광역시 평균(3.8%), 광역도 평균(3.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또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3.1%)보다 0.7%p가 낮으며, 인접지역인 인천(4.0%)에 비해서는 1.6%p가 낮은 상황임
-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 수급률(용인시, 1.2%) 및 최고 수급률(연천, 동두천, 6.1%) 지역간 5.08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기초수급자 실태는 여성, 일반수급자, 1인가구, 소득인정액 없음, 근로능력 없음, 기초연금 비대상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기초수급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일반수급자 가구이며, 조건부 수급자, 특례가구수급자, 시설수급자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수급자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5인가구 이상의 비율도 5%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이 30%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상당수가 소득인정액이 없는 상황임
 - 생계급여의 수급여부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이외에 근로능력 유무도 중요한 변수이며, 경기도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67.4%로 높음
 - 경기도 31개 시군은 대부분 30% 수준의 기초연금대상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 연령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②일반적 빈곤실태 : 노인, 장애인, 1인가구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노인가구를 노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47.7%)이 가장 낮고,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74.9%)이 가장 높음
 - 시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포천시(70.1%)와 가장 낮은 성남시(35.5%) 간 약 2배의 차이가 나며,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이 5개(의왕시, 안산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에 달하여 매우 심각함

- 경기도 장애인빈곤율은 47.2%이며, 군포시가 33.4%로 가장 낮고 여주시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50%를 넘는 시군이 14개에 달함
 - 장애인빈곤율은 노인빈곤율에 비해 약간 낮은 상황이고, 시군 간 격차는 노인빈곤만큼 크지 않은데,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합산한 결과 안양시가 가장 양호하고, 여주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빈곤율은 48.5%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년가구의 고독사 등을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은 30.4%로 근로능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③소득-자산 이중빈곤 : 경기도 전체 빈곤가구 중 자산빈곤가구가 자산빈곤 13.7%로 가장 높고,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8.7%, 소득빈곤가구 7.0% 순임
 - 시군별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의왕시 22.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안성시 21.6%, 남양주시 14.5%, 광명시 14.4%, 평택시 12.9%, 양평군 1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포천시는 0.7%로 1.0% 미만으로 낮음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가 53.6%로 매우 높았고, 그다음으로 연천군 34.8%, 이천시 25.0%, 여주시 24.8%, 양주시 24.4%, 가평군 24.1%, 하남시 23.1%, 안성시 22.7%, 파주시 22.2%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자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명시(6.5%)임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54.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가평군 16.8%, 의정부시 14.9%, 여주시 14.7%, 안성시 12.7%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가 0.7%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 이중빈곤은 가구요인(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주거형태 등), 근로요인(근로활동, 경제활동상태 등), 사회요인(거주지역, 수급가구여부 등) 모두 빈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또한 가구유형별로는 시군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경제의 수준(지가, 물가 등)이 낮은 북부 및 농어촌 지역에서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이중빈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II 	빈곤의 개념 및 측정방법	11
	1. 빈곤의 정의	13
	2. 빈곤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	22
	3. 빈곤개념의 확대(자산빈곤)	27
	4. 빈곤의 측정	29
III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37
	1. 기초수급자 실태 분석	39
	2. 소득빈곤 실태 분석	56
	3. 자산빈곤 실태 분석	65
	4. 이중빈곤 실태분석	72
IV 	요약 및 정책제언	99
	1. 연구의 요약	101
	2. 정책 제언	107
	참고문헌	111

Ⅰ 표 차례

〈표 I-1〉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7
〈표 III-1〉 인천광역시 기초정부별 기초수급률(2018년 말 기준)	40
〈표 III-2〉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	40
〈표 III-3〉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성별 비율	42
〈표 III-4〉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연령 비율	42
〈표 III-5〉 경기도 기초수급자 유형	43
〈표 III-6〉 경기도 기초수급자 가구원수별 분포	45
〈표 III-7〉 경기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유무	46
〈표 III-8〉 경기도 기초수급자 가구형태 분포	47
〈표 III-9〉 경기도 수급자 가구구성 형태별 분포	48
〈표 III-10〉 경기도 수급자 급여유형별 분포	50
〈표 III-11〉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비율	51
〈표 III-12〉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52
〈표 III-13〉 경기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54
〈표 III-14〉 빈곤실태 분석에 활용된 소득/자산 구분	56
〈표 III-15〉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율(2018)	59
〈표 III-16〉 빈곤실태 분석에 활용된 소득/자산 구분	65
〈표 III-17〉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율(2018)	68
〈표 III-18〉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74
〈표 III-19〉 사회인구특성에 따른 빈곤유형 차이 분석	77
〈표 III-20〉 노동시장특성에 따른 빈곤유형 차이 분석	77
〈표 III-21〉 빈곤유형별 영향요인(기준집단=비빈곤)	80
〈표 III-22〉 빈곤유형별 영향요인 순위	81
〈표 III-23〉 아동 가구의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83
〈표 III-24〉 노인이 있는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85
〈표 III-25〉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87
〈표 III-26〉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90
〈표 III-27〉 독거노인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92
〈표 III-28〉 장애인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94
〈표 III-29〉 상대빈곤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97
〈표 IV-1〉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104

Ⅰ 그림 차례 Ⅰ

〈그림 I-1〉 자산·소득 기준에 따른 빈곤 지위	8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2018년)	57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2018년)	60
〈그림 Ⅲ-3〉 전국 및 경기도 1인 가구 연령별 비중(2018)	61
〈그림 Ⅲ-4〉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비율(2018)	61
〈그림 Ⅲ-5〉 경기도 시군별 전체 및 중노년 1인 가구 빈곤율(2018)	63
〈그림 Ⅲ-6〉 3개 현금성 복지 수급현황 비교	64
〈그림 Ⅲ-7〉 경기도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규모	64
〈그림 Ⅲ-8〉 경기도 시군별 사각지대 규모 추정 비율(2018년)	65
〈그림 Ⅲ-9〉 경기도 전체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67
〈그림 Ⅲ-10〉 경기도 노인이 있는 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69
〈그림 Ⅲ-11〉 경기도 노인가구주 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70
〈그림 Ⅲ-12〉 경기도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70
〈그림 Ⅲ-13〉 경기도 독거노인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71
〈그림 Ⅲ-14〉 경기도 장애인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72
〈그림 Ⅲ-15〉 소득-자산 이중빈곤 해석방법	73
〈그림 Ⅲ-16〉 경기도 전체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76
〈그림 Ⅲ-17〉 경기도 노인이 있는 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86
〈그림 Ⅲ-18〉 경기도 노인가구주 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89
〈그림 Ⅲ-19〉 경기도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91
〈그림 Ⅲ-20〉 경기도 독거노인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93
〈그림 Ⅲ-21〉 경기도 장애인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96
〈그림 IV-1〉 자산·소득 기준에 따른 빈곤 지위	104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의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경기도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소득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체에 비해 소득수준은 높은 편으로 나타나지만, 31개 시군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를 통한 경기도민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¹⁾ 10.2%, 상대빈곤율²⁾ 12.2%로 나타나고 있음(가구 : 절대빈곤율 14.1%, 상대빈곤율 18.1%)
 - 이러한 결과는 전국 개인 빈곤율 14.4%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나, OECD 평균인 11.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특히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노인 상대빈곤율은 47.2%로 전국 평균인 49.6%에 비해서는 낮으나, OECD 평균인 12.6%(2015년)에 비해 3.75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장애인 상대빈곤율은 48.0%로 전국 평균인 41.5%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인 22.1%에 비해서는 2.17배 이상 높은 수준임
 - 31개 시군별로는 가장 낮은 과천(7.3%)과 가장 높은 연천(28.6%)의 격차는 21.3%p로 시군별 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이러한 결과는 2018년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 조사에 비하여 빈곤가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고, 가

1) 절대빈곤율 : 최저생계비 미만 가구 비율

2) 상대빈곤율 : 중위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

구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음

- 절대빈곤율은 15.8%로 2016년에 비해 1.7%p 빈곤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상대빈곤율은 19.7%로 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상자별로는 노인 상대빈곤율은 48.6%로 2016년 조사에 비해 1.4%p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상대빈곤율은 47.7%로 0.3%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또한 31개 시군별로는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용인시(10.9%)와 가장 높은 연천군(33.9%)간 격차가 23.0%p로 격차가 1.7%p 확대되었으며, 최저 시군(과천→용인)의 상대빈곤율도 3.2%p 증가
 - 이러한 격차 증가의 요인은 경기도민 월평균 소득은 큰 변화가 없으나(338만원→337만원), 저소득층의 월소득은 100만원에서 89만원으로 11% 감소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경기복지재단이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약 111,220가구 정도로 추정됨
- 경기복지재단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를 경기도 및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총괄적으로 조사를 진행
 -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 설문지 이외에 경기도 공통 문항, 시군별 자체 문항 등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경기도 공통설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질문이 포함
 - 이를 통해 사각지대 규모의 추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기존연구 검토 결과 전국적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는 2010년대 초반까지 진행

- 빈곤 특성에 관한 연구는 동태적(시계열적)/횡단적, 가구별/집단별, 요인별 연구 등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통계청 등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특성을 도출하였음
- 우리나라에서 빈곤 연구는 사회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빈곤의 현실과 원인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직업, 나이, 성 등)을 기준으로 빈곤율 추이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김문길, 2017; 허수연, 2011)

- 세부적으로 동태적 연구는 노동패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진입자의 특성과 빈곤진입의 원인을 변화 추적하는 연구들이 진행(김환준, 2011; 구인회, 2002)
 - 횡단적 연구는 가구주 특성(이성균, 2019), 차상위계층(이상봉·한준, 2016), 청년 빈곤(김안나·홍현우, 2018) 등 대상자와 가구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 상기 연구들이 소득 또는 자산의 단일 기준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최근에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중 기준에 따라 빈곤 지위를 구분하는 연구(김성태 외, 2016; 신규수, 2019)등이 진행되어 종합적 관점의 빈곤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의 빈곤 특성에 관해서는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연구원 등에서 경기도 전체(지역적) 및 아동·노인(대상자별)의 빈곤 특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
- 경기복지재단에서는 경기도 전체적 관점에서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2012), 경기도 다차원적 빈곤실태 분석(2013)을 통해 빈곤의 정의와 함께 소득수준·가구유형·차원별 빈곤실태 및 빈곤율을 분석
 - 추가로 경기도 빈곤계층 알코올 중독 예방·지원체계 구축 연구(2016)를 통해 빈곤계층에게 나타나는 현상(중독)의 원인과 지원 체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
 - 경기연구원에서는 빈곤아동(2007), 노인빈곤(2009)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인구사회적 요인과 노동시장 참여 형태 등에 따른 빈곤 특성을 분석
- **지역적·빈곤요인별로 종합적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旣(기) 축적된 경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적 단위의 분석을 시도**
-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통계청 자료를 통해 빈곤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분석에는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 기준 6,721패널가구(98표본 및 통합표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약 1,500가구가 조사대상임
 - 1,500가구의 표본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특성을 조망할 수는 있으나 빈곤요인별 특성 및 31개 시군별 빈곤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 존재
 -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약 2만가구를 조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15%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보다는 표본수가 많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행복e-음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와 2016년 경기복지 기준선 자료, 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시군별 빈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
 - 2016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위해 경기도 내 18,573가구, 30,918명의 소득, 주거, 일자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복지 인프라 등 7개 영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축적
 - 또한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를 통해 27,153가구(시군별 인구규모에 따라 500가구~1250가구 차등)의 아동돌봄, 성인돌봄(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신체적, 정신적),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11대 영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축적
 - 이외에도 경기도 기초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계층별(빈곤) 특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대상자,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빈곤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자 구분)빈곤층의 구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차상위/사각지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정의는 과거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차용
 - 중앙정부는 과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고 정부의 빈곤대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기준을 변경(이성균, 2019)
 - 최근에는 OECD 등이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의 규모 및 여러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빈곤층을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를 빈곤층으로 설정
-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은 다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적부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도 추가하

여 분석하고자 함

- 중위소득 50%이하의 빈곤층 중에서 일부는 기초수급자로 편입되나, 최저생계비에는 못미치지만 중위소득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 존재
 - 차상위계층의 설정은 하한선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하고, 상한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 50% 이하에 위치하면서도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함
 - 차상위계층을 빈곤특성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들은 상황변화에 민감하여 언제라도 절대빈곤으로 떨어져 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이상봉·한준, 2016)
- 또한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부의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대상자 등을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특성 구분)빈곤의 특성은 인구·사회학적/노동시장/경제적 가치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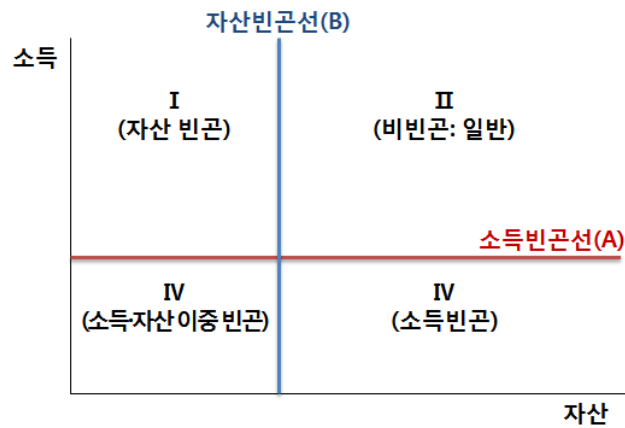
- 빈곤특성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빈곤수준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특성, 노동시장 특성, 경제적 가치 특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
 - 사회인구특성은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 등이 해당되며, 노동시장 특성변수는 노동참여형태가 포함됨
 - ※ 노동시장 특성 변수 중 노동시간, 직종 등이 포함된 연구들이 존재하나, 본 연구에서는 설문자료의 한계상 경제활동상태만으로 분석

〈표 I-1〉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변수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변수		빈곤수준	수급자, 차상계층, 사각지대 등
독립 변수	사회인구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세 이하 ~ 65세 이상(10세 단위 구분)
		학력	무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석사이상
		거주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노동시장 특성	노동참여 형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 구직활동, 주부, 학업, 무직 등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이중 기준에 따른 분석을 위해 경제적 가치 특성(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
 - 김성태 외(2016)의 빈곤기준에 따라 빈곤지위는 소득과 자산의 이중 기준을 통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산의 빈곤선은 소득의 빈곤선과 동일하게 상대적 자산빈곤율(중위 50%)을 활용

〈그림 I -1〉 자산·소득 기준에 따른 빈곤 지위



- ☐ 이에 향후 경기도 빈곤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빈곤의 특성에 관한 분석이 필요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지리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 ☐ 내용적 범위
 - 경기도 지역별/빈곤계층/대상자별 빈곤 실태 분석
 - 경기도 사회경제/노동시장/경제적 가치 등 빈곤요인별 특성 분석

□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빈곤의 정의, 원인, 특성 등 기존 연구자료 검토
- 특성 파악을 위한 변수 도출 및 분석 방법 검토

○ 실태조사 자료(복지기준선 실태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 등) 분석

II

빈곤의 개념 및 측정방법

1. 빈곤의 정의
2. 빈곤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
3. 빈곤개념의 확대(자산빈곤)
4. 빈곤의 측정

Ⅱ 빈곤의 개념 및 측정방법

1. 빈곤의 정의

1) 빈곤의 의미

- 빈곤이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욕구의 영역 및 수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과거에는 소득 영역을 중심으로 욕구를 파악하였으나 오늘날 욕구의 영역이 다차원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소득은 전체 복지수준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생활환경을 살필 필요가 있음(김경혜, 2011; 김은주, 2015)
 - 생존하는데 필요한 욕구, 즉 ‘육체적’으로 생명 유지만을 중심으로 사고하던 것에서 ‘인간다운 생존’에 강조점을 두면서 신체적 욕구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욕구와 문화적 욕구도 기본적인 욕구에 포함하려는 변화가 생김(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 또한 어느 수준까지 충족되었을 때 기본적인 수준을 충족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함
 - 일반적으로 ‘육체적’ 생존만을 말할 때보다 ‘인간다운 생존’을 주장할 때 기본적인 욕구 수준 역시 높아짐
 -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절대적 수준을 주장하는 경우와 사회속에서 상대적으로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가능함
- 욕구(Need)는 ①욕구는 바람(desire)보다 중요, ②객관적, ③해악을 줄임, ④상대적 긴급함, ⑤자발적 선택 여지 없음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욕구’의 충족을 통하여 단순히 사람들이 ‘바라는 것’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며, ‘욕구’의 충족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전제조건(precondition) 혹은 수단(instrument)이 됨
- 객관적 ‘욕구’에 근거를 둔 자원의 배분이 주관적인 ‘바라는 것’에 의한 자원의 배분보다 더욱 중요함
 -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욕구’는 술을 ‘바라는 것’ 과 달리 자원 배분의 객관적인 가치가 있음
 - ‘바라는 것’의 만족이 주관적 이득(benefit)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면, ‘욕구’의 충족이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할 수 있는 해악(harm)을 줄이려는데 있음
 - 어떤 욕구가 지금 충족되지 않고 늦게 충족될 경우 그 충족된 가치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지금 충족되지 않거나 늦게 충족될 경우 이후에 충족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음
 - 욕구는 바라는 것에 비해 자발적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음
 - 예를 들면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의료서비스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

2)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은 총 수입이 순전히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품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상태를 말함
 -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이 빈곤선이 됨
 - 최저생계와 이를 위한 생산 및 재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역량 확보에 필요한 수준이 빈곤선이 됨
 - 이 빈곤선보다 소득이 적으면 절대적 빈곤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주로 영양(nutrition)이 절대적 빈곤의 중심개념이 됨
- 절대적 빈곤의 측정의 방식은 전물량 방식, 반물량방식, 세계은행 기준, UN의 합의 등이 존재
 - 전물량방식(Market Basket)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과 그 각각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값의 총합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

- 라운트리(Rowntree)가 1899년 요크시 빈곤조사를 통해 ‘최저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음식, 주거, 가구생활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비용을 계산함
- 과거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결정방식도 전물량방식을 채택함
- 스웨덴, 독일도 전물량 방식의 절대빈곤선을 설정하고 공공부조를 실시하고 있음(김운태·서재욱, 2015)
- 반물량방식(Engel Method)은 최저생활에 필요한 음식비만 산출하고 그것에 일정한 값을 곱하여 빈곤선을 설정
 - 오르산스키(Orshansky) 빈곤선은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음식비에 자기 소득의 약 3분의 1을 사용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음식비에 3을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
 - 엥겔(Engel) 계수는 최저생활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총소득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역수를 음식비에 곱하여 빈곤선을 산출
- 세계은행은 2015년 절대빈곤선을 하루 평균 생활비 1.9달러(한화 약 2,150원) 이하의 생활로 살아가는 경우로 설정함
- UN의 경우 기본적인 욕구가 심각하게 박탈당한 상태로 기본적인 욕구는 ‘음식(food)’, ‘안전한 식수(safe drinking water)’, ‘위생시설(sanitation facilities)’, ‘건강(health)’, ‘주거(shelter)’, ‘교육(education)’, ‘정보(information)’의 7가지로 규정함(UN, 1995)
- 절대적 빈곤으로 정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다는 점, 결과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나, 전문가의 자의성,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과의 격차 등 문제점도 존재
 -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그 지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움
 - 누구나 기본적인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을 보장함
 - 전문가가 필수품의 항목을 구성하고 최저수준을 설정할 때 전문가의 가치관이 개입될 수 있음
 - 우리나라 최저생계비는 가구주의 연령이 42세이고 39세 배우자와 12세(남), 10세(여) 2명의 초등학교 자녀를 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함. 2013년도 최저생계비 중 가족외식은 단가 5,765원으로 월 0.33회 하는 것으로 계측됨

-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과 절대적 빈곤선간의 격차가 커짐
 - 4인가구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비율: (2003년) 41%→(2008년) 38%→(2013년) 3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동향, 2014.9.1.)

3)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의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함
 -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관습적이거나 용인되는 유형의 식사를 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적절한 생활환경과 편의 시설을 이용할 자원이 결여된 개인, 가족, 집단’(Townsend, 1979)
 - ‘빈곤의 예방이 회원국에서 관습적이거나 규범적으로 여겨지는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OECD, 2011)
 - 세계은행의 경우 개발도상국은 평균 가구소득의 3분의 1, 선진국은 2분의 1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제시하며, OECD는 중위소득의 40%, 50%, 60%를 사용
 - 일본은 일반 근로자 가구 소비지출의 68%를 빈곤선으로 설정
 - 한 사회의 소득분배 분포상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로 정함
 - 소득 하위 10%(소득 10분위 배율) 혹은 20%(소득 5분위 배율)인 경우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다고 봄
- 상대적 빈곤의 개념은 사회의 생활수준의 변화를 빈곤 측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나, 저개발국가의 적용 한계, 기준선에 대한 논란 등이 존재
 - 경제호황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상대적 빈곤선도 높아지게 되며, 절대적 빈곤선 이상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됨
 - 개인과 가구가 자신이 빈곤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위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영함
 - 사회제급이나 사회적 비교에 뒤따라오는 사회심리적 과정(상대적 박탈감, 스트레스, 모멸감 등)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 대다수가 육체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보다 낮은 소득인 경우 상대빈곤선은 무의미기에 저개발국가에 적용에는 한계가 존재

- 또한 평균소득 혹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과 40%, 50%, 60% 등 비교기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며,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
 - 2019년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4%,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까지 지급이 됨.
 -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인 중위소득 30%는 1인가구는 512,102만원, 4인가구는 월 소득이 1,384,061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
 - 상대적 빈곤층은 소득 분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 개입 이후에도 상대적 빈곤층은 일정 수준 유지되어, 절대적 빈곤선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정책 개입 효과를 알기 어려움

4) 주관적 빈곤

- 주관적 빈곤은 빈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빈곤하다고 느끼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으로 정함
 - 제 3자가 평가하는 방식과 본인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으로 나뉨
 - 제 3자가 평가하는 방식은 ‘이곳에서 4인 가족이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얼마입니까?’를 묻는 방식으로 빈곤선을 도출함(여유진 외, 2007)
 - 본인이 직접 평가하는 방식은 라이덴(Leyden)방법이라 하며, ‘당신의 가구는 얼마의 소득이 있으면 근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후 실제 소득과 가구가 판단한 소득을 비교함(김태성·손병돈, 2007)
 - 민주적 방식과 참여적 방식으로 구분(Lister, 2004)
 - 민주적 방식은 국민들에게 적절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설문한 다음 응답 빈도가 높은 물품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것의 향유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빈곤선으로 도출
 - 참여적 방식은 자신의 가구가 최소한 또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설문하여 그 평균값을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라이덴(Leyden)방법이라 함
- 주관적 빈곤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문가의 자의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일관된 측정의 어려움, 정책적 빈곤선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빈곤여부에 있어 사회와 개인의 주관적 판단을 존중함
 - 사회보장의 목표를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또는 ‘사회참여에 필요한 소득’의 보장으로부터 ‘개인이 체감하는 주관적 삶의 질의 제로’로 확장함(서재욱,

2019)

- 전문가의 질문 방식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의성 영향 가능
 -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물었을 때와 ‘건강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물었을 때 차이가 발생함
- 또한 질문의 시점(예, 연초 혹은 연말)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다른 응답이 가능하여 일관된 측정과 정책적 빈곤선이 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
 -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높게 응답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빈곤선을 정책적 빈곤선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사회경제적 박탈

- 사회경제적 박탈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빈곤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박탈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
 - 소득 이외에 교육, 의료, 주거, 영양불균형 등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경제적 박탈을 고려
 - 박탈은 Townsend(1979)에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사람들이 사회에서 보통 가질 수 있는 영양, 의복, 주거, 환경, 지리적인 조건에 관한 물리적인 표준에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고용, 직업, 교육, 여가생활, 가족활동, 사회활동이나 사회관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함
 - 식생활, 주거, 교육, 사회보장, 직업(경제), 사회적박탈, 의료 영역의 박탈 지표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임(허종호 외, 2010; 이웅·임란, 2014; 서연숙 2015)
 - 먹을 것이 떨어져도 살 돈이 없는 경험, 집세 체납으로 인한 이사,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경험, 등록금 등 교육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험,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미납한 경험, 실업상태인 경우, 가족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만족도가 낮은 경우, 위로받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한 경우 등을 지표로 활용함(여유진, 2017; 임유진·박미현, 2018)
- 사회경제적 박탈 개념은 소득중심 접근법의 협소함을 지양하고 삶의 다차원적 기본적, 핵심적 욕구 충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나, 경제적 박탈 지표가 상이하여 전문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는 한계가 있음
 - 다차원적 영역에서 기본적, 핵심적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한 계층을 구분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적 목표인 사회통합과 소득, 재산 혹은 소득계층 변수보다 사회경제

- 적 박탈이 상관관계 수준이 더 높음(여유진, 2017)
-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음(여유진, 2017)
- 사회복지정책적 목표인 사회통합과 소득, 재산 혹은 소득계층 변수보다 사회경제적 박탈이 상관관계 수준이 더 높음(여유진, 2017)

6) 능력(역량) 박탈

- 능력(역량) 박탈은 물질적 안녕의 기본적 기회를 갖지 못해, 특정한 절대적인 최소한의 능력(역량)을 성취하는데 실패한 상태(Sen, 1985)를 의미
 - 능력(역량)은 사람이 무엇인가 ‘될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뜻함
 - 기본적인 능력(기본 역량)이란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최소한의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함
- 능력(역량) 박탈의 측정은 웨이글, 렐리, UN의 인간개발지수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웨이글(Wagle, 2008) : 소득·자산·소비 등 경제적 안녕, 교육적 성취, 건강, 자존감, 양성평등 등의 능력과 경제적 통합·정체적 통합·문화적 통합을 포괄하는 사회적 포용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하는 가구는 빈곤층으로 분류
 - 렐리(Lelli, 2008) : 심리적 우울, 사회적 상호 작용, 경제적 조건, 문화활동, 근로 조건, 건강과 주거를 지표로 활용함
 -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sqrt[3]{\text{건강지표} \cdot \text{교육지표} \cdot \text{소득지표}}$ 로 계산하되, 건강지표는 기대여명, 교육지표는 평균교육기간과 기대교육기간을 쓰며 소득지표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로 설정함(김윤태·서재욱, 2015)
- 능력(역량) 박탈은 절대적 박탈과의 연계 및 적극적 자유의 개념과 연결된다는 장점을 가짐
 - 최소한의 능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초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박탈과 연계성이 높음
 -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는 자유의 능력(Capacity)을 강조하고, 적극적 자유의 추구는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예, 절대적 수준의

음식이 제공되어야 남의 통제에 따라 살지 않을 소극적 자유도 누릴 수 있음)에서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의 개념과 연결됨

- 특히 교육과 건강을 강조하여 앞선 개념과의 차별성이 높음

○ 그러나 능력(역량) 박탈의 개념은 전문가의 자의성 영향 가능, 상대적 빈곤의 중요성 간과, 교육과 건강의 경제적 안녕과의 직접적 연계성 등에서 한계 존재

- 교육과 건강 등의 범주가 타당한 빈곤 측정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지표를 평가하여 반영해야 하나, 학자와 전문가에 따라 서로 다른 변수를 선정하여 자의성이 높음
- 부유한 국가에서는 절대적 박탈 이외에 상대적 빈곤의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부유한 국가의 경우 복지급여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 빈곤의 중요성 간과됨
- 건강 혹은 교육수준의 향상이 경제적 안녕을 보장하지는 않다는 점이 중요
 - 산업구조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더라도 실업 혹은 저소득상황에 있을 수 있음
 - 기대여명 혹은 건강수명이 증가하더라도 '능력'의 실현이 가능한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7) 사회적 배제

○ 사회적 배제는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당연하게 여기는 수준의 참여를 향유할 수 없는 상태(Eurostat, 2010)를 의미하며, 버차트, UN 등의 측정방법이 활용

- 사회적 배제는 복합적, 다차원적, 다층적이며 역동적인 개념으로, 일자리, 소득, 교육, 사회적 활동 및 관계망, 권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 사회적 배제의 측정은 버차트(Burchardt, Le Grand & Piachaud, 2002)와 UN(Eurostat, 2010)의 측정방식이 존재

- 버차트 방식 : 재화와 서비스의 구입과 관련된 소비, 경제적·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의 참여와 관련된 생산, 지역적·국가적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정치참여, 가족·친구·공동체와의 통합과 관련된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측정
- 유럽연합 방식 : 노동시장 배제, 교육관련 배제, 건강관련 배제, 주거관련 배제, 사회적 연결망과 정보의 배제 등을 통해 측정

※ 유럽연합의 사회적 배제의 사회통계는 근로강도(work intensity)로 측정하는데, 근로강도란 한 가구에서 18~59세 성인 가구원들이 지난 1년간 이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에서

실제 일한 개월의 비율을 말함. 근로강도가 20%이하인 가구에 사는 가구원은 사회적 배제를 겪는 것으로 측정(Eurostat, 2013)

-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다차원적 영역, 신사회 위험과의 연결, 상대적 빈곤과 능력박탈의 개념을 포괄, 역동적·개발적 개념이라는 장점을 가짐
 - 소득박탈을 넘어서 다양한 삶의 기회의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표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신사회 위험(New Social Risks)와 연결됨
 - 고용의 질 저하, 청년 실업의 악화, 이민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 사회문제에 따른 빈곤 개념의 확장임
 - 배제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발생하므로 상대성의 개념이 포함되며, 개인 또는 집단의 자신의 삶을 바꿀 능력이 없는 상태에 주목함
 - 배제는 누군가의 행동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배제에는 배제시킨 자와 배제당한 자가 있다는 점에서, 즉 주체와 대상이 있다는 점에서 행위자간의 역동성이 발생
 -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배제되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없기 때문일 수 있음. 미래 기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예방이 가능하게 함
-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소득보장의 중요성 간과, 대표성 있는 정의 및 측정 방식의 부재, 집단의 이질성 등의 한계를 가짐
 -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교육과 일자리를 강조하면서 소득보장의 중요성을 약화시킴(Lister, 2004)
 -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의와 측정 방식이 다양하며 대표성 있는 정의와 측정이 부재
 - 사회적 배제가 관심을 가지는 장애인, 노숙인, 이민자, 청년실업집단 등은 이질적 특성이 존재하여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기 어려움

8) 사회복지정책과 빈곤의 정의

- 사회복지정책 목표와 빈곤 정의는 상호보완적 적용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에 따라 빈곤 정의를 달리 할 수 있음
 - 우선 개입의 대상은 절대적 빈곤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며,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빈곤을 측정을 위해 상대적 빈곤을 활용할 수 있음
 - 지역사회 혹은 개인이 생각하는 빈곤의 수준을 확인하여 개입이 필요한 빈곤선을 최대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알기 위해 주관적 빈곤선을 이용할 수 있음

- 소득으로 보장할 수 없는 예방적이고 사회통합적 정책 설계를 위해 사회경제적 박탈, 능력 박탈과 사회적 배제 개념을 활용할 수 있음
- 사회복지정책 성격에 따른 빈곤 정의는 아래와 같이 활용될 수 있음
 - 절대적 빈곤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 접근을 중요시함
 - 상대적 빈곤은 소득재분배 정책을 중시함
 - 사회경제적 박탈은 식품, 주거, 의료, 교육 등 주요 영역의 핵심 서비스 제공을 제시함
 - 능력(역량)박탈은 교육과 보건서비스 등 공공재의 제공을 제안함
 - 사회적 배제는 차별을 줄이고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조함

2. 빈곤 원인에 관한 다양한 관점

□ 인적자본이론

- 인적 자본이란 교육과 훈련 등에 대한 투자지출에 의해 형성되어 인간에게 구체화된 지식과 기능(홍경준, 2001)을 말하며, 노동의 질과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강조
 - 노동의 가치는 공급한 노동량 뿐만 아니라 생산성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생산성의 차이가 소득의 차이를 낳음
 -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의 관점에서 미래의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하여 현재의 이익을 어느 정도 희생하여 자기 자신들의 개발에 투자하면 임금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봄
 - 교육에 대한 투자 결정은 현재 소득을 포기하는 투자행위로 이를 통해 미래의 노동 시장에서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도 이는 지출한 교육비용에 이자를 붙여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학력 숙련 노동자와 저학력 미숙련 노동자의 평생임금소득과 근로조건의 가치는 동일하다고 봄
 - 교육에 대한 방식은 일반훈련과 기업 특수적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훈련은 다른 기업에서도 유용하여, 사용자는 이직을 우려하여 잘 제공하지 않으나, 근로자가 낮은 임금의 형태로 일반 훈련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음
 - 기업 특수적 훈련은 다른 기업에서는 유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이전가능성이 없으므로 기업은 기업특수적 훈련을 제공하면서, 노동자의 생산성보다는 낮은 임금을 지불함

- 인적자본이론에서 빈곤은 낮은 생산성의 결과를 의미하며, 낮은 인적자본 투자는 낮은 생산성으로 이어지며 이는 시장에서 낮은 임금을 받게 하여 빈곤이 발생함

□ 선발이론

- 선발이론이란 사용자의 정보 부족을 강조하고, 근로자의 교육수준 등의 배경을 선발의 기준으로 함
 -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진정한 생산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다고 보며, 근로자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배경적 특성(예, 교육수준)을 잠재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정보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한다고 봄
 - 인적자본이론은 학교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직접적으로 높인다고 보는 반면에, 선발이론은 교육수준이 잠재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골라내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한다고 봄
 - 근로현장 교육을 강조하며, 빈곤과 불평등의 대안으로서 학력증진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며,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 강조
 - 선발이론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고학력 수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쉽다는 점, 학력이 개인의 생애에 걸쳐 사회적 지위를 대변하는 것을 설명하기에 장점을 가지나 선발효과의 적정수준 및 낮은 효과는 한계로 지적

□ 직무경쟁이론

- 직무경쟁이론은 직무경쟁과 상대적 임금을 강조
 - 직무경쟁이론은 직무별로 임금이 고정되어 있다고 보며, 노동자의 임금의 결정은 어떤 직무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됨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데 적은 비용이 드는 노동자(높은 교육수준, 나이, 지능)에게 좋은 직무가 배정됨
 - 임금은 근로자가 가지는 절대적인 인적자본이 아니라, 근로자내에서의 서열(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적 요인)에 따라 결정됨
- 빈곤과 불평등의 대안으로서 학력증진정책의 한계를 제시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및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빈곤층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해 절대적인 인적자본이 향상되더라도, 근로자내에서의 서열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좋은 일자리의 숫자는 늘 고정되어 있고, 비빈곤층은 그들의 상대적 위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학력증진으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
- 빈곤층이 접근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력증진보다는 직접적으로 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 직무경쟁이론은 임금상승 없는 현장훈련이 작동할 수 있는 근거, 과잉학력의 사회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일직무에서 노동시장에 따라 임금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 존재

□ 노동시장분절

- 노동시장분절이론은 노동시장의 분절을 강조하며, 내부노동시장이론, 이중경제이론 등으로 구분됨
- 노동시장이 동질한 하나의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분절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분절된 노동시장들에서의 임금결정과정은 다르고, 분절된 노동시장들에 속한 근로자들 사이에는 매우 제한된 이동이 있다고 주장
- 내부노동시장이론(internal labor market theory) : 내부노동시장의 직무들은 외부시장에서의 경쟁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며, 내부노동시장의 임금결정방식은 특정의 '행정적'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결정됨
- 이중경제이론(dual economy theory)은 자본축적에 맞추어서 노동시장 분절을 설명하며, 자본가는 노동으로부터의 잉여가치 착취 및 다른 자본들과의 경쟁을 통한 자본축적과정에서 자본은 점차 소수의 자본가에게 집중됨
- 노동시장분절이론과 빈곤은 처음 일자리가 이차노동시장(외부노동시장)인 빈곤층의 한계를 설명해 주며, 이차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교육수준을 높인다고 하여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일차노동시장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강조

□ 사회적 자본 이론

- 사회적 자본 이론은 계급에 따른 잉여가치의 이용여부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회

적 자본이 높은 경우 빈곤의 위험이 적고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우 빈곤의 위험이 높아짐(홍경준, 2001)

-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조로서의 연결망을 말함(Coleman, 1988)
- 고용, 자산, 소득, 주거, 교육, 기술 등에서 유용한 속성을 가진 행위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 관계구조와 행위자들의 유용한 속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연결망에서 배제된 경우 유용한 속성을 활용할 수 없음
- 사회적 자본 이론은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근거를 제공한다. 즉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나, 인적 자본과 물질 자본의 결합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는 점을 간과한다는 한계를 가짐

□ Marxist 계급이론

- Marxist 계급 이론은 계급에 따른 잉여가치의 이용여부의 차이를 강조하며, 계급 위치의 차이가 소득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
 - 자본가계급 :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그들의 잉여생산을 착취할 수 있음
 - 관리자(manager)계급 : 비록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위(authorit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와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자본가 다음의 높은 소득을 영위할 수 있음
 - 뽀띠부르주아(petty bourgeois)계급 :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나 타인의 노동을 고용하지 않는 반면, 자신들의 노동력을 타인에게 팔지 않기 때문에 그들 노동의 잉여가치는 착취를 당하지 않아 자기 자신들의 노동으로부터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음
 - 노동자계급 : 그들의 소득이 유일하게 그들의 노동을 팔아서 나오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음
- Marxist 계급 이론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에서 빈곤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빈곤에 대한 대책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철폐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이론의 큰 한계로 작용

□ 빈곤문화론

- 빈곤문화론은 빈곤한 사람들의 문화를 강조하며, 빈곤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굳어지고, 빈곤이 해결되어도 빈곤문화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 빈곤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점을 강조
 - 빈곤한 사람들은 사회의 지배문화(dominant culture)와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살고 있으며, 빈곤문화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세대 간 학습된다고 봄
 - 빈곤문화론에서 빈곤문화는 빈곤의 원인이자 결과인 양면적 현상이며, 빈곤문화가 세대간 세습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빈곤문화론은 빈곤층의 심리적 측면 등 통합적인 관점의 필요성과 관점의 확대를 이루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빈곤문화의 존재 자체, 희생자에 대한 비난 등의 한계 존재

□ 세계화

- 세계화란 지구촌 거리를 뛰어넘어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관계가 증대되는 과정을 의미함
 - 국가 외부의 보이지 않는 경제 주체들에 의하여 특정 국가 내의 국민의 삶이 큰 영향을 받음
 - 세계화는 국민국가의 환율과 이자율에 대한 통제력, 국내 자본에 대한 통제력을 약화된다는 특징을 가짐
 - 세계화와 빈곤은 세계화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이 모두 득을 볼 수 있다는 긍정론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부정론이 양존
 - 세계화론은 최근의 변화를 설명해 주며,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세계시장과 연관 지음으로써 시야의 확장이라는 의의와 함께 정책적 대응의 부재,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연계된다는 한계를 가짐

3. 빈곤개념의 확대(자산빈곤)

- 일반적으로 빈곤에 대해서는 소득빈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절대적/상대적 기준선을 설정한 연구들이 진행
 - 일반적으로 빈곤은 앞선 논의와 같이 소득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나타났으며, 많은 연구들이 진행
 - 그러나 최근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빈곤과 자산빈곤 두가지 개념을 결합한 연구들이 진행
- 자산은 소득에 대한 보충성 및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중요성이 높음
- 빈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일정한 수준이하를 의미하는데, 자산은 소득의 축적을 의미하며 소득빈곤을 일정기간 해소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성이 높음
 -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결과로서 획득한 소득을 축적해놓은 것으로 금융자산, 부동산 등을 의미
 - 자산은 소득활동이 중단될 경우 소득활동 재개시점까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
 - 이는 자산이 소득빈곤을 일정기간 해소시켜준다는 의미로서 빈곤해소 또는 빈곤을 축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
 -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자산이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빈곤의 중요성이 높음
 - 해외사례와 같이 자산이 cut-off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16개 정책에서 소득환산제를 적용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산에 관한 연구들은 지니계수를 활용한 불평등을 중심으로 소득과 자산의 비교를 통한 연구가 진행
 - 권순원(1992), 이정우·이성립(2001), 남상호(2007, 2008), 전승훈·임병인(2008) 등은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지니계수를 분석하여 자산의 불평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
 - 이 외에도 자산의 구성에서 주택 등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자산불평등

도는 1998년까지 심화되어 오다가 2000년대에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완화된 모습도 보여줌

- 그러나 이상은 외(2011)의 연구에서는 전체적 자산주준의 상승속에서 절대적 자산빈곤의 수준이 증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빈곤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

○ 자산빈곤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득빈곤과 유사하게 절대적/상대적 두가지 개념이 활용되고 있음

- Oliver and Shapiro(1990)은 자산빈곤을 가구가 소유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0'또는 음일 경우로 정의
 -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한정하여 부동산 등이 제외되었다는 비판이 존재
- Haveman & Wolff(2001)은 가구나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유형자산자원을 가진 경우로 정의하며, 구체적으로 5,000달러 이하를 '절대빈곤선'으로 규정
 - 기본적인 욕구는 4인 가족이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시켜주는 재원으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가계내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반영
 - 일정기간의 결정은 가구의 소득활동이 중지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자산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활을 유지하도록 요구받는 기간으로 3개월을 설정(Gomick, et, al.(2009)은 6개월로 확대)
 - 유형자산자원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재정적 자산과 현금을 의미
- Brandonoli, Magri, and Smeeding(2010)은 소득을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상대빈곤 개념을 원용하여 연 소득빈곤성의 1/4을 절대적 자산빈곤의 기준으로 설정
- 이와 달리 이태진 외(2005)는 자산빈곤을 기준자산에 대한 중위자산의 50%로 설정하여 상대자산빈곤 개념을 사용
 - 이때 자산빈곤선을 확일적으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4인 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OECD 가구균등화 지수를 적용
- 남상호(2009)는 절대소득빈곤과 상대소득빈곤 개념 모두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상대자산빈곤은 상대소득빈곤의 소득을 순자산으로 대체하여, 중위값의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
 - 절대빈곤가구는 순자산이 최저생계비 6개월 금액에 미달하는 가구로 정의

4. 빈곤의 측정

□ 소득빈곤 측정의 기준은 ①소득, ②소비, ③부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소득은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소득이 높으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가능해짐
 - 소비에 비해 정확하고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선호(taste)와 선택(choice)에 있어 중립적임
 - 정책적 개입의 대상은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가능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음
- 소비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 여부는 소비 정도로 판단 가능함
 - 소득은 소비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며, 소비의 정도는 욕구충족 정도를 직접적으로 보여줌
 - 높은 미래 소득이 기대하는 경우 현재의 소비를 높이는 경향이 있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보여주는 평생소득의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 가능함
 - 다만 빚을 내서 소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을 간과할 수 있으며, 소비 정보는 소득에 비해 부정확하고 안정적이지 않으며 개인 간의 차이와 선택(choice)의 문제를 간과하는 한계가 있음
- 부는 소득이 집적된 상태(stock)인 부는 경제적 능력의 안정적인 측정이 가능함
 - 유량인 소득이 모인 부(wealth)는 경제적 능력을 안정적으로 보여주나, 같은 정도의 소득(income)이더라도 부(wealth)의 정도에 따라 생활수준은 차이가 있음
 - 또한 일시적인 소득 상실에 대처하고 미래 소득 창출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빈곤층의 경우 부(wealth)가 거의 없고, 자가 소유의 집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능

□ 자산빈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산변수, 자산빈곤선, 자산빈곤지수 설정 필요

- 자산변수는 다양한 자산의 개념을 활용하여 ①순자산, ②순자산-주거자산, ③유동자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Haveman & Wolff, 2001)
 - 순자산(Net Worth)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

- 순자산-주거자산(Home Equity) : 순자산에서 주거자산을 제외한 것으로, 순자산이 의미하는 것이 소득활동이 없는 기간동안 주거자산을 매각하여 기본지출에 사용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에서 제안
- 유동자산(Liquid assets) : 현금 또는 현금화 가능한 금융자산
- 다양한 관점에도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는 순자산의 기준을 활용한 것이 많음
- 자산빈곤선은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는 주로 상대자산빈곤선을 활용
 - 자산빈곤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고 분석한 Haveman & Wolff(2001)와 이후 후속연구들은 주로 절대적자산빈곤성의 개념을 활용하여 ‘일정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관심이 높음
 -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중위 자산의 일정비율로 상대적 자산빈곤선을 설정하는 사례가 다수
- 빈곤지수는 빈곤율을 이용하여 자산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에서 자산빈곤선 이하의 자산을 가진 가구비율로 측정

□ 빈곤 측정의 단위

- 빈곤 측정의 단위는 개인 또는 가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내포
 - 개인 단위의 측정은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거나, 실질적인 소비단위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
 - 소비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빈곤측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별 사람들의 경제적 안녕(economic well-being)임(김태성·손병돈, 2007)
 - 개인 단위 측정은 아동과 여성의 경우 가족 내에서 자원 배분에 있어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반영할 수 있음
 - 그러나 가족 내의 자원 배분의 정도를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
 - 가구 단위의 측정은 가구 내 소득 공유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가구규모 및 가구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가구는 소득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인의 소비는 가구 단위로 결정되기에 가구 내 소득을 균등하게 소비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함
 - 그러나 같은 소득이더라도 가구규모에 따라 개인의 소비수준이 달라지며, 규모(economy of scale)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구규모에 소득이 정비례하지 않아도

됨(예, 주거비의 공유 등)

- 이에 가구균등화 지수의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OECD 가구균등화 지수는 1인가구를 기준으로 $\sqrt{\text{가구원수}}$ 를 곱하여 최저필요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활용
 - ※ 1인가구의 최저필요소득이 30만원이라면 2인가구는 2배의 소득인 6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sqrt{2}$ (약 1.414)를 곱하여 약 42만원을 최저필요소득으로 계산함
 - ※ 우리나라는 1999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때 4인가구=1을 기준으로 1인가구는 0.349, 2인가구는 0.578, 3인가구는 0.795, 5인가구는 1.137을 적용함(김태성·손병돈, 2007)
- 가구규모가 같더라도 가구원 중에 장애인, 노인, 아동이 있는 경우 최저필요소득이 달라질 수 있음
 - ※ 장애인, 노인, 아동의 경우 기본적인 능력(capacity), 즉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들을 최소한의 수준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자원의 양과 수준이 높을 수 있음

□ 빈곤 측정의 방법

- ①빈곤율 (Poverty rate) : 빈곤선 소득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가구의 숫자를 전체 인구 숫자 혹은 전체 가구수로 나눈 값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가?라는 빈곤의 범위와 전체 인구(가구) 중 빈곤한 인구(가구)의 수를 알게 함
 - 시대 간, 국가 간 비교의 용이성을 가지나, 빈곤선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와 거의 소득이 없는 경우를 구분하지 못함
- ②빈곤갭(Poverty Gap) : 빈곤선에서 부족한 평균 소득으로 정의함
 - 빈곤층이 얼마나 심각하게 빈곤한가?라는 빈곤의 심도(depth)를 보여주며, 빈곤갭이 커질수록 빈곤가구의 빈곤문제가 더 심각해짐을 의미함
 - 그러나 빈곤가구 내의 소득분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함
 - 예, 100명이 10만원씩 모자라는 경우와 10명이 100만원씩 모자라는 경우가 같은 빈곤갭으로 측정됨
- ③센 지수(Sen index) : 빈곤율, 빈곤갭, 빈곤층의 소득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수
 - $P=H[I+(1-I)G]$ 로 H는 빈곤율, I는 빈곤갭 비율(빈곤층의 평균소득의 빈곤선에서의 비율), G는 빈곤층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을 뜻함

- 빈곤층 내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 sen 지수가 증가하는 것에 논란이 존재
- ④빈곤기간(Poverty length) : 빈곤층이 빈곤한 상황에 머무른 기간을 뜻함
 - 빈곤지속기간 혹은 빈곤경험시간으로 측정가능하며, 시간단위에 따라 월단위, 연단위 빈곤기간 측정 가능
 - 빈곤 탈출과 진입에 관련된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음

□ 빈곤측정 관련 변수

- 가구주 성별 :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일반적으로 높음(구인회, 2002; 김교성·최영, 2006; 김수정, 2008; 배화옥, 2008; 이순미 2018)
 - 돌봄 책임으로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일자리 상실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 혹은 임금수준이 낮음
 - 비혼 여성의 다차원 빈곤율(30.5%)은 기혼 남성(8.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으며(이순미, 2018), 여성가주주의 아동가구 빈곤율(약 30%)은 남성가구주 아동가구 빈곤율 10%보다 높음(배화옥, 2008)
 -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30~44세 여성 대졸자의 취업비율이 70%를 상회하고 80~90%대에 달하는 국가도 많은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남녀임금격차는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의회 여성참여비율(한국 국회의원 15.7%,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7% 수준)은 핀란드·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의 여성 정치 참여율 30~40%보다 낮은 수준임(이현재, 2014)
 - 여성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노인의 빈곤율보다 높음(최현수류연규, 2003; 홍백익, 2005; 최옥금, 2007; 김영주 2008)
- 가구주 연령 : 연령이 증가할수록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감소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져 빈곤율과 다차원적인 영역에서의 배제가 증가함(김영주, 2008; 이상봉, 2018)
 - 후기 노인(75세 이상)일수록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반면 저축 또는 자산의 소비는 갈수록 증가하여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

- 우리나라 65~69세의 빈곤율은 33.6% 인데 비해, 75세 이상의 빈곤율은 69.5%이며(김수완, 2015), 나이가 많을수록 중고령자의 경상소득이 작아짐(이상봉, 2018)
- 가구주 교육수준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곤확률이 낮음(홍백의, 2005; 최옥금, 2007; 김미숙, 2008; 김교성, 2010)
 - 여러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교육수준이 빈곤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동의 경우 초등졸 이하 가구주의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고, 대졸 이상 가구주의 아동 빈곤율이 가장 낮음(김미숙, 2008)
 - 노인의 경우 학력이 무학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 이상의 학력의 경우 차이가 크며, 그 차이는 줄지 않고 있음(이소정 외, 2008)
- 가구주 및 가구원 근로여부: 가구주가 근로활동 중인 경우 빈곤율이 낮음
 -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15.5%인 데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의 빈곤율은 34.8%임(최현수류연구, 2003)
 - 가구주가 실업상태인 경우 빈곤율이 높으며(박능후 외 2003),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빈곤할 가능성이 낮음(김교성, 2010)
 -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과 동거할수록 빈곤율이 낮음(McLaughlin & Jensen, 1995; 최현수류연구, 2003; 홍백의, 2005; 배화옥, 2008)
 - 아동가구내 취업자수와 빈곤계층간에는 뚜렷한 선형 상관관계가 있어, 가구내 취업자 수가 1명일 때 극빈층에 속할 비율이 가장 높음(배화옥, 2008)
 - 1인가구와 부부가구에 속한 노인의 증가, 즉 자녀와 독립되어 살아가는 노인의 증가는 노인층의 상대빈곤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됨(박경숙, 김미선, 2016)
-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 가구주가 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경우 빈곤율이 높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8년 125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49.9%에 불과함(김유선, 2008)
 - 임시일용직 종사자는 상용직에 비해 저임금 고용에 처할 위험이 높음(김교성, 2010)
- 가구주 장애여부 : 가구주가 장애가 있는 경우 빈곤율이 높음(김태완, 2010; 박혜원·김원호, 2019)

- 장애인의 소득은 비장애인 대비 2008년 64.6%에 불과하며,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빈곤상태에 처해 있는 장애인은 5.1%로 비장애인의 1.6%보다 3.2배 높음(김태완, 2010)
- 중고령층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은 비장애인가구의 빈곤율보다 상당히 높음(박혜원·김원호, 2019)
- 혼인상태 : 독신노인일수록 부부노인보다 빈곤율이 더 높음
 - 우리나라 독신노인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77%에 이름(정경희, 2009)
 - 혼인상태가 노인빈곤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라서 여성노인의 경우 현 혼인상태가 빈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남성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음(오영희 외, 2005)
 - 이혼, 별거, 사별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빈곤율이 높으며(김교성, 2010), 비혼 청년의 빈곤율은 기혼 청년의 빈곤율보다 높음
 - 비혼 청년의 소득빈곤율은 남성 청년 59.6%, 여성 청년 62.5%로 기혼 남성 청년의 2.4%, 기혼 여성 청년의 3.4%보다 높음(이순미, 2018)
 - 조손가구와 모자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아동빈곤율이 높음(배화옥, 2008)
- 가구의 크기 : 아동가구 중 아동의 수가 많을수록 빈곤율이 높음
 - 아동의 수가 3~4명 있는 가구는 극빈층의 비율이 각각 11.8%와 17.5%로 아동의 수가 1~2명일 때의 9.9%와 7.5%에 비해 높음(배화옥, 2008)
- 주거 : 자가가구는 전월세가구에 비해 빈곤할 가능성이 낮음(김교성, 2010)
 - 주거점유형태가 안정적이지 않을수록 소득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중고령자의 경상소득이 낮음(이상봉, 2018)
- 지역 :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중소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빈곤율이 낮음(McLaughlin & Jensen, 1995; 최현수·류연규, 2003; 최옥금 2007)
 - 농어촌의 경우 차상위계층이 57.0%인 반면에 도시의 경우 43.3%임(오영희 외, 2005)
 - 소득이 낮은 빈곤층일수록 대도시에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임(최옥금, 2007)
 - 농어촌 노인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노인독인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기 때문임(오영희, 외, 2005). ‘2005년 인구 총 조사’에 따르면 읍면지역에 사는

-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37.1%이며, 이 중 노인만 살고 있는 가구가 농촌노인가구의 약 63.3%에 이름(김영주, 2008)
- 도에 거주할수록 서울이나 광역시보다 중고령자의 경상소득이 낮음(이상봉, 2018)
 - 지역에 따라 아동빈곤율에 차이가 있음
 - 극빈층은 서울이 경기도 보다 많지만 전반적인 빈곤층은 서울이 경기도 보다 적음 (김희연 외, 2007)
 -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이 빈곤율에 영향을 미침
 - 지역의 고용율이나 고용성장율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많을수록 빈곤의 위험이 감소함(김교성·노혜진, 2009)
 - 지역의 총 사업체의 수가 많을수록 개별가구가 빈곤할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반대로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개별가구가 빈곤할 가능성이 높아짐(김교성, 2010)
- 사회복지제도 : 지역의 사회복지급여 수준, 서비스 수준, 아동 1인당 교육지출 수준, 공공부문 고용 수준, 재정자립도, 집권정당의 성격이 빈곤율에 영향을 미침(Iceland, 1997; 김교성·노혜진, 2009)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은 노인의 소득불평등도를 낮추고 있음(황선재·김정석, 2013)
 - 공적연금은 생애기간에서 노동시장의 근로소득격차를 줄이고 빈곤율을 낮추는 역할을 함(김수완, 2015)

III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1. 기초수급자 실태 분석
2. 소득빈곤 실태 분석
3. 자산빈곤 실태 분석
4. 이중빈곤 실태분석

Ⅲ 경기도 빈곤실태 분석

1. 기초수급자 실태 분석

□ 경기도 내 31개 시군간 기초수급률의 편차는 최대 5.08배로 매우 높음

- 경기도 내에서는 우선 남부(2.2%)와 북부(3.1%)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북부지역에 수급률이 높은 지역(연천, 동두천, 가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 31개 시군별 수급률이 높은 5개 지역은 연천, 동두천(6.1%), 가평(5.8%), 여주(4.4%), 포천(4.3%)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4개 지역이 북부에 위치하고 있음
 - 수급률이 낮은 5개 지역은 용인(1.2%), 화성(1.3%), 광주, 과천(1.7%), 하남(1.8%)이며, 5개 지역 모두 남부에 위치하며 지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지역임
 - 물론 용인시의 경우 수지구, 기흥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인구의 지가나 소득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화성시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 면 지역(농촌)과 동 지역(도시)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신도시 개발에 따른 동탄동 등의 지가 및 소득수준은 매우 높음
 - 기초정부 내에서도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지만 소득환산제의 적용기준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초정부의 수급률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이 발생
 - 경기도의 남부와 북부간 수급률 차이는 1.4배로 나타나고 있음
-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 수급률(용인시, 1.2%) 및 최고 수급률(연천, 동두천, 6.1%) 지역간 5.08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내 최대-최소 지역간 편차는 광역시의 2.23배, 광역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포함)의 3.35배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국 수준의 격차보다 경기도 내에서 나타나는 편차가 매우 큼을 의

미하며,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연천, 가평과 같이 군지역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기준 및 주거용재산 인정한 도액을 놓여준 지역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자치구별 기초수급률은 최저는 옹진군(2.92%), 최고는 강화군(4.88%)로 1.67배 격차에 불과한 실정

〈표 Ⅲ-1〉 인천광역시 기초정부별 기초수급률(2018년 말 기준)

(단위 : %)

지역	기초수급률	지역	기초수급률
인천광역시	3.83	부평구	4.70
중구	3.83	계양구	3.80
동구	4.74	서구	2.85
미추홀구	4.13	강화군	4.88
연수구	2.93	옹진군	2.92
남동구	4.17		

- 또한 10개 기초정부 중 인천광역시 평균 수급률 이상 지역은 5개(동구, 미추홀구, 강화군, 남동구, 부평구)로 군지역과 구지역의 편차가 크지 않음
- 이는 인천광역시는 자치구와 군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하게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수준이 낮은 군 지역이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임

〈표 Ⅲ-2〉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수급자 및 수급률 현황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총가구수	총인구수	가구수	수급자수	수급률
합계	5,340,454	13,159,178	228,650	317,174	2.4
남부소계	3,931,764	9,741,853	152,733	211,156	2.2
수원시	496,602	1,197,153	16,091	21,593	1.8
용인시	398,698	1,048,832	8,774	12,151	1.2
성남시	399,317	947,990	18,285	25,547	2.7
부천시	339,667	836,751	15,347	20,526	2.5
안산시	227,298	656,857	16,042	23,539	3.6
화성시	315,862	790,446	7,607	10,478	1.3
안양시	223,040	572,673	8,182	11,000	1.9
평택시	219,453	502,292	9,438	13,018	2.6
시흥시	188,623	463,836	7,222	10,467	2.3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총가구수	총인구수	가구수	수급자수	수급률
김포시	171,553	432,167	6,191	8,686	2.0
광명시	127,091	321,435	5,712	8,086	2.5
광주시	153,251	367,655	4,550	6,365	1.7
군포시	107,955	274,686	4,917	6,800	2.5
이천시	91,700	215,499	3,901	5,201	2.4
오산시	91,538	220,085	3,266	4,603	2.1
하남시	111,295	264,406	3,383	4,744	1.8
안성시	81,140	184,610	4,334	5,744	3.1
의왕시	61,335	158,696	2,038	2,818	1.8
여주시	49,808	111,093	3,635	4,836	4.4
양평군	55,239	116,641	3,097	3,963	3.4
과천시	21,299	58,050	721	991	1.7
북부소계	1,408,690	3,417,325	75,917	106,018	3.1
고양시	422,864	1,047,575	17,586	24,728	2.4
남양주시	270,211	691,107	11,985	17,132	2.5
의정부시	188,869	450,961	12,215	17,024	3.8
파주시	190,474	453,883	9,761	13,966	3.1
양주시	91,484	220,853	5,741	8,089	3.7
구리시	79,795	201,357	4,516	6,492	3.2
포천시	69,855	149,368	4,778	6,417	4.3
동두천시	42,929	95,250	4,271	5,813	6.1
가평군	30,701	62,948	3,029	3,660	5.8
연천군	21,508	44,023	2,035	2,697	6.1

자료: 행복e음, 2019년 6월말 기준.

- 기초수급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가평군(남성-51.1%, 여성-48.9%)을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수급자의 성별 비율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80세 이상 고령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10%이상인 것으로 보아 남성과 여성의 기대여명에 따른 차이로 판단됨

〈표 Ⅲ-3〉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성별 비율

(단위 : %)

시군	남자	여자	시군	남자	여자
경기도			하남시	45.6	54.4
수원시	45.1	54.9	안성시	44.7	55.3
용인시	42.3	57.7	의왕시	43.0	57.0
성남시	45.8	54.2	여주시	45.0	55.0
부천시	45.2	54.8	양평군	47.9	52.1
안산시	43.6	56.4	과천시	36.1	63.9
화성시	43.3	56.7	고양시	44.2	55.8
안양시	46.1	53.9	남양주시	43.8	56.2
평택시	44.3	55.7	의정부시	43.4	56.6
시흥시	46.2	53.8	파주시	43.4	56.6
김포시	43.4	56.6	양주시	44.2	55.8
광명시	43.9	56.1	구리시	46.5	53.5
광주시	45.7	54.3	포천시	47.5	52.5
군포시	42.9	57.1	동두천시	44.8	55.2
이천시	45.3	54.7	가평군	51.1	48.9
오산시	44.2	55.8	연천군	45.1	54.9

자료: 행복e음, 2019년 6월말 기준.

〈표 Ⅲ-4〉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연령 비율

(단위 : %)

시군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경기도											
수원시	5.35	15.45	5.00	4.51	10.37	15.23	15.96	16.08	10.39	1.61	0.06
용인시	6.19	14.69	5.30	4.84	9.33	12.88	12.66	17.89	13.32	2.81	0.09
성남시	5.57	15.40	5.87	4.28	10.15	16.00	16.35	15.46	9.28	1.62	0.02
부천시	4.28	14.55	5.56	4.00	9.42	16.33	16.52	16.19	10.97	2.11	0.08
안산시	6.60	19.92	6.16	4.37	10.81	15.03	11.84	13.48	10.28	1.48	0.02
화성시	7.32	16.35	4.92	5.14	10.14	13.46	13.69	14.90	11.44	2.58	0.08
안양시	4.96	15.97	5.94	3.67	9.77	16.63	16.51	14.42	10.03	2.06	0.05
평택시	8.06	17.40	5.22	4.89	9.48	14.31	14.48	14.66	9.88	1.59	0.05
시흥시	7.18	19.91	6.09	4.66	11.33	15.86	13.13	12.12	8.44	1.20	0.09
김포시	3.77	7.94	4.90	4.81	9.91	16.65	18.01	20.32	11.38	2.27	0.04

시군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99세	100세 이상
광명시	5.22	17.01	6.01	4.35	9.71	14.63	14.86	16.01	10.43	1.64	0.12
광주시	7.37	19.39	5.13	4.34	10.15	13.25	14.30	14.28	9.67	2.01	0.08
군포시	5.60	15.11	5.85	4.40	9.60	16.39	16.12	14.84	10.06	1.99	0.04
이천시	5.57	15.60	4.91	4.35	10.44	15.87	14.99	14.54	11.37	2.27	0.08
오산시	8.62	18.51	4.23	5.71	9.73	14.77	13.75	15.28	8.41	0.98	0.00
하남시	5.71	14.04	5.77	4.74	9.32	14.55	17.02	16.66	10.17	1.97	0.06
안성시	5.47	15.88	5.25	3.75	8.58	14.23	15.92	15.44	13.12	2.23	0.13
의왕시	5.20	12.81	5.62	3.88	8.51	14.45	15.41	18.51	12.99	2.53	0.11
여주시	6.75	15.19	5.72	4.37	8.83	14.34	15.21	16.64	11.02	1.89	0.06
양평군	5.40	15.28	4.32	3.54	7.86	14.77	17.63	17.04	11.91	2.21	0.05
과천시	3.13	13.25	6.37	3.54	6.37	12.94	16.89	19.11	14.56	3.64	0.20
고양시	5.45	16.48	6.33	3.86	10.22	16.03	14.46	15.34	10.41	1.38	0.04
남양주시	5.71	17.23	4.75	3.89	9.83	13.61	14.20	16.77	11.74	2.14	0.12
의정부시	6.02	17.09	5.83	3.76	9.93	14.69	14.88	16.25	9.86	1.68	0.04
파주시	6.76	17.23	4.62	3.54	10.03	13.25	13.75	18.13	10.87	1.74	0.08
양주시	5.93	17.41	3.96	3.84	9.91	12.28	13.67	19.07	11.72	2.11	0.10
구리시	5.07	14.68	7.29	4.14	9.95	17.10	17.10	14.57	8.93	1.13	0.04
포천시	4.30	14.96	4.25	3.71	9.50	15.22	17.88	17.72	10.17	2.17	0.11
동두천시	6.18	17.03	3.94	3.51	8.88	14.00	15.70	18.85	10.41	1.44	0.06
가평군	2.71	9.89	2.08	3.12	10.55	18.30	19.39	19.72	11.48	2.71	0.05
연천군	4.75	15.10	3.14	3.22	6.90	13.41	16.98	20.24	14.08	2.12	0.08

자료: 행복e음, 2019년 6월말 기준.

- 경기도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일반수급자 가구이며, 조건부 수급자, 특례가구수급자, 시설수급자의 순으로 나타남
 - 가평군의 경우 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인 ‘가평 꽃동네’가 위치하고 있어 시설수급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5〉 경기도 기초수급자 유형

(단위 : %)

시군	일반수급자가구	조건부수급자가구	특례수급자가구	시설수급자	기타
경기도					
수원시	81.9	12.0	3.1	3.1	0.0
용인시	87.1	8.2	2.2	2.5	0.0

시군	일반수급자가구	조건부수급자가구	특례수급자가구	시설수급자	기타
성남시	85.7	12.1	1.9	0.2	0.0
부천시	79.3	12.1	4.9	3.7	0.0
안산시	85.6	8.7	4.1	1.6	0.0
화성시	80.1	10.3	2.3	7.3	0.0
안양시	81.9	11.3	5.0	1.8	0.0
평택시	83.9	9.3	3.1	3.7	0.0
시흥시	80.3	14.9	1.0	3.8	0.0
김포시	70.9	19.8	3.5	5.8	0.0
광명시	85.5	11.0	1.5	2.0	0.0
광주시	83.7	13.7	1.7	0.9	0.0
군포시	85.6	11.0	1.2	2.2	0.0
이천시	76.3	13.1	2.0	8.6	0.0
오산시	86.8	11.2	1.4	0.6	0.0
하남시	86.3	7.1	4.3	2.3	0.0
안성시	76.8	13.6	3.4	6.2	0.0
의왕시	90.7	3.3	1.8	4.1	0.0
여주시	83.9	7.3	0.6	8.1	0.0
양평군	80.9	8.9	4.3	5.9	0.0
과천시	79.0	12.4	1.3	7.3	0.0
고양시	88.3	9.0	1.6	1.1	0.0
남양주시	82.9	10.4	1.1	5.4	0.1
의정부시	84.8	8.6	1.4	5.2	0.0
파주시	88.5	5.8	1.0	4.7	0.0
양주시	77.4	12.8	2.4	7.4	0.0
구리시	91.1	5.5	2.9	0.5	0.0
포천시	88.3	4.6	3.8	3.4	0.0
동두천시	88.2	7.0	2.8	2.0	0.0
가평군	65.3	1.9	1.5	31.3	0.0
연천군	84.4	8.7	6.4	0.5	0.0

자료: 행복e음, 2019년 6월말 기준.

- 기초수급자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5인가구 이상의 비율도 5%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수급자 가구원수는 기초수급자 소득선정기준에서 적용되어, 다음의 소득인정액 분포에서 200만원 이상의 비율과 연관성을 가짐

〈표 Ⅲ-6〉 경기도 기초수급자 가구원수별 분포

(단위 : %)

시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이상
경기도										
수원시	53.0	20.6	14.2	6.9	3.6	0.96	0.52	0.15	0.00	0.07
용인시	47.9	22.7	15.1	8.2	4.3	1.05	0.63	0.07	0.00	0.00
성남시	47.5	22.4	15.5	8.9	4.1	1.05	0.44	0.14	0.03	0.04
부천시	52.3	21.7	13.2	7.9	3.1	1.19	0.45	0.10	0.00	0.00
안산시	41.7	23.2	17.4	11.0	4.2	1.62	0.57	0.22	0.04	0.00
화성시	50.3	20.7	14.3	8.9	4.2	1.13	0.36	0.04	0.00	0.00
안양시	51.3	20.5	14.3	8.5	3.8	0.94	0.41	0.20	0.06	0.00
평택시	48.8	21.0	13.8	9.7	4.2	1.29	0.47	0.20	0.05	0.35
시흥시	44.2	20.9	16.8	9.6	5.6	1.92	0.49	0.31	0.12	0.10
김포시	56.7	25.7	8.6	5.4	1.5	1.78	0.13	0.00	0.15	0.00
광명시	45.3	23.5	16.4	8.5	4.6	1.17	0.35	0.10	0.11	0.00
광주시	44.3	22.9	17.0	7.7	6.0	0.73	1.13	0.13	0.00	0.00
군포시	48.5	23.2	15.2	7.9	3.6	1.12	0.15	0.35	0.00	0.00
이천시	52.6	20.1	12.6	7.5	5.1	1.50	0.13	0.37	0.17	0.00
오산시	42.9	23.7	16.7	9.2	4.6	2.23	0.56	0.19	0.00	0.00
하남시	49.0	23.3	12.7	8.7	4.4	0.70	0.51	0.27	0.19	0.21
안성시	54.4	20.0	12.4	7.5	3.5	1.70	0.31	0.18	0.00	0.00
의왕시	51.2	22.4	12.3	8.1	4.1	1.49	0.11	0.00	0.25	0.00
여주시	53.6	20.6	11.5	8.6	3.9	0.79	0.85	0.00	0.00	0.21
양평군	55.1	20.2	10.3	7.7	4.0	1.35	1.05	0.22	0.00	0.00
과천시	49.5	22.8	17.8	8.0	1.3	0.61	0.00	0.00	0.00	0.00
고양시	45.4	22.4	15.4	10.8	4.1	1.37	0.44	0.13	0.04	0.00
남양주시	46.1	22.6	15.4	9.2	4.7	1.55	0.33	0.13	0.00	0.06
의정부시	47.4	21.4	15.4	9.9	4.0	1.34	0.31	0.06	0.15	0.00

시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9인 가구	10인 이상
파주시	45.0	22.5	14.2	10.5	5.2	1.84	0.45	0.18	0.19	0.00
양주시	47.2	22.7	13.8	9.0	4.7	1.54	0.93	0.09	0.04	0.00
구리시	46.1	22.2	16.4	9.5	4.0	1.37	0.21	0.21	0.00	0.00
포천시	52.2	21.2	12.2	8.6	4.6	0.75	0.23	0.13	0.00	0.16
동두천시	46.5	22.9	14.6	8.8	4.5	2.02	0.15	0.20	0.07	0.20
가평군	67.9	15.3	6.5	5.3	2.9	2.19	0.05	0.00	0.00	0.00
연천군	52.9	21.9	12.3	6.7	5.1	0.98	0.12	0.00	0.00	0.00

자료: 행복e음, 2019년 6월말 기준.

- 생계급여의 수급여부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이외에 근로능력 유무도 중요한 변수이며, 경기도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67.4%로 높음
-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근로능력은 기본적으로 연령과 장애·질병·부상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
 -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범위 내에 있다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 수급자가 되거나, 생계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음

〈표 Ⅲ-7〉 경기도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유무

(단위 : %)

시군	근로능력없음	근로능력있음	시군	근로능력없음	근로능력있음
경기도	67.4	32.6	하남시	70.3	29.7
수원시	69.9	30.1	안성시	74.4	25.6
용인시	65.5	34.5	의왕시	64.7	35.3
성남시	64.9	35.1	여주시	72.7	27.3
부천시	74.3	25.7	양평군	78.5	21.5
안산시	65.6	34.4	과천시	68.2	31.8
화성시	63.9	36.1	고양시	62.4	37.6
안양시	64.7	35.3	남양주시	66.5	33.5
평택시	68.0	32.0	의정부시	64.5	35.5
시흥시	66.2	33.8	파주시	63.8	36.2
김포시	84.4	15.6	양주시	73.1	26.9
광명시	66.3	33.7	구리시	65.2	34.8

시군	근로능력없음	근로능력있음	시군	근로능력없음	근로능력있음
광주시	66.4	33.6	포천시	74.4	25.6
군포시	62.3	37.7	동두천시	67.0	33.0
이천시	71.1	28.9	가평군	82.6	17.4
오산시	61.5	38.5	연천군	78.9	21.1

- 기초수급자 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가 43.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단독가구(39.8%)로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전체를 기준으로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그 다음이 단독가구가 39.8%로 나타나고 있음
 -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 가평군(53.0%)이 가장 높고, 시흥시(34.6%), 안산시(34.7%)등은 낮은 수준
 - 부부가구의 경우 김포시(16.2%)가 가장 높고, 시흥시(8.0%), 안양시(8.5%)등은 낮은 수준
 -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시흥시가 50.8%로 과반 이상의 기초수급자가 자녀동거가구인 반면, 가평군은 26.0%로 가장 낮은 수준

〈표 Ⅲ-8〉 경기도 기초수급자 가구형태 분포

(단위 : %)

시군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그외가족동거	비혈연가구
경기도	39.8	10.6	43.9	4.9	0.8
수원시	45.2	8.7	39.3	6.1	0.7
용인시	41.8	13.3	38.9	5.1	0.8
성남시	41.0	9.2	44.8	4.5	0.5
부천시	45.2	9.1	40.2	4.9	0.5
안산시	34.7	10.1	50.7	4.1	0.4
화성시	40.2	11.2	41.4	5.1	2.1
안양시	41.6	8.5	43.9	5.1	0.8
평택시	42.3	8.7	43.5	4.7	0.8
시흥시	34.6	8.0	50.8	5.8	0.8
김포시	46.6	16.2	30.4	5.6	1.1
광명시	39.1	10.0	46.8	3.8	0.3
광주시	35.7	10.9	46.3	5.7	1.4

시군	단독가구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그외가족동거	비혈연가구
군포시	40.4	9.5	44.2	5.2	0.8
이천시	41.7	11.2	39.6	6.4	1.1
오산시	36.9	11.7	46.3	4.5	0.6
하남시	43.1	12.4	40.7	3.5	0.3
안성시	43.6	10.3	38.4	6.0	1.7
의왕시	42.7	13.3	37.0	6.0	1.0
여주시	39.9	13.2	40.3	5.6	1.1
양평군	44.2	11.2	35.4	5.7	3.4
과천시	42.6	12.1	39.4	5.4	0.6
고양시	37.7	10.4	46.6	4.6	0.8
남양주시	37.5	12.9	43.5	5.2	0.9
의정부시	38.7	10.4	46.6	3.8	0.5
파주시	37.2	13.2	43.1	5.5	0.9
양주시	37.0	13.3	44.0	4.8	0.9
구리시	37.1	9.0	48.6	4.8	0.5
포천시	41.2	10.6	41.1	5.8	1.4
동두천시	38.5	12.9	42.9	5.1	0.6
가평군	53.0	12.5	26.0	5.8	2.6
연천군	49.2	13.5	32.7	4.2	0.4

○ 가구구성 형태로는 노인세대의 비율이 높고, 다음으로 일반세대, 장애인세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노인세대의 경우 연천군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시흥시(21.0%), 구리시(24.3%)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반세대의 경우 의정부시가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천군(20.7%), 화성시(21.9%) 등은 낮게 나타남
- 안산시의 경우 모자세대(24.6%), 연천군의 경우 조손세대(1.7%), 안성·시흥시의 경우 소년소녀가장세대(0.5%)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표 Ⅲ-9〉 경기도 수급자 가구구성 형태별 분포

(단위 : %)

시군	일반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조손세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미혼부모 세대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보호	기타
경기도										
수원시	30.7	18.7	4.3	0.7	28.2	15.5	0.1	0.1	0.1	1.5
용인시	24.9	18.4	4.4	0.8	35.2	14.6	0.0	0.2	0.1	1.4
성남시	31.0	18.8	4.6	0.7	26.9	16.3	0.1	0.1	0.1	1.4
부천시	26.6	17.4	3.5	0.8	30.0	20.1	0.1	0.1	0.2	1.1
안산시	25.5	24.6	5.3	0.5	24.6	16.7	0.1	0.2	0.2	2.2
화성시	21.9	19.8	4.8	0.7	30.8	19.8	0.0	0.5	0.2	1.5
안양시	29.4	20.4	4.7	0.5	29.1	13.2	0.0	0.2	0.1	2.3
평택시	29.0	20.2	4.5	0.5	26.4	17.7	0.2	0.2	0.1	1.1
시흥시	29.8	24.4	5.4	0.7	21.0	16.6	0.1	0.5	0.0	1.4
김포시	30.9	11.7	1.8	0.9	32.8	19.8	0.0	0.3	0.2	1.5
광명시	25.1	19.7	4.4	0.7	29.5	19.6	0.0	0.3	0.1	0.7
광주시	27.8	21.0	5.8	1.0	26.8	15.9	0.1	0.1	0.2	1.3
군포시	25.7	21.2	4.8	0.6	27.5	17.4	0.1	0.1	0.1	2.4
이천시	28.3	16.8	4.4	0.8	28.3	18.9	0.2	0.3	0.1	1.9
오산시	26.6	23.3	5.2	1.0	27.2	15.2	0.0	0.3	0.1	1.2
하남시	27.0	17.5	4.4	0.4	32.7	17.1	0.0	0.3	0.0	0.6
안성시	28.1	16.7	3.4	1.3	28.7	18.2	0.0	0.5	0.2	2.9
의왕시	28.1	12.9	3.0	0.8	36.9	15.2	0.1	0.1	0.0	2.9
여주시	31.4	15.0	4.6	0.9	29.6	16.6	0.0	0.1	0.0	1.9
양평군	23.7	13.8	4.5	1.1	33.0	22.4	0.0	0.3	0.2	0.9
과천시	26.6	17.3	3.0	0.5	38.0	12.8	0.0	0.0	0.1	1.7
고양시	29.2	20.9	5.1	0.6	28.0	14.3	0.1	0.2	0.0	1.6
남양주시	25.6	19.3	5.3	0.8	31.1	16.1	0.1	0.3	0.2	1.3
의정부시	31.5	21.6	4.9	0.5	27.4	12.5	0.1	0.1	0.1	1.3
파주시	28.0	17.8	4.1	0.8	32.2	14.8	0.0	0.2	0.3	1.7
양주시	29.0	17.6	3.8	0.6	31.2	15.8	0.1	0.2	0.0	1.6
구리시	30.8	21.9	6.0	0.4	24.3	13.9	0.0	0.3	0.1	2.3
포천시	27.2	14.1	4.7	0.8	30.1	20.7	0.0	0.1	0.1	2.3

시군	일반세대	모자세대	부자세대	조손세대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미혼부모 세대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보호	기타
동두천시	27.7	16.8	5.0	1.1	29.9	17.5	0.1	0.1	0.1	1.6
가평군	27.3	7.2	2.6	1.2	36.6	21.8	0.0	0.2	0.0	3.0
연천군	20.7	11.4	6.0	1.7	38.9	20.7	0.0	0.0	0.1	0.5

- 수급자 급여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 국민기초 1종 및 2종 수급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가평군의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 비중이 3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Ⅲ-10〉 경기도 수급자 급여유형별 분포

(단위 : %)

시군	국가유공 자	국민기초 1종	국민기초 2종	군입대자 1종	군입재자 2종	보장시설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입양아동 18세미만	노숙인	의상자및 의사자의 유족
경기도										
수원시	0.4	69.7	24.9	0.0	0.0	3.9	1.2	0.0	0.0	0.0
용인시	0.6	69.7	22.3	0.1	0.2	4.0	3.1	0.1	0.0	0.0
성남시	0.3	71.2	26.9	0.0	0.0	0.4	1.1	0.0	0.0	0.0
부천시	0.3	68.9	24.6	0.0	0.0	4.4	1.7	0.0	0.0	0.0
안산시	0.2	66.9	29.7	0.0	0.1	1.9	1.1	0.0	0.0	0.0
화성시	0.3	61.2	22.8	0.0	0.0	10.2	5.4	0.1	0.0	0.0
안양시	0.3	69.0	27.7	0.0	0.1	2.4	0.5	0.1	0.0	0.0
평택시	0.2	66.5	24.8	0.0	0.1	4.5	3.8	0.1	0.0	0.0
시흥시	0.2	64.4	29.4	0.0	0.0	4.4	1.4	0.1	0.0	0.0
김포시	0.1	71.5	18.4	0.0	0.0	4.7	5.2	0.0	0.0	0.0
광명시	0.6	67.1	26.2	0.0	0.1	2.1	3.9	0.0	0.0	0.0
광주시	0.4	73.2	24.9	0.0	0.0	1.2	0.2	0.0	0.0	0.0
군포시	0.9	69.1	24.0	0.0	0.0	3.1	3.0	0.0	0.0	0.0
이천시	0.2	63.2	26.0	0.0	0.1	10.2	0.2	0.0	0.0	0.0
오산시	0.4	72.2	23.6	0.0	0.0	0.9	2.7	0.1	0.0	0.0
하남시	0.4	67.9	27.7	0.0	0.1	2.6	1.2	0.0	0.0	0.0
안성시	0.3	70.2	20.6	0.2	0.4	7.7	0.7	0.1	0.0	0.0
의왕시	0.4	66.4	24.5	0.1	0.6	6.4	1.6	0.1	0.0	0.0

시군	국가유공자	국민기초 1종	국민기초 2종	군입대자 1종	군입대자 2종	보장시설 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입양아동 18세미만	노숙인	의상자및 의사자의 유족
여주시	0.1	68.2	22.3	0.1	0.0	9.0	0.1	0.1	0.0	0.0
양평군	0.2	73.0	19.2	0.1	0.1	7.2	0.1	0.0	0.0	0.0
과천시	0.4	57.3	32.4	0.0	0.0	9.9	0.0	0.0	0.0	0.0
고양시	0.4	68.4	28.2	0.0	0.0	1.5	1.4	0.1	0.0	0.0
남양주시	0.4	66.5	24.5	0.0	0.0	7.5	1.0	0.1	0.0	0.0
의정부시	0.4	67.1	24.3	0.0	0.0	6.6	1.5	0.1	0.0	0.0
파주시	0.5	69.9	22.5	0.0	0.0	5.8	1.1	0.1	0.0	0.0
양주시	0.5	64.6	24.2	0.0	0.1	9.6	1.0	0.0	0.0	0.0
구리시	0.3	69.6	28.8	0.0	0.1	0.6	0.5	0.1	0.0	0.0
포천시	0.1	74.1	20.9	0.0	0.1	4.0	0.7	0.1	0.0	0.0
동두천시	0.4	80.1	16.5	0.0	0.1	2.6	0.2	0.0	0.0	0.0
가평군	0.1	52.9	10.2	0.0	0.0	36.6	0.2	0.0	0.0	0.0
연천군	0.1	76.1	23.2	0.0	0.0	0.6	0.0	0.0	0.0	0.0

○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비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충적 급여의 성격으로 인해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차액만큼만 지원이 되기에 기초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비율도 중요

– 경기도 31개 시군은 대부분 30% 수준의 기초연금대상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 연령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Ⅲ-11〉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중 기초연금 대상자 비율

(단위 : %)

시군	기초연금 대상자아님	기초연금 대상자	시군	기초연금 대상자아님	기초연금 대상자
경기도			하남시	63.7	36.3
수원시	66.2	33.8	안성시	64.1	35.9
용인시	61.8	38.2	의왕시	59.4	40.6
성남시	68.4	31.6	여주시	64.8	35.2
부천시	65.2	34.8	양평군	62.9	37.1
안산시	70.7	29.3	과천시	55.2	44.8
화성시	65.8	34.2	고양시	68.6	31.4

시군	기초연금 대상자아님	기초연금 대상자	시군	기초연금 대상자아님	기초연금 대상자
안양시	66.8	33.2	남양주시	64.7	35.3
평택시	68.8	30.5	의정부시	68.5	31.5
시흥시	73.5	26.5	파주시	66.8	33.2
김포시	67.2	32.8	양주시	64.2	35.8
광명시	66.9	33.1	구리시	71.3	28.7
광주시	68.5	31.5	포천시	64.1	35.9
군포시	67.4	32.6	동두천시	63.6	36.4
이천시	67.6	32.4	가평군	60.3	39.7
오산시	71.2	28.8	연천군	55.7	44.3

- 유사한 사례로 장애인연금도 동일한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나, 연금수급자의 수가 10% 미만(경기도 전체)으로 나타나기에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자 비중은 가평균(23.3%)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평군(14.5%), 이천시(13.7%)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Ⅲ-12〉 경기도 31개 시군별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단위 : %)

시군	장애인연금 대상자아님	장애인연금 대상자	시군	장애인연금 대상자아님	장애인연금 대상자
경기도	91.0	9.0	하남시	91.2	8.8
수원시	91.0	9.0	안성시	89.3	10.7
용인시	90.4	9.6	의왕시	90.9	9.1
성남시	91.4	8.6	여주시	89.7	10.3
부천시	90.5	9.5	양평군	85.5	14.5
안산시	92.7	7.3	과천시	93.1	6.9
화성시	88.8	11.2	고양시	91.8	8.2
안양시	91.8	8.2	남양주시	90.9	9.1
평택시	90.7	8.7	의정부시	92.6	7.4
시흥시	91.8	8.2	파주시	91.6	8.4
김포시	87.8	12.2	양주시	90.8	9.2
광명시	90.9	9.1	구리시	92.7	7.3

시군	장애인연금 대상자아님	장애인연금 대상자	시군	장애인연금 대상자아님	장애인연금 대상자
광주시	91.2	8.8	포천시	88.6	11.4
군포시	90.6	9.4	동두천시	92.4	7.6
이천시	86.3	13.7	가평군	76.7	23.3
오산시	92.2	7.8	연천군	92.2	7.8

-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이 30%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상당수가 소득인정액이 없는 상황임
 -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미만의 의미는 근로 등 소득활동이 없고, 부동산 등 재산도 거의 없는(기본재산액 공제기준 수준의 주거수준) 상태로 볼 수 있음
 - 가평군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것은 시설수급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과 궤를 같이함
 - 소득인정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95% 내외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도민 소득실태조사를 고려할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상향조정에 따라 추가로 선정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2018년 경기도민 욕구조사 결과 경기도 전체가구의 연간 가처분소득 평균은 4,047만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노인가구(2,329만원), 장애인가구(2,269만원)는 소득이 낮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
 - 실제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 가구는 경기도 전체(19.7%), 아동가구(6.5%), 노인가구(48.6%), 장애인가구(47.7%)로 매우 많은 수준임

〈표 Ⅲ-13〉 경기도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분포

(단위 : %)

시군	10만원 미만	10 ~ 20만원	20 ~ 30만원	30 ~ 40만원	40 ~ 50만원	50 ~ 60만원	60 ~ 70만원	70 ~ 80만원	80 ~ 90만원	90 ~ 100만원	100 ~ 200만원	200 ~ 300만원	300 ~ 400만원	400 ~ 500만원	500만원 이상
경기도	32.29	2.58	16.95	8.30	6.90	4.58	4.57	3.07	2.35	2.77	13.59	1.83	0.12	0.03	0.06
수원시	33.42	2.90	18.30	8.11	7.11	4.85	4.41	3.44	1.99	2.52	11.18	1.57	0.08	0.05	0.06
용인시	26.53	2.17	14.44	10.86	7.34	6.03	5.60	3.91	2.32	3.24	15.45	2.02	0.03	0.02	0.03
성남시	33.91	2.15	18.17	7.37	6.49	4.33	3.95	2.90	2.18	2.66	13.90	1.79	0.11	0.04	0.07
부천시	33.00	2.38	18.83	8.11	7.12	4.58	4.14	2.75	2.54	2.61	11.88	1.82	0.12	0.07	0.06
안산시	31.92	2.69	15.28	6.51	6.66	4.28	5.04	3.21	2.42	3.39	16.34	2.04	0.14	0.04	0.04
화성시	32.92	2.74	15.81	9.83	6.98	4.49	4.59	2.70	2.25	2.46	12.95	2.10	0.12	0.00	0.07
안양시	30.61	2.52	17.80	9.21	6.63	4.89	5.50	2.85	2.56	2.50	12.86	1.86	0.10	0.06	0.04
평택시	34.67	2.60	17.65	8.33	6.13	3.76	4.41	2.62	2.21	2.78	11.80	2.22	0.33	0.02	0.46
시흥시	34.33	3.45	14.64	7.00	5.61	4.62	4.16	3.70	2.79	2.22	15.01	2.12	0.25	0.03	0.08
김포시	49.90	3.12	19.32	9.28	7.63	2.88	2.67	1.77	1.09	0.62	1.62	0.11	0.00	0.00	0.00
광명시	30.56	2.32	17.72	7.65	6.37	4.64	4.90	3.39	2.95	2.79	14.76	1.85	0.09	0.00	0.01
광주시	30.13	2.42	13.70	10.41	6.12	6.42	4.50	3.27	2.75	2.80	15.16	2.28	0.00	0.02	0.03
군포시	29.38	3.08	17.82	7.86	6.77	4.54	5.30	3.02	2.87	3.21	14.51	1.55	0.09	0.00	0.00
이천시	34.59	2.74	17.77	8.71	6.75	3.74	5.01	2.14	2.56	2.78	11.24	1.72	0.06	0.10	0.12

시군	10만원 미만	10 ~ 20만원	20 ~ 30만원	30 ~ 40만원	40 ~ 50만원	50 ~ 60만원	60 ~ 70만원	70 ~ 80만원	80 ~ 90만원	90 ~ 100만원	100 ~ 200만원	200 ~ 300만원	300 ~ 400만원	400 ~ 500만원	500만원 이상
오산시	33.87	3.16	14.08	6.06	7.04	4.37	4.32	3.69	2.76	2.76	15.24	2.44	0.02	0.05	0.14
하남시	26.70	2.05	18.17	8.14	7.89	4.91	5.08	2.96	3.51	4.68	13.84	1.90	0.15	0.00	0.02
안성시	32.12	2.03	17.05	10.99	6.38	4.90	5.91	2.38	1.88	2.63	11.14	2.14	0.18	0.09	0.20
의왕시	25.59	1.60	16.80	9.86	7.97	6.48	4.84	3.95	2.99	2.74	14.98	2.06	0.14	0.00	0.00
여주시	32.93	2.45	16.50	11.03	7.78	5.00	3.48	2.43	2.47	2.72	11.69	1.37	0.15	0.00	0.02
양평군	31.87	2.13	18.34	11.29	6.13	4.83	5.37	2.54	2.32	2.67	10.21	1.94	0.11	0.08	0.16
과천시	21.54	1.42	17.69	14.96	6.37	6.47	9.10	4.15	1.31	3.64	11.93	1.42	0.00	0.00	0.00
고양시	32.27	2.73	16.52	7.97	6.98	4.23	4.85	3.15	2.25	2.72	14.49	1.73	0.06	0.01	0.03
남양주시	30.02	2.53	16.35	9.73	7.08	5.08	4.45	3.26	2.35	2.69	14.74	1.63	0.05	0.03	0.02
의정부시	33.00	2.98	16.66	8.43	6.91	4.31	4.39	2.97	2.19	2.51	13.81	1.59	0.20	0.00	0.05
파주시	31.17	2.46	16.24	7.88	7.83	4.80	3.67	3.22	2.69	2.97	14.37	2.55	0.13	0.00	0.02
양주시	30.33	2.16	17.05	8.67	7.67	4.99	5.20	3.32	1.98	2.59	14.00	1.86	0.11	0.04	0.01
구리시	35.78	2.11	15.55	8.73	5.84	3.72	4.70	3.07	2.15	3.27	13.40	1.48	0.17	0.00	0.04
포천시	31.85	2.73	19.26	9.14	7.46	4.35	3.63	2.97	2.30	2.48	12.54	1.27	0.00	0.02	0.00
동두천시	28.63	2.57	19.12	7.69	7.55	5.64	4.12	2.89	2.46	2.94	13.87	2.31	0.18	0.00	0.02
기평군	40.26	2.28	23.36	8.38	6.24	3.24	3.11	2.09	1.59	1.43	6.95	0.93	0.11	0.00	0.03
연천군	24.94	3.33	23.02	9.41	11.02	4.94	3.73	3.53	1.65	1.65	11.84	0.82	0.04	0.04	0.04

2. 소득빈곤 실태 분석

□ 분석방법

- (빈곤기준선) 소득 및 자산빈곤기준선은 상대적 개념을 활용하여, 중위수(중위 소득, 중위자산)의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설정
 -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거주 시군 환경에서의 빈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위소득의 기준을 활용
- (데이터) 2018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의 소득(경상소득)과 자산(부동산)을 활용하여 분석
 - 소득의 경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 가처분소득의 이상치가 많이 발견되어 경상소득을 활용
 - 또한 2016년 경기복지기준선과의 비교를 위해 경상소득 기준을 활용

〈표 Ⅲ-14〉 빈곤실태 분석에 활용된 소득/자산 구분

구분	항목
소득	①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세금공제 전 소득)
	② 사업소득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사업수입(매출액, 판매수입 등)에서 사업지출(총비용)을 뺀 금액)
	③ 재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수입, 개인연금·퇴직연금 등의 기타 재산소득)
	④ 공적 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⑤ 사적 이전소득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소득)
	⑥ 비소비지출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취득세, 벌금 등의 부정기적인 세금 제외 * 가구 간 이전지출 :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부모, 자녀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비영리단체로 이전 :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⑦ 경상소득 = ① + ② + ③ + ④ + ⑤
	⑧ 처분가능소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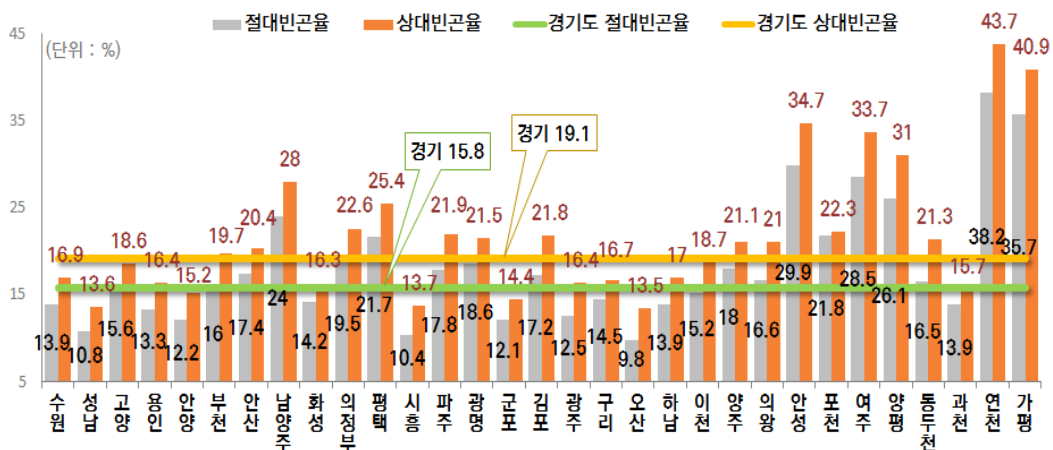
□ 경기도 빈곤율³⁾은 2018년 기준 19.1%로 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⁴⁾, 시군별

3) 분석자료는 경기복지재단(2018)의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이며, 빈곤율은 어떤 소득(시장·경상·가처분) 값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어, 본고에서는 경상소득(시장소득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등 2개를 모두 산출함

로 연천군이 가장 높고, 오산시가 가장 낮게 나타남

- 2018년 현재 경기도 절대빈곤율은 15.8%이고, 상대빈곤율⁵⁾은 19.1%로 전국 (15.0%)이나 OECD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
- 시군별로 보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각각 38.2%와 43.7%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산시로 9.8%와 13.5%임
 - 상대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등으로 주로 농촌지역이며, 낮은 지역은 성남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등 도시 지역
 -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는데, 남양주시와 평택시의 빈곤율은 안성시나 여주시를 제외한 다른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최근 신규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빈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됨

〈그림 Ⅲ-1〉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2018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 4) 전국 자료는 2016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경기도는 2017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빈곤율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기도 빈곤율이 전국에 비해 높다고 판단함
- 5) 절대빈곤율은 국가가 매년 정하는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의 비율로 산출하였고,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한 가구의 비율로 산출함

□ 경기도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40.0%와 47.7%이며, 노인 가구 유형⁶⁾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노인가구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독거노인가구이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⁷⁾은 각각 58.5%와 74.9%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노인가구’임
 -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40.0%와 47.7%로 가장 낮는데, 근로할 수 있는 가구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
 -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도 노인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음
 - 이에 비해 ‘노인만 거주’하고 있거나 노인 혼자살고 있는 ‘독거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각각 54.3%, 58.5%이고, 상대빈곤율은 65.9%와 74.9%로 매우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군별로 노인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포천시가 70.1%로 最高이고 성남시(35.5%)가 最低이며,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빈곤율은 의왕시(72.4%)가 상대빈곤율은 여주시(87.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거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율이 70%를 넘는 시군은 안산시(72.1%), 여주시(71.4%), 양평군(70.5%)이며, 상대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은 의왕시(85.5%), 안산시(84.4%), 연천군(83.0%), 포천시(82.8%), 화성시(81.1%) 등으로 나타남
 -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상태가 심각한 지역은 의왕시, 여주시, 안산시이며, 특히 안산시와 의왕시, 포천시는 빈곤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있는 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50%를 넘어 전반적으로 노인빈곤상태가 심각한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독거노인가구’보다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은 지역이 있는데,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구리시, 양주시, 가평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지원 정책이 더 많이 추진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6) 노인가구 유형은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노인가구’라고 하고, ‘노인가구주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를 의미하며,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독거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정의하고 각 유형별로 빈곤율을 산출함

7)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정부가 정한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한 유형별 노인가구의 비율로 산출하였고,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경기도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50%미만에 속한 유형별 노인가구의 비율로 산출함

〈표 Ⅲ-15〉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율(2018)

(단위 : %)

지역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경기도	40.0	47.7	42.5	50.7	54.3	65.9	58.5	74.9
수원시	42.5	50.2	44.9	53	53.1	64.1	57.3	69.5
성남시	28.0	35.5	30.6	38.6	46.2	58.4	54.6	70.9
고양시	41.8	49.9	45.0	53.8	59.7	72.8	58.5	79.5
용인시	32.5	41.4	33.4	42.6	44.8	59.5	51.9	74.2
안양시	29.0	36.3	31.8	39.5	44.2	55.2	49.2	65.7
부천시	39.6	46.7	41.5	48.9	55.8	66.5	61.1	78.9
안산시	50.1	56.4	52.4	59.1	66.1	75.2	72.1	84.4
남양주시	49.6	57.8	51.6	59.1	63.8	73.4	67.2	79.7
화성시	47.0	52.3	49.2	55.0	62.0	69.2	69.7	81.1
의정부시	43.2	47.4	46.8	51.8	57.8	64.1	55.2	62.0
평택시	47.8	53.8	50.2	56.7	60.5	67.7	67.7	78.8
시흥시	35.4	45.4	37.2	48.4	48.5	65.2	46.2	71.4
파주시	39.7	50.7	42.5	54.4	50.1	66.3	50.5	76.3
광명시	44.7	51.0	46.7	53.5	59.6	68.4	66.6	78.0
군포시	34.5	41.0	37.0	43.7	47.2	56.7	61.0	71.1
김포시	48.4	58.3	51.2	62.1	60.5	73.8	57.6	75.7
광주시	32.8	43.9	34.7	47.5	37.7	58.7	24.6	54.8
구리시	41.8	46.6	45.5	50.7	64.8	72.7	58.9	72.5
오산시	31.5	38.2	33.5	40.6	44.5	53.5	46.8	63.3
하남시	28.1	38.8	30.9	43	40.7	62.8	43.5	76.3
이천시	31.7	40.5	34.8	44.9	46.4	62.5	49.2	75.0
양주시	45.1	55.3	48.2	59.2	54.1	69.5	50.0	73.8
의왕시	50.4	59.5	52.6	62.2	59.0	71.1	72.4	85.5
안성시	41.7	48.5	42.7	49.8	51.2	61.1	66.9	79.7
포천시	68.3	70.1	69.0	70.7	76.7	78.1	80.8	82.8
여주시	49.6	56.2	53.2	60.3	69.0	81.4	71.4	87.3
양평군	41.9	49.7	47.4	56.1	56.3	65.7	70.5	77.5
동두천시	37.5	49.1	39.6	51.9	45.6	60.8	52.9	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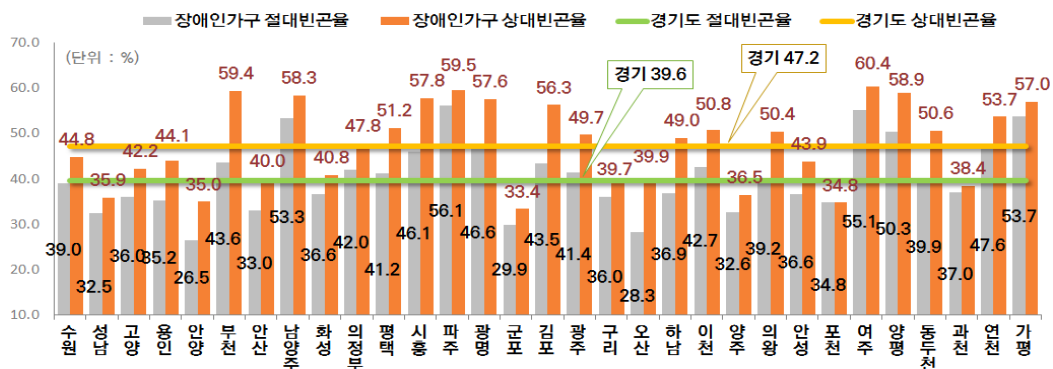
지역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과천시	37.2	41.4	38.6	43.1	53.1	58.9	62.2	69.4
연천군	50.3	57.8	52.7	60.6	59.3	70.7	66.1	83.0
가평군	54.4	60.9	57.6	64.7	63.7	71.6	63.4	75.5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는 절대빈곤율 39.6%, 상대빈곤율 47.2%로 심각한 상황이며, 시군별로 절대빈곤율은 파주시, 상대빈곤율은 여주시가 가장 높음

- 상대빈곤율은 군포시가 33.4%로 가장 낮은 반면, 여주시가 60.4%로 가장 높은데, 파주시(59.5%), 부천시(59.4%), 양평군(58.9%), 남양주시(58.3%), 시흥시(57.8%), 광명시(57.6%), 가평군(57.0%), 김포시(56.3%) 등 50%를 넘는 시군이 14개에 달하는 상황
 - 절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26.5%)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56.1%이며, 여주시(55.1%), 남양주시(53.3%), 가평군(53.7%), 양평군(50.3%)이 50%를 상회
- 지역별로 보면,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파주시, 여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며, 낮은 지역은 군포시, 포천시, 안양시, 성남시
 - 장애인빈곤율이 낮은 지역은 장애인 비율이 적거나, 전체 가구 수가 많아서 장애인 빈곤가구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Ⅲ-2〉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2018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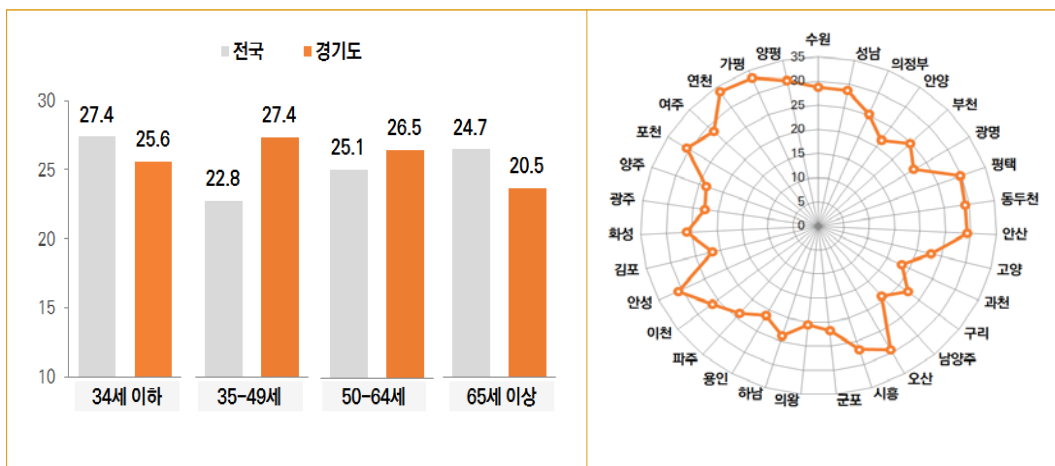
□ 1인가구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36.3%, 상대빈곤율 48.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포천시(56.4%)와 의왕시(64.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생애주기별로 특성에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하지만, 자료 등의 한계로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중년과 노년을 중심으로 분석

- 1인 가구를 청년(34세까지⁸⁾),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등 생애전환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국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는 35~49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64세임

· 본고는 50~64세까지의 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빈곤실태를 분석하되, 노년 1인 가구는 이미 독거노인가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므로 중년 1인 가구에 집중

〈그림 Ⅲ-3〉 전국 및 경기도 1인 가구 연령별 비중(2018) 〈그림 Ⅲ-4〉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비율(2018)



자료 : 통계청, 주제별통계"연령별 1인가구-시군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3,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3&vwcd=MT_ZTITLE&parmTabId=M_01_03_01#SelectStatsBoxDiv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자료 : 통계청, e-지방통계 "1인가구비율".

출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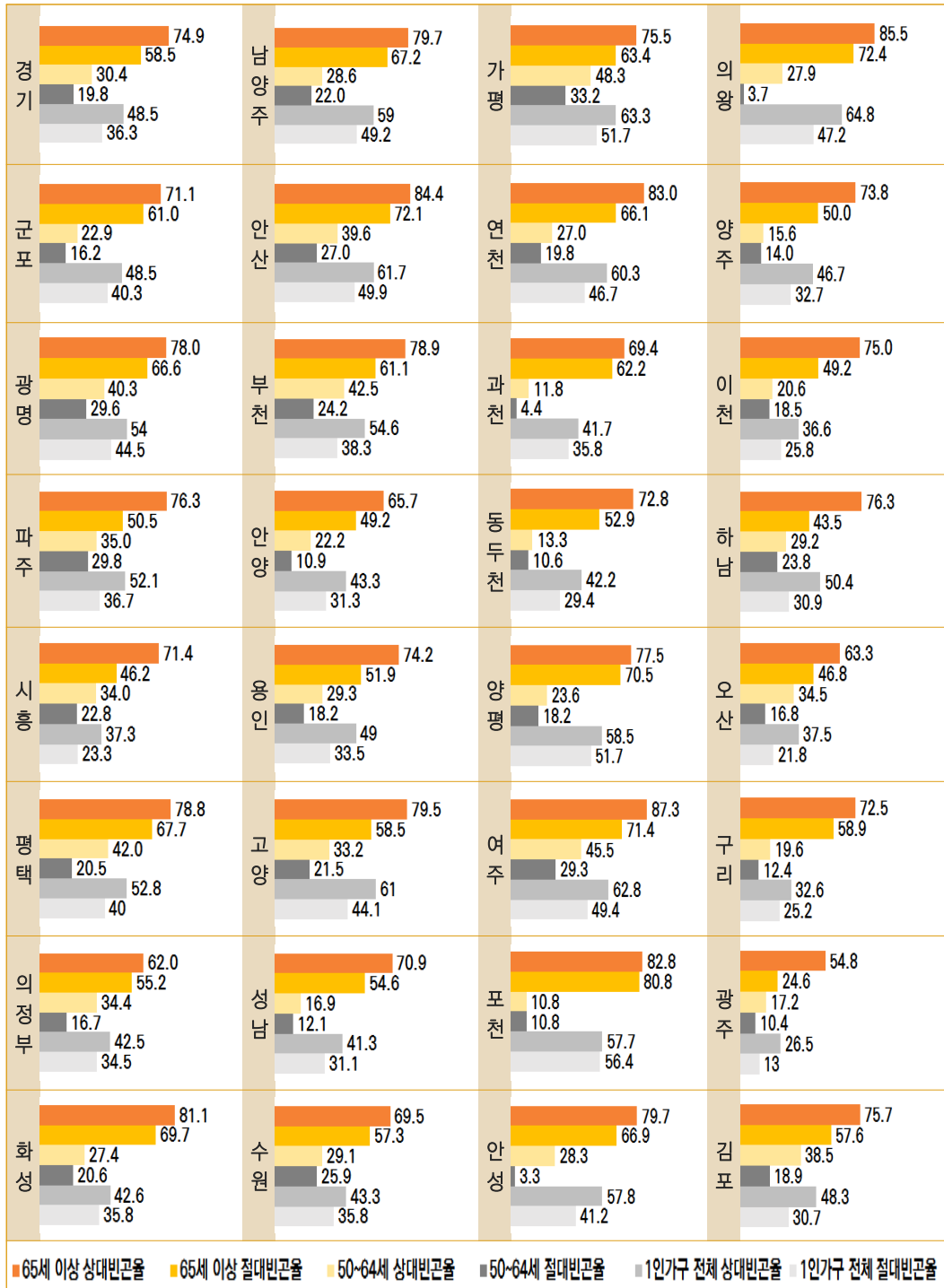
○ 중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19.8%, 상대빈곤율 30.4%로 전체 1인 가구 빈곤율 및 노년 1인가구 빈곤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이 가능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

8) 청년의 연령은 관련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에 근거하여 34세까지로 함

-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산가능한 연령대이지만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49.1세이고, 퇴직 때까지 근무한 비율이 7%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⁹⁾를 근거하면, 이 같이 높은 수준의 빈곤율은 이해가 되는 수준
- 중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절대빈곤율 33.2%, 상대빈곤율 48.3%이며, 부천시, 평택시, 광명시, 여주시 등은 상대빈곤율이 40%를 넘는 지역임
- 지역별로 1인 가구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절대빈곤율 포천시 56.4%, 상대빈곤율 의왕시 64.8%이며, 농촌지역 외 도시지역의 빈곤율이 높은 것이 특징
- 고양시, 안산시, 의왕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절대빈곤율이 40%이상, 상대빈곤율은 60% 이상인 지역으로 농촌지역 외 대도시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서도 빈곤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9) 산업은행연구원(2018).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중앙일보(2018. 12. 3) “주 일자리 은퇴나이 평균 49.1세”... 고령자 상당수가 재취업하는 곳은 보도자료 재인용

〈그림 Ⅲ-5〉 경기도 시군별 전체 및 중노년 1인 가구 빈곤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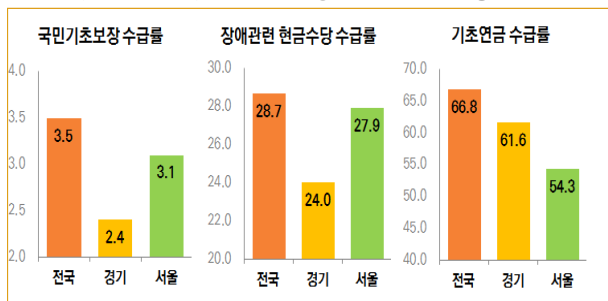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 경기도 빈곤율은 전국에 비해 높음에도 정부 수혜 비율은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1.5%에 달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생활수준 격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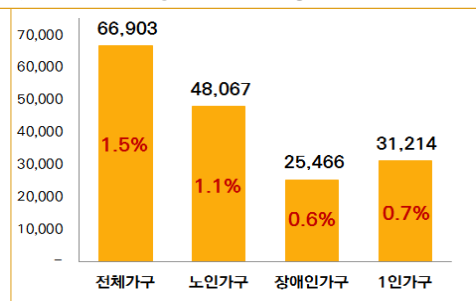
- 사각지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¹⁰⁾하였지만 국가로부터 수급혜택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미만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전체 가구 중 1.5%인 66,903 가구가 사각지대 가구
 - 국가로부터의 현금성 수혜를 받는 비율을 전국 및 서울과 비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장애인 수당 등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기초연금 수급률은 서울과 세종 다음으로 낮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
 - 대상별로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해 보면, 노인가구가 1.1%(48,067가구)로 사각지대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인 가구(0.7%), 장애인가구(0.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장애인 등록제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망 안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Ⅲ-6〉 3개 현금성 복지 수급현황 비교



주 : 장애인관련 현금수당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포함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019.6월 기준)

〈그림 Ⅲ-7〉 경기도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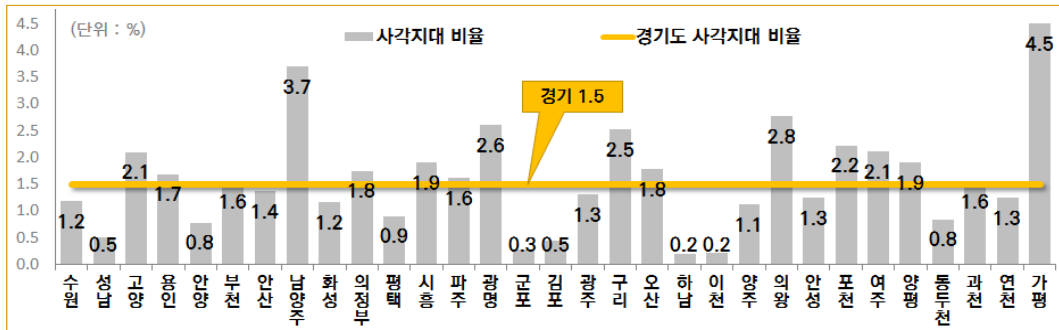


주 : 가구 수는 전체 가구에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 지역별로 보면, 가평군의 사각지대 비율이 가장 높고, 남양주시, 의왕시, 광명시 순이며, 남양주시와 광명시, 의왕시 등은 빈곤율도 높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지역

10) 경제적 어려움 경험 가구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월세 연체 경험’, ‘공과금 또는 관리비 미납 경험’, ‘공고 육비 미납 경험’, ‘식사를 거른 경험’ 등의 7가지 항목에 1개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의미함

〈그림 Ⅲ-8〉 경기도 시군별 사각지대 규모 추정 비율(2018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3. 자산빈곤 실태 분석

□ 분석방법

- (빈곤기준선) 자산빈곤기준선은 상대적 개념을 활용하여, 중위수(중위소득, 중위자산)의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설정
 - 국내연구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중위자산빈곤율의 개념을 활용
- (데이터) 2018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의 소득(경상소득)과 자산(부동산)을 활용하여 분석
 -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활용해야 하나, 자료의 한계상 부동산 중 주거자산을 활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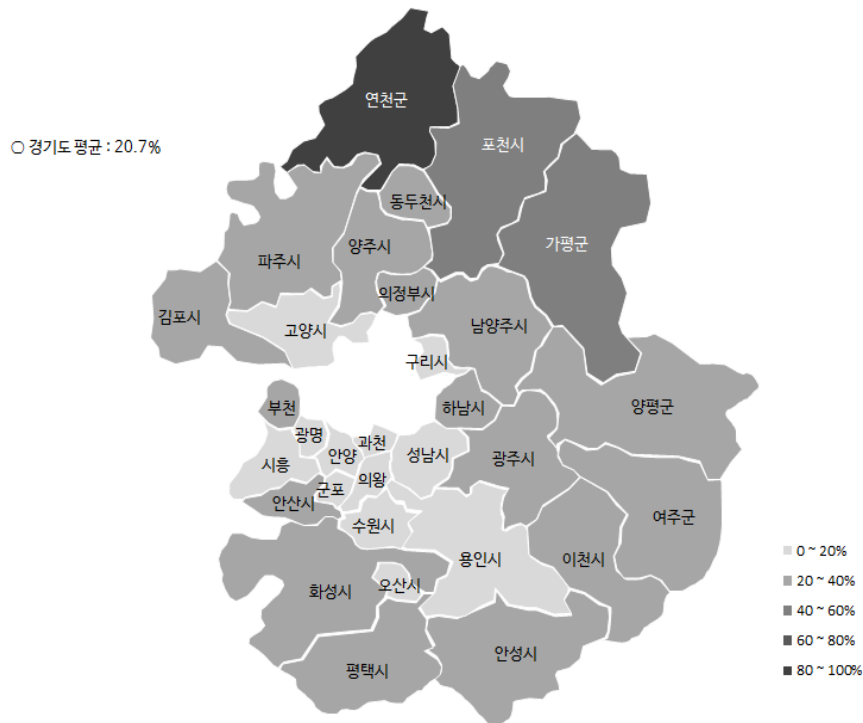
〈표 Ⅲ-16〉 빈곤실태 분석에 활용된 소득/자산 구분

구분	항목
자산	① 자가 거주자 (현재사는 곳이 자가인 경우)
	② 전세 거주자 (다른 곳에 자가가 있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이면 이곳에 체크)
	③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 (다른 곳에 자가가 있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있는 월세면 이곳에 체크)
	④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사글세 포함) (다른 곳에 자가가 있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이면 이곳에 체크)
	⑤ 일세
	⑥ 무상
	⑦ 기타

□ 경기도 자산빈곤율은 2018년 기준 20.7%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군별로 연천군이 가장 높고, 광명시가 가장 낮게 나타남

- 2018년 현재 경기도 상대자산빈곤율은 20.7%이며, 이는 남상호(2009)에서 나타난 전국 상대자산빈곤율 29.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
 - 우리나라의 자산빈곤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시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상대자산빈곤율을 분석한 남상호(2009)의 연구결과와 비교
 - 남상호(2009)의 연구는 상대자산빈곤 가구를 순자산 중위값의 40%를 설정하여, 본 연구의 분석인 중위값의 50%보다 낮은 수준임
 - 복지패널 2차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소득의 경우 절대빈곤율 10.2%, 상대빈곤율 14.7%로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보임
- 시군별로 보면, 상대자산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88.8%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광명시로 12.6%임
 - 상대자산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여주시, 안성시 등으로 주로 농촌지역이며, 낮은 지역은 광명시, 구리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등 도시 지역
 - 경기도의 자산 중위값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기에 지가가 높은 지역의 상대자산빈곤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하남시는 상대자산빈곤율이 33.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하남시는 최근 신규택지개발로 기존 가구와 신규 가구사이에 자산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자산빈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됨

〈그림 Ⅲ-9〉 경기도 전체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 경기도 노인가구의 상대자산빈곤율은 43.8%이며, 노인가구 유형¹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노인가구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독거노인가구(상대자산빈곤율 37.8%)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노인가구’임
 -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상대자산빈곤율은 25.9%로 가장 낮는데, 근로할 수 있는 가구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
 -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도 노인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음
 - 이에 비해 ‘노인만 거주’하고 있거나 노인 혼자살고 있는 ‘독거노인가구’의 상대자산빈곤율은 29.5%와 37.8%로 매우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11) 노인가구 유형은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노인가구’라고 하고, ‘노인가구주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를 의미하며,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독거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정의하고 각 유형별로 빈곤율을 산출함

- 노인가구의 상대자산빈곤율은 소득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 않으나, 예전부터 보유한 주택 등이 있음을 의미
- 시군별로 노인 상대자산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연천군이 82.4%로 最高이고 용인시(13.4%)가 最低이며, ‘독거노인가구’의 상대자산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포천시(62.5%)가 가장 높고, 용인시(16.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독거노인가구 중 상대자산빈곤율이 50%를 넘는 시군은 포천시(62.5%), 의정부시(61.1%), 의왕시(58.7%), 김포시(57.8%), 하남시(56.3%), 수원시(52.3%), 화성시(51.9%) 등으로 나타남
- 노인가구의 자산빈곤상태가 심각한 지역은 연천군과 포천시이며, hems 가구형태에서 자산빈곤율이 50%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표 Ⅲ-17〉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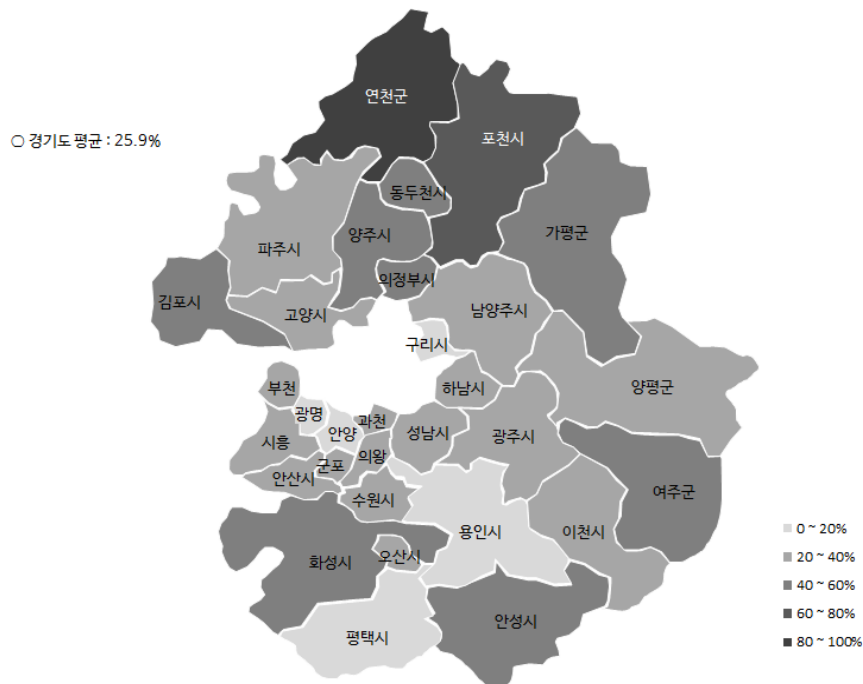
(단위 : %)

지역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경기도	25.9%	26.2%	29.5%	37.8%
수원시	28.8%	29.9%	33.1%	53.7%
성남시	21.2%	21.7%	23.0%	27.3%
고양시	41.5%	41.4%	47.7%	61.1%
용인시	16.3%	17.6%	21.1%	28.9%
안양시	26.6%	26.6%	30.0%	40.0%
부천시	15.1%	16.0%	18.5%	22.0%
안산시	18.2%	18.4%	19.7%	28.3%
남양주시	44.8%	42.3%	46.4%	49.8%
화성시	26.0%	25.8%	31.7%	41.5%
의정부시	24.2%	25.6%	29.8%	38.4%
평택시	22.9%	21.6%	18.7%	24.3%
시흥시	17.7%	18.6%	26.7%	33.4%
파주시	35.0%	34.5%	36.0%	43.1%
광명시	24.1%	24.3%	30.4%	49.3%
군포시	22.7%	23.7%	29.0%	32.9%
김포시	22.8%	22.9%	25.8%	40.7%
광주시	30.9%	32.4%	36.1%	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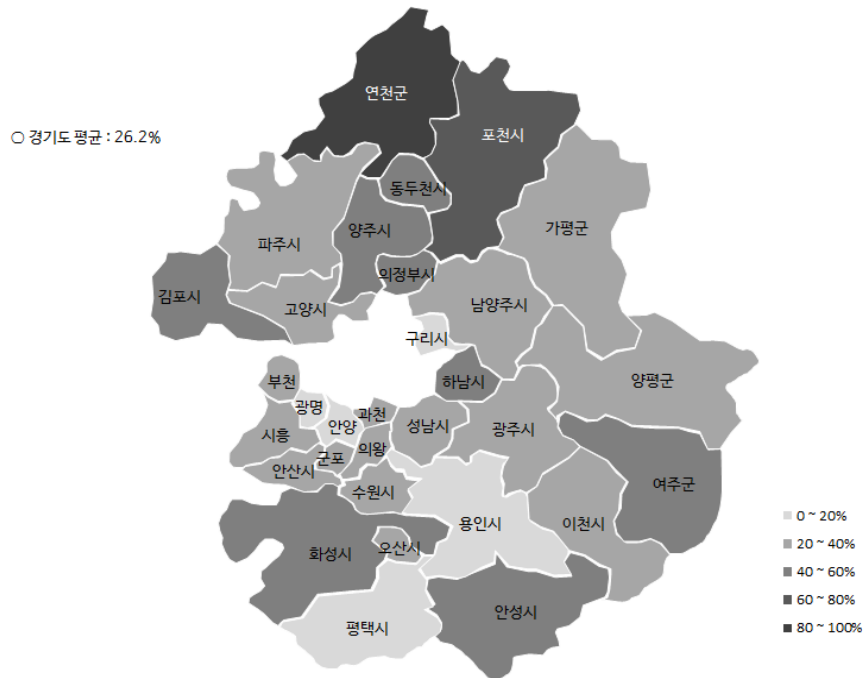
지역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구리시	39.7%	41.3%	49.5%	56.3%
오산시	13.4%	13.5%	14.6%	16.8%
하남시	32.1%	31.6%	33.8%	43.8%
이천시	24.6%	24.1%	22.2%	33.9%
양주시	41.7%	40.2%	40.5%	36.8%
의왕시	47.9%	47.6%	54.7%	57.8%
안성시	40.1%	41.4%	47.2%	52.3%
포천시	26.9%	23.8%	22.3%	21.5%
여주시	40.7%	41.0%	42.2%	37.1%
양평군	64.8%	64.8%	68.9%	62.5%
동두천시	40.4%	41.0%	43.7%	46.1%
과천시	82.4%	81.9%	89.7%	—
연천군	42.4%	39.1%	43.5%	51.9%
가평군	27.7%	28.8%	28.2%	40.3%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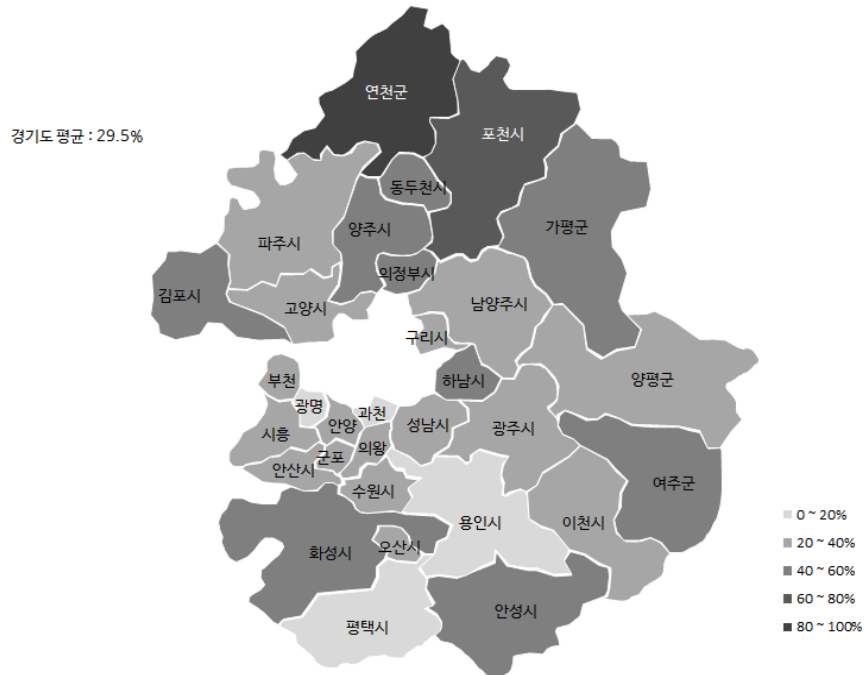
〈그림 Ⅲ-10〉 경기도 노인이 있는 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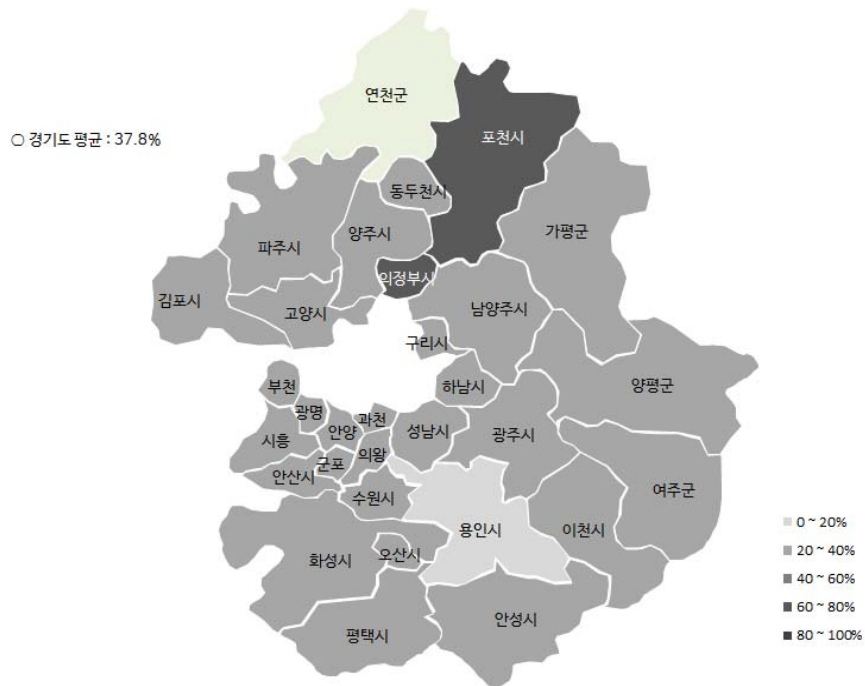
〈그림 Ⅲ-11〉 경기도 노인가구주 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그림 Ⅲ-12〉 경기도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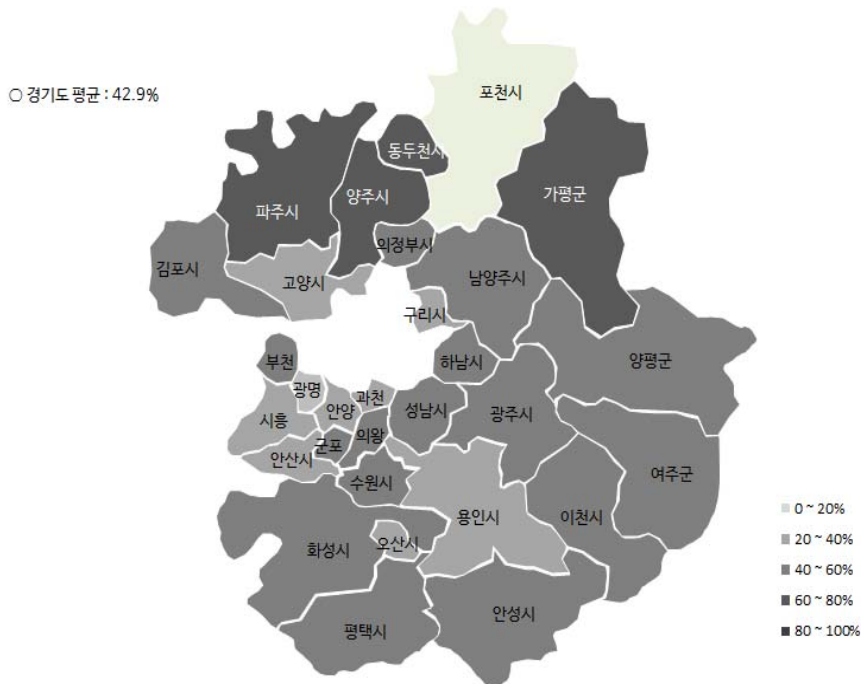
〈그림 Ⅲ-13〉 경기도 독거노인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자산빈곤상태는 상대자산빈곤율이 42.9%이며,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상대자산빈곤율은 안산시가 25.9%로 가장 낮은 반면, 연천군이 90.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빈곤율 50%를 상회하는 지역은 12개로 나타나고 있음
 - 연천군(90.3%), 동두천시(76.1%), 파주시(72.2%), 가평군(60.7%), 양주시(60.1%), 하남시(59.7%), 안성시(58.9%), 부천시(54.2%), 이천시(53.7%), 여주시(52.8%), 의정부시(52.5%), 김포시(51.7%) 등이 50%를 넘는 지역임

〈그림 Ⅲ-14〉 경기도 장애인가구 자산빈곤율 현황



4. 이중빈곤 실태분석

□ 분석방법

- (빈곤기준선) 소득 및 자산빈곤기준선은 상대적 개념을 활용하여, 중위수(중위 소득, 중위자산)의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설정
 - 소득의 경우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거주 시군 환경에서의 빈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위소득의 기준을 활용
 - 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국내연구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중위자산빈곤율의 개념을 활용
- (데이터) 2018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욕구조사의 소득(경상소득)과 자산(부동산)을 활용하여 분석
 - 소득의 경우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모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조사결과 가처분소

득의 이상치가 많이 발견되어 경상소득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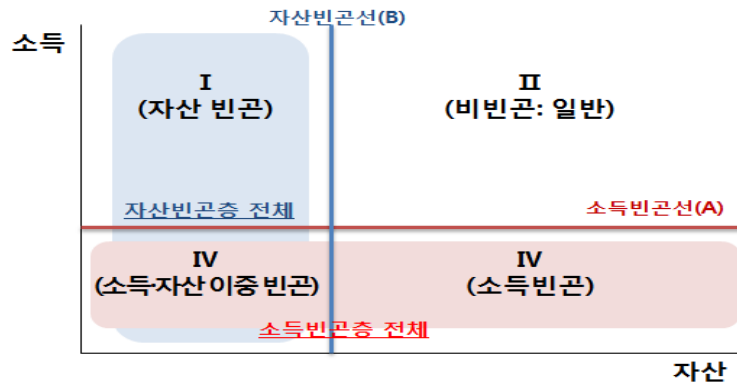
· 또한 2016년 경기복지기준선과의 비교를 위해 경상소득 기준을 활용

- 자산의 경우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활용해야 하나, 자료의 한계상 부동산 중 주거자산을 활용하여 분석

○ (빈곤유형 분석)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이중빈곤 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며, 빈곤유형별 해석은 유의가 필요

- 소득-자산의 각각의 빈곤율에 대해서는 소득빈곤의 경우 소득빈곤+이중빈곤, 자산빈곤의 경우 자산빈곤+이중빈곤의 값이 각각의 빈곤율임

〈그림 Ⅲ-15〉 소득-자산 이중빈곤 해석방법



- 소득빈곤가구, 자산빈곤가구의 의미는 소득‘만’빈곤, 자산‘만’빈곤 가구를 의미하며, 소득빈곤가구 전체의 비율은 소득빈곤+이중빈곤 가구의 빈곤율을 합한 것임
- 따라서 소득빈곤, 자산빈곤의 비율이 낮다고 하여 빈곤가구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이중빈곤의 수준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
 - 예를들어 소득빈곤 1%, 자산빈곤 2%, 이중빈곤 49%의 A라는 시가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빈곤, 자산빈곤이 1~2%수준이라 빈곤가구가 매우 적다는 것이 아니라, 소득빈곤가구는 $1\%+49\%=50\%$ 이며, 자산빈곤가구는 $2\%+49\%=51\%$ 로 이해해야 함
 - 또한 소득, 자산 빈곤가구율에 비해 이중빈곤가구비율이 높다는 점은 전체 빈곤가구 중 소득-자산의 이중 빈곤에 처한 가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

1) 경기도 전체 및 시군별 빈곤유형별 현황

□ 일반적 특성

- 경기도 전체 빈곤가구 중 자산빈곤가구가 자산빈곤 13.7%로 가장 높았고, 소득빈곤가구 8.7%,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7.0%로 나타남
- 시군별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의왕시 22.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안성시 21.6%, 남양주시 14.5%, 광명시 14.4%, 평택시 12.9%, 양평군 1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포천시 0.7%로 1.0% 미만으로 낮음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가 53.6%로 매우 높았고, 그다음으로 연천군 34.8%, 이천시 25.0%, 여주시 24.8%, 양주시 24.4%, 가평군 24.1%, 하남시 23.1%, 안성시 22.7%, 파주시 22.2%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자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명시(6.5%)로 확인됨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54.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가평군 16.8%, 의정부시 14.9%, 여주시 14.7%, 안성시 12.7%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가 0.7%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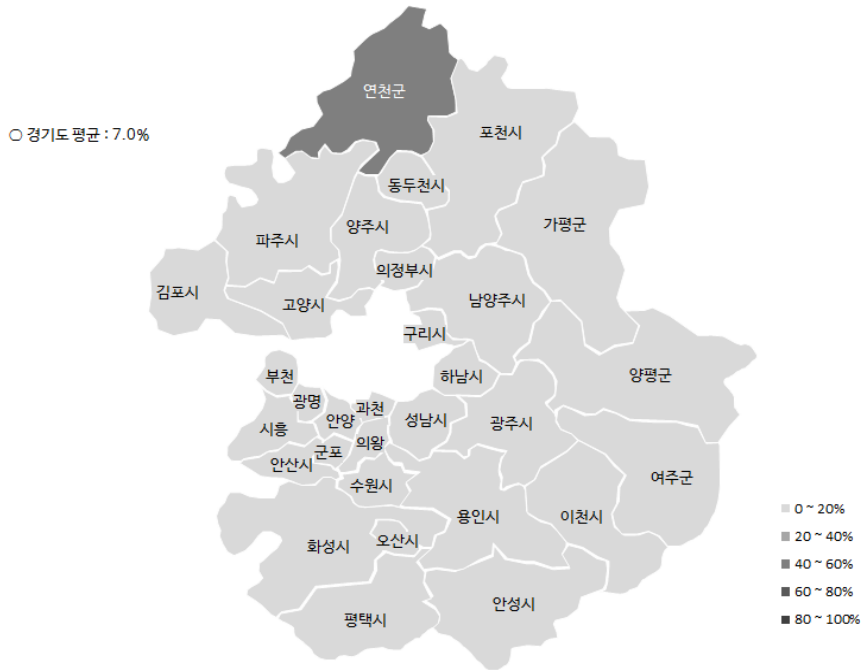
〈표 Ⅲ-18〉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단위 : 가구, %)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2,101,566	70.6	259,823	8.7	408,985	13.7	207,232	7.0
수원시	245,279	76.1	21,501	6.7	33,879	10.5	21,642	6.7
성남시	196,332	76.1	17,652	6.8	32,497	12.6	11,503	4.5
의정부시	53,266	59.0	9,887	11.0	13,716	15.2	13,412	14.9
안양시	102,926	75.4	14,273	10.5	13,170	9.6	6,180	4.5
부천시	168,857	69.4	19,685	8.1	36,070	14.8	18,534	7.6
광명시	71,350	73.0	14,074	14.4	6,308	6.5	5,985	6.1
평택시	67,906	64.0	13,688	12.9	15,917	15.0	8,617	8.1
동두천시	11,749	68.9	499	2.9	3,578	21.0	1,238	7.3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안산시	117,035	70.6	14,753	8.9	22,217	13.4	11,836	7.1
고양시	179,592	77.4	17,782	7.7	20,659	8.9	14,117	6.1
과천시	8,272	77.7	873	8.2	1,079	10.1	417	3.9
구리시	42,900	77.2	5,146	9.3	4,975	9.0	2,559	4.6
남양주시	58,336	58.2	14,541	14.5	16,598	16.5	10,825	10.8
오산시	35,315	75.5	2,515	5.4	6,570	14.0	2,380	5.1
시흥시	98,263	72.9	10,900	8.1	19,371	14.4	6,200	4.6
군포시	53,062	76.1	4,632	6.6	8,222	11.8	3,850	5.5
의왕시	20,408	58.1	8,064	22.9	3,444	9.8	3,226	9.2
하남시	34,512	61.2	3,085	5.5	13,025	23.1	5,732	10.2
용인시	202,599	76.4	25,835	9.7	27,029	10.2	9,579	3.6
파주시	47,144	61.3	5,471	7.1	17,083	22.2	7,271	9.4
이천시	37,843	58.4	6,000	9.3	16,183	25.0	4,768	7.4
안성시	11,954	42.9	6,035	21.6	6,338	22.7	3,551	12.7
김포시	58,870	71.7	5,148	6.3	9,816	12.0	8,262	10.1
화성시	70,526	64.9	5,114	4.7	23,146	21.3	9,904	9.1
광주시	53,907	72.8	4,542	6.1	11,254	15.2	4,308	5.8
양주시	16,724	57.7	2,067	7.1	7,068	24.4	3,134	10.8
포천시	6,238	45.0	102	0.7	7,427	53.6	102	0.7
여주시	13,501	51.2	2,447	9.3	6,524	24.8	3,870	14.7
연천군	136	8.7	39	2.5	541	34.8	841	54.0
가평군	3,856	49.2	779	9.9	1,891	24.1	1,316	16.8
양평군	12,909	61.3	2,693	12.8	3,390	16.1	2,071	9.8

〈그림 Ⅲ-16〉 경기도 전체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 빈곤유형별 일반적 특성 차이

- 사회인구특성 요인으로 살펴본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주거형태, 거주지역 변수 모두 빈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성별 : 남성가구주비율 높은 순 → 자산빈곤(37.0%) > 소득빈곤(35.5%) > 비빈곤(34.3%) > 이중빈곤(34.2%)
 - 연령 : 평균 연령 높은 순 → 소득빈곤(70세) > 이중빈곤(67세) > 비빈곤(52세) > 자산빈곤(50세)
 - 교육수준 : 대학이상비율 높은 순 → 비빈곤(51.1%) > 자산빈곤(38.7%) > 소득빈곤(16.6%) > 이중빈곤(12.4%)
 - 가구원수 : 평균 가구원수 높은 순 → 비빈곤(3.1명) > 자산빈곤(3.0명) > 소득빈곤(2.0명), 이중빈곤(2.0명)
 - 주거형태 : 자가보유비율 높은 순 → 비빈곤(74.2%) > 소득빈곤(67.9%) > 자산빈곤(13.5%) > 이중빈곤(8.9%)
 - 거주지역 : 도시거주비율 높은 순 → 비빈곤(68.5%) > 소득빈곤(63.6%) > 이중빈곤(62.2%) > 자산빈곤(58.4%)

〈표 Ⅲ-19〉 사회인구특성에 따른 빈곤유형 차이 분석

(단위 : 가구/점, %/표준편차)

구분		비빈곤 (a)		소득빈곤 (b)		자산빈곤 ◎(c)		소득-자산이중빈곤 (d)		χ^2/F (Scheffe)
성별	여성	1,381,099	65.7	167,561	64.5	257,748	63.0	136,280	65.8	1188.468***
	남성	720,467	34.3	92,262	35.5	151,237	37.0	70,951	34.2	
연령		52.09	12.58	69.81	12.92	49.78	13.18	67.16	14.40	233807.828*** (c<a<d(b)
교육 수준	중고등	985,023	48.9	132,387	83.4	236,460	61.3	101,636	87.6	138028.505***
	대학이상	1,031,061	51.1	26,265	16.6	149,024	38.7	14,344	12.4	
가구원수		3.07	1.16	1.92	1.07	2.98	1.24	1.92	1.14	126490.373*** (b,d<c(a)
주거 형태	전월세	543,165	25.8	83,313	32.1	353,872	86.5	188,700	91.1	780505.150***
	자가	1,558,401	74.2	176,510	67.9	55,113	13.5	18,531	8.9	
거주 지역	농촌	16,901	0.8	3511	1.4	5,822	1.4	4,228	2.0	20752.443***
	도농복합	645,548	30.7	90990	35.0	164383	40.2	74,192	35.8	
	도시	1,439,117	68.5	165,322	63.6	238,779	58.4	128,812	62.2	

주 1 : 성별, 교육수준, 주거형태, 거주지역은 빈도와 비율 값임.

주 2 : 연령, 가구원수는 평균과 표준편차 값임.

- 노동시장특성 요인으로 살펴본 근로활동, 경제활동상태 변수 모두 빈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근로활동 : 미활동참여비율 높은 순 → 이중빈곤(80.0%) > 소득빈곤(76.6%) > 비빈곤(41.7%) > 자산빈곤(39.7%)
 - 경제활동상태 : 비경제활동비율 높은 순 → 이중빈곤(74.2%) > 소득빈곤(73.1%) > 자산빈곤(13.3%) > 비빈곤(12.3%)
 - 상용직 비율은 자산빈곤(52.0%) 집단에서, 고용주/자영업 비율은 비빈곤(28.2%) 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20〉 노동시장특성에 따른 빈곤유형 차이 분석

(단위 : 가구, %)

구분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χ^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근로 활동	미활동	877,083	41.7	198,963	76.6	162,476	39.7	165,888	80.0	214,071.587***
	활동	1,224,484	58.3	60,859	23.4	246,509	60.3	41,343	20.0	
경제 활동 상태	상용직	1,075,341	51.2	17,328	6.7	212,529	52.0	11,172	5.4	957,763.270***
	임시일용	156,396	7.4	25,120	9.7	59,797	14.6	30,152	14.5	
	고용주/자영 업	591,865	28.2	24,252	9.3	77,251	18.9	9,119	4.4	
	무급가족종 사	7,822	0.4	642	0.2	928	0.2	385	0.2	
	일시휴직	5,236	0.2	1,100	0.4	1,379	0.3	363	0.2	
	실업자	6,833	0.3	1,535	0.6	2,572	0.6	2,245	1.1	
	비경제활동	258,074	12.3	189,845	73.1	54,529	13.3	153,796	74.2	

2) 빈곤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빈곤유형을 종속변수로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Ⅲ-21〉와 같음

□ 1모형 : 비빈곤 vs 소득빈곤

- 남성, 고령자, 저학력자,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전월세거주자, 농촌지역 거주자, 비경제활동자가 비빈곤보다 소득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여성보다 남성이 소득빈곤에 속할 확률이 1.193배 높음
 - 연령 1단위 높을수록 소득빈곤 확률이 1.032배 증가
 - 초졸이하보다 중고등학교졸업이 소득빈곤에 속할 확률이 0.471배 낮고, 대학교졸업은 소득빈곤 확률이 0.296배 낮음
 - 가구원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소득빈곤 확률이 0.602배 감소
 - 전월세거주보다 자가거주가 소득빈곤 확률이 0.541배 낮음
 - 농촌지역거주보다 도농복합지역거주가 소득빈곤 확률이 0.682배 낮고, 도시지역

거주는 소득빈곤 확률이 0.527배 낮음

- 근로미활동보다 활동하는 경우 소득빈곤 확률이 0.550배 낮음
- 비경제활동보다 상용직이 소득빈곤 확률이 0.109배 낮고, 임시일용직은 0.428배 낮고, 고용주/자영업은 0.176배 낮고, 무급가족종사자는 0.347배 낮음

□ 2모형 : 비빈곤 vs 자산빈곤

- 저학력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전월세거주자, 농촌지역 거주자, 비경제활동자가 비빈곤보다 자산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초졸이하보다 중고등학교 졸업은 자산빈곤 확률이 0.680배 낮고, 대학교 졸업은 자산빈곤 확률이 0.276배 낮음
 - 가구원수가 1단위 증가할수록 자산빈곤 확률이 1.372배 증가
 - 전월세거주보다 자가거주의 자산빈곤 확률이 0.041배 낮음
 - 농촌지역거주보다 도농복합지역 자산빈곤 확률이 0.581배 낮고, 도시지역 자산빈곤 확률이 0.257배 낮음
 - 비경제활동보다 상용직이 자산빈곤에 속할 확률이 0.804배 낮고, 고용주/자영업은 자산빈곤 확률이 0.662배 낮음

□ 3모형 : 비빈곤 vs 이중빈곤

- 남성, 고령자, 저학력, 전월세거주자, 농촌지역 거주자, 비경제활동자가 이중빈곤에 포함될 확률이 높게 나타남
 - 여성보다 남성이 비빈곤에 비해 이중빈곤에 포함될 확률이 1.197배 높음
 - 연령 1단위 높을수록 이중빈곤 확률이 1.016배 증가
 - 초졸이하보다 중고등학교 졸업은 이중빈곤 확률이 0.298배 낮고, 대학교 졸업은 이중빈곤 확률이 0.097배 낮음
 - 전월세거주보다 자가거주의 이중빈곤 확률이 0.017배 낮음
 - 농촌지역거주보다 도농복합지역 이중빈곤 확률이 0.345배 낮고, 도시지역 자산빈곤 확률이 0.150배 낮음
 - 근로미활동보다 활동하는 경우 이중빈곤 확률이 0.379배 낮음
 - 비경제활동보다 상용직의 이중빈곤 확률이 0.046배 낮고, 임시일용직은 이중빈곤

확률이 0.385배 낮고, 고용주/자영업은 이중빈곤 확률이 0.097배 낮고, 일시휴직은 이중빈곤 확률이 0.237배 낮음

〈표 Ⅲ-21〉 빈곤유형별 영향요인(기준집단=비빈곤)

구분		1모형 : 비빈곤 vs 소득빈곤		2모형 : 비빈곤 vs 자산빈곤		3모형 : 비빈곤 vs 이중빈곤	
		B	Exp(B)	B	Exp(B)	B	Exp(B)
사회 인구 특성	성별(여성)	.177**	1.193	.105	1.111	.180*	1.197
	연령	.031***	1.032	.002	1.002	.016***	1.016
	교육수준(초졸이하)						
	중고등학교	-.752***	.471	-.385***	.680	-1.212***	.298
	대학교	-1.219***	.296	-1.289***	.276	-2.331***	.097
	가구원수	-.507***	.602	.316***	1.372	-.041	.960
	주거형태(전월세)	-.614***	.541	-3.196***	.041	-4.046***	.017
	거주지역(농촌지역)						
	도농복합지역	-.382*	.682	-.543***	.581	-1.064***	.345
	도시지역	-.640***	.527	-1.359***	.257	-1.896***	.150
노동 시장 특성	근로활동여부(미활동)	-.598***	.550	.074	1.076	-.971***	.379
	경제활동상태(비경제활동)						
	상용직	-2.213***	.109	-.218*	.804	-3.077***	.046
	임시일용직	-.849***	.428	.067	1.069	-.954***	.385
	고용주/자영업	-1.738***	.176	-.412***	.662	-2.337***	.097
	무급가족종사	-1.060*	.347	-.196	.822	-.632	.531
	일시휴직	-.602	.548	-.618	.539	-1.442**	.237
	실업자	-.156	.855	.482	1.619	.131	1.140
상수항		.266		.662*		3.207***	
유효수(N)		16,256					
$\chi^2(df)$		13821,582(45)***					
-2log Likelihood(-2LL)		16860,215					
Cox와 Snell의 R-제곱		.573					
Nagelkerke R-제곱		.643					
분류 정확도(전체)		73.4					

* p<.05, ** p<.01, *** p<.001

주 1 : 더미변수는 기준 값을 ()안에 제시하였음.

주 2 : 위 로지스틱회귀분석은 데이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임.

□ 빈곤유형별 영향요인 종합

- 앞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빈곤유형별 회귀계수를 통해 영향요인의 영향력 크기 순으로 정리하면 <표 Ⅲ-22>와 같음
- 소득빈곤의 영향요인은 13개로, 경제활동참여 변수들이 영향력 크기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상용직(경제활동상태), 고용주/자영업(경제활동상태), 대학교(교육수준), 무급가족종사(경제활동상태), 임시일용직(경제활동상태) 등의 순으로 높음
- 자산빈곤의 영향요인은 8개로, 주거형태와 거주지역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산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자가(주거형태), 도시지역(거주지역), 대학교(교육수준), 도농복합지역(거주지역) 등의 순으로 높음
- 소득-자산이중빈곤 영향요인은 12개로, 주거형태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상용직, 고용주/자영업, 대학교 등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중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은 자가(주거형태), 상용직(경제활동상태), 고용주/자영업(경제활동상태), 대학교(교육수준), 도시지역(거주지역), 일시휴직(경제활동상태) 등의 순으로 높음

<표 Ⅲ-22> 빈곤유형별 영향요인 순위

구분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영향변수	회귀계수	영향변수	회귀계수	영향변수	회귀계수
1순위	경제활동: 상용직	-2.213	주거형태: 자가	-3.196	주거형태: 자가	-4.046
2순위	경제활동: 고용주/자영업	-1.738	거주지역: 도시지역	-1.359	경제활동: 상용직	-3.077
3순위	교육수준: 대학교	-1.219	교육수준: 대학교	-1.289	경제활동: 고용주/자영업	-2.337
4순위	경제활동: 무급가족종사	-1.060	거주지역: 도농복합지역	-.543	교육수준: 대학교	-2.331
5순위	경제활동: 임시일용직	-.849	경제활동: 고용주/자영업	-.412	거주지역: 도시지역	-1.896
6순위	교육수준: 중고등학교	-.752	교육수준: 중고등학교	-.385	경제활동: 일시휴직	-1.442
7순위	거주지역: 도시지역	-.640	가구원수	.316	교육수준: 중고등학교	-1.212
8순위	주거형태: 자가	-.614	경제활동상태: 상용직	-.218	거주지역: 도농복합지역	-1.064

구분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영향변수	회귀계수	영향변수	회귀계수	영향변수	회귀계수
9순위	근로활동여부: 활동	-.598			근로활동여부: 활동	-.971
10순위	가구원수	-.507			경제활동: 임시일용직	-.954
11순위	거주지역: 도농복합지역	-.382			성별: 남성	.180
12순위	성별: 남성	.177			연령	.016
13순위	연령	.031				

- 종합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상위 영향요인 변수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제활동상태, 교육수준, 주거형태, 거주지역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소득빈곤은 경제활동상태와 교육수준 변수가 상위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자산빈곤은 주거형태와 거주지역 변수가 상위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 이중빈곤은 주거형태, 경제활동상태, 거주지역 변수가 상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영향요인 변수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남
 - 예를 들어, 이중빈곤의 상용직 회귀계수 절대 값(3.077)이 소득빈곤(2.213)보다 크고, 이중빈곤의 자가 회귀계수 절대 값(4.046)이 자산빈곤(3.196)보다 큼
- 한편, 남성보다 여성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남성이 소득빈곤 및 이중빈곤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성별 요인을 구분한 빈곤특성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홍백의와 김혜연(2007) 연구에서 성별 빈곤가능성 분석 결과, 다른 변수의 영향 통제 시 여성보다 오히려 남성이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여성의 높은 빈곤율은 여성이 가진 다른 요인적 특성들, 예를 들어 고용형태나 결혼상태 등에 의한 영향이며,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는 여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빈곤 가능성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고 설명함(홍백의, 김혜연, 2007)
 - 이에 추후 성별을 구분하여 빈곤의 특성 및 유형 등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가구유형별 이중빈곤특성

□ 아동 가구의 빈곤유형별 현황

- 경기도 전체 아동가구 중 자산빈곤가구가 자산빈곤 17.5%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3.0%, 소득빈곤가구는 2.4%로 나타남
- 시군별 아동 가구의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안성시가 41.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의왕시 15.2%, 평택시 7.0%, 남양주시 5.2%, 의정부시 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양주시(0.5%), 그리고 가평군, 과천시, 군포시, 동두천시, 연천군, 오산시, 포천시는 소득빈곤 해당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 75.0%로 매우 높았고, 그다음으로 연천군 41.0%, 양주시 35.9%, 이천시 31.9%, 여주시 30.9%, 파주시 30.5%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자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김포시(6.9%)로 확인됨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59.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안성시 41.9%, 가평군 13.0%, 평택시 9.7%, 이천시 6.8% 등의 순으로 높았고, 용인시 0.6%로 가장 비율이 낮았고, 양주시와 포천시는 이중빈곤 해당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23〉 아동 가구의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단위 : 가구, %)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849,770	77.1	26,398	2.4	192,599	17.5	33,151	3.0
수원시	109,109	87.8	1,203	1.0	11,775	9.5	2,175	1.8
성남시	68,428	81.7	1,504	1.8	11,513	13.7	2,310	2.8
의정부시	19,523	72.3	1,137	4.2	4,531	16.8	1,813	6.7
안양시	36,081	81.1	1,754	3.9	6,009	13.5	622	1.4
부천시	59,711	75.5	2,055	2.6	15,951	20.2	1,324	1.7
광명시	29,669	83.3	1,402	3.9	3,664	10.3	877	2.5
평택시	23,717	59.9	2,766	7.0	9,266	23.4	3,839	9.7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두천시	4,680	71.2	—	—	1,486	22.6	405	6.2
안산시	39,208	69.2	612	1.1	14,493	25.6	2,314	4.1
고양시	69,866	82.4	610	0.7	12,803	15.1	1,522	1.8
과천시	4,344	90.7	—	—	356	7.4	88	1.8
구리시	16,547	83.9	465	2.4	2,191	11.1	520	2.6
남양주시	29,515	64.3	2,369	5.2	12,123	26.4	1,885	4.1
오산시	15,647	82.0	—	—	3,121	16.4	306	1.6
시흥시	36,794	77.2	394	0.8	9,662	20.3	780	1.6
군포시	20,362	81.8	—	—	4,325	17.4	211	0.8
의왕시	9,295	72.4	1,949	15.2	1,398	10.9	189	1.5
하남시	11,688	65.8	211	1.2	4,876	27.5	987	5.6
용인시	97,106	84.6	1,370	1.2	15,634	13.6	674	0.6
파주시	20,389	65.3	357	1.1	9,512	30.5	947	3.0
이천시	13,771	59.7	383	1.7	7,358	31.9	1,570	6.8
안성시	3,316	32.9	4,190	41.6	1,068	10.6	1,500	14.9
김포시	32,235	86.1	470	1.3	2,569	6.9	2,159	5.8
화성시	37,431	74.5	326	0.6	10,964	21.8	1,509	3.0
광주시	23,055	80.8	293	1.0	3,869	13.6	1,303	4.6
양주시	6,310	63.6	49	0.5	3,556	35.9	—	—
포천시	1,121	25.0	—	—	3,362	75.0	—	—
여주시	5,137	61.3	314	3.8	2,592	30.9	332	4.0
연천군	—	—	—	—	265	41.0	381	59.0
가평군	1,641	62.5	—	—	644	24.5	342	13.0
양평군	4,075	65.5	215	3.5	1,662	26.7	269	4.3

□ 노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유형별 현황

- 경기도 전체 노인이 있는 가구 중 소득빈곤가구가 26.2%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는 17.7%, 자산빈곤가구는 8.3%로 나타남

○ 시군별 노인이 있는 가구의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의왕시가 43.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광명시 37.3%, 평택시 33.3%, 남양주시 33.2%, 안산시 3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포천시(6.4%), 연천군(6.4%)는 10.0% 미만으로 낮음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가 58.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동두천시 25.1%, 안성시 19.7%, 연천군 18.5%, 하남시 17.0%, 김포시 16.6%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자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명시(2.7%)로 확인됨

〈표 Ⅲ-24〉 노인이 있는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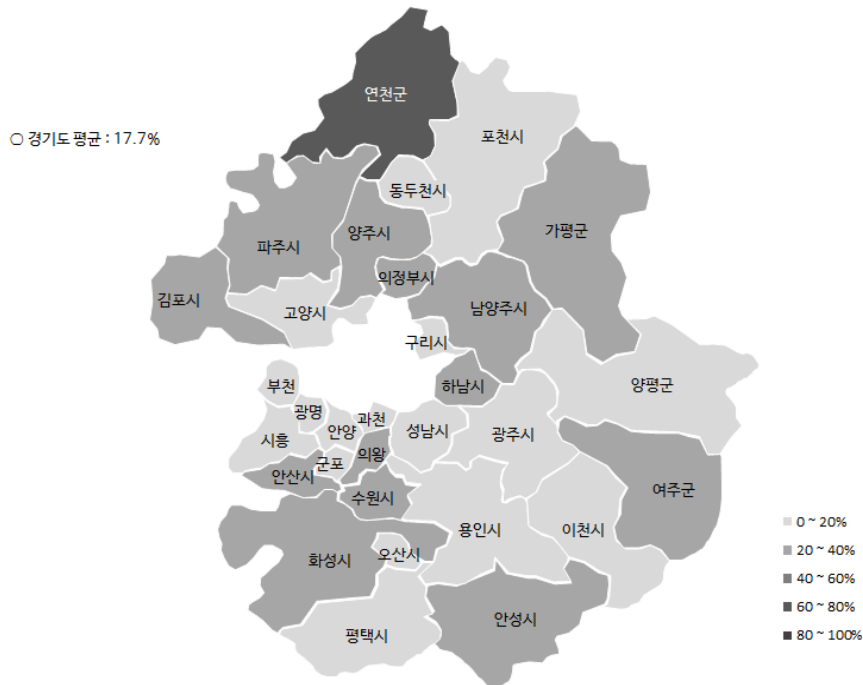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348,300	47.9	190,256	26.2	59,971	8.3	128,374	17.7
수원시	28,136	47.0	14,530	24.3	3,403	5.7	13,822	23.1
성남시	37,743	57.0	14,486	21.9	6,795	10.3	7,232	10.9
의정부시	10,855	35.7	6,911	22.7	3,372	11.1	9,253	30.4
안양시	25,006	58.9	10,508	24.8	2,163	5.1	4,775	11.2
부천시	29,595	50.0	13,824	23.4	5,449	9.2	10,309	17.4
광명시	13,821	47.6	10,829	37.3	779	2.7	3,617	12.5
평택시	12,631	48.5	8,660	33.3	1,645	6.3	3,095	11.9
동두천시	1,200	40.6	434	14.7	742	25.1	582	19.7
안산시	13,568	42.7	9,965	31.3	1,719	5.4	6,537	20.6
고양시	24,838	46.3	15,824	29.5	2,914	5.4	10,078	18.8
과천시	1,393	48.2	837	28.9	336	11.6	326	11.3
구리시	7,731	54.5	3,933	27.7	591	4.2	1,920	13.5
남양주시	9,934	31.8	10,375	33.2	4,061	13.0	6,888	22.0
오산시	4,750	54.6	1,851	21.3	624	7.2	1,476	17.0
시흥시	13,820	50.1	7,501	27.2	1,710	6.2	4,563	16.5
군포시	9,936	54.7	4,097	22.5	1,473	8.1	2,667	14.7
의왕시	2,375	26.1	3,904	43.0	413	4.5	2,392	26.3
하남시	7,127	47.7	1,887	12.6	2,555	17.1	3,378	22.6
용인시	41,186	56.2	22,210	30.3	3,282	4.5	6,559	9.0
파주시	9,623	47.1	4,236	20.7	2,236	10.9	4,322	21.2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천시	10,002	51.0	4,783	24.4	2,440	12.4	2,396	12.2
안성시	3,589	42.5	1,338	15.8	1,664	19.7	1,855	22.0
김포시	4,643	30.8	3,214	21.3	2,504	16.6	4,724	31.3
화성시	6,437	35.5	4,405	24.3	1,531	8.5	5,739	31.7
광주시	6,234	48.3	3,194	24.8	1,378	10.7	2,088	16.2
양주시	2,810	36.3	1,781	23.0	640	8.3	2,506	32.4
포천시	459	28.8	102	6.4	933	58.4	102	6.4
여주시	3,736	39.7	1,871	19.9	1,304	13.9	2,494	26.5
연천군	68	12.2	30	5.4	103	18.5	357	63.9
가평군	871	32.3	681	25.2	319	11.8	825	30.6
양평군	4,179	48.5	2,056	23.8	893	10.4	1,495	17.3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63.9%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양주시 32.4%, 화성시 31.7%, 김포시 31.3%, 가평군 30.6%, 의정부시 30.4%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가 6.4%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그림 Ⅲ-17〉 경기도 노인이 있는 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유형별 현황

- 경기도 전체 노인가구주 가구 중 소득빈곤가구가 28.2%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는 18.5%, 자산빈곤가구는 7.7%로 나타남
- 시군별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의왕시가 44.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광명시 39.1%, 남양주시 35.0%, 평택시 34.7%, 안산시 33.3%, 고양시 32.1%, 용인시 31.5% 등의 순으로 높았고, 연천군이 5.5%로 가장 낮음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 5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동두천시 21.1%, 안성시 19.1%, 연천군 17.1%, 하남시 16.7%, 김포시 13.6% 등의 순으로 높았고, 광명시가 2.9%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표 Ⅲ-25〉 노인가구주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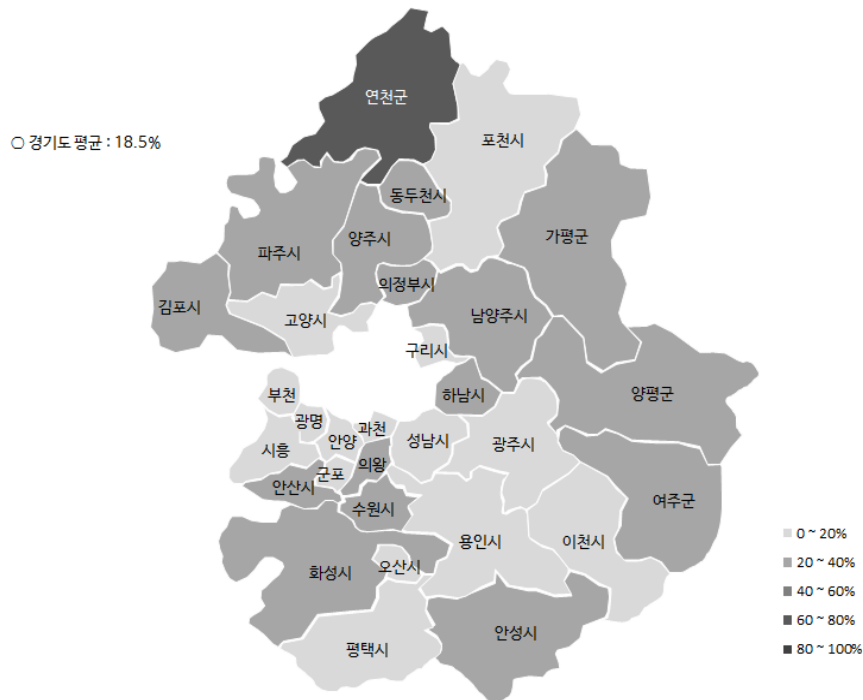
(단위 : 가구, %)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302,458	45.7	186,507	28.2	50,992	7.7	122,352	18.5
수원시	23,487	44.4	13,595	25.7	2,665	5.0	13,117	24.8
성남시	33,345	54.8	14,241	23.4	6,325	10.4	6,899	11.3
의정부시	8,581	32.6	6,847	26.0	2,587	9.8	8,334	31.6
안양시	21,942	55.7	10,508	26.7	2,163	5.5	4,775	12.1
부천시	26,650	48.4	13,772	25.0	4,857	8.8	9,823	17.8
광명시	12,127	44.8	10,575	39.1	779	2.9	3,559	13.2
평택시	10,791	46.9	7,990	34.7	1,363	5.9	2,866	12.5
동두천시	1,151	41.9	434	15.8	581	21.1	582	21.2
안산시	12,139	41.0	9,856	33.3	1,238	4.2	6,404	21.6
고양시	20,829	42.3	15,824	32.1	2,914	5.9	9,674	19.6
과천시	1,336	48.9	808	29.6	265	9.7	326	11.9
구리시	6,344	50.7	3,851	30.8	508	4.1	1,815	14.5
남양주시	8,591	30.5	9,879	35.0	3,589	12.7	6,150	21.8
오산시	4,107	52.1	1,851	23.5	486	6.2	1,431	18.2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시흥시	11,414	46.4	7,361	29.9	1,622	6.6	4,204	17.1
군포시	8,805	53.4	3,904	23.7	1,141	6.9	2,644	16.0
의왕시	1,966	22.9	3,835	44.7	406	4.7	2,371	27.6
하남시	5,963	44.6	1,887	14.1	2,228	16.7	3,296	24.6
용인시	38,762	55.0	22,210	31.5	3,030	4.3	6,506	9.2
파주시	8,393	45.5	4,236	22.9	1,654	9.0	4,179	22.6
이천시	8,404	49.1	4,592	26.8	1,808	10.6	2,311	13.5
안성시	3,528	43.3	1,338	16.4	1,552	19.1	1,722	21.2
김포시	4,036	29.9	3,051	22.6	1,839	13.6	4,590	34.0
화성시	5,739	33.2	4,405	25.5	1,420	8.2	5,739	33.2
광주시	4,821	45.8	3,194	30.3	729	6.9	1,781	16.9
양주시	2,433	34.1	1,781	24.9	470	6.6	2,454	34.4
포천시	459	28.8	102	6.4	933	58.4	102	6.4
여주시	2,963	36.1	1,871	22.8	1,011	12.3	2,355	28.7
연천군	68	12.6	30	5.5	92	17.1	350	64.7
가평군	665	30.1	681	30.8	249	11.3	614	27.8
양평군	2,620	40.4	1,997	30.8	489	7.5	1,376	21.2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64.7%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양주시 34.4%, 김포시 34.0%, 화성시 33.2%, 의정부시 31.6%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가 6.4%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그림 Ⅲ-18〉 경기도 노인가구주 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유형별 현황

- 경기도 전체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중 소득빈곤가구가 38.1%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는 24.4%, 자산빈곤가구는 5.1로 나타남
- 시군별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광명시가 5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구리시와 용인시 47.2%, 남양주시 45.9%, 과천시 44.2%, 의왕시 43.6%, 안산시 43.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포천시가 5.2%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가 63.7%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그다음으로 동두천시 21.0%, 연천군 17.2%, 안성시 15.9%, 하남시 12.5%, 김포시 11.1% 등의 순으로 높았고, 안산시(0.8%)는 1.0% 이하로 가장 낮았음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72.6%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김포시 43.7%, 화성시 40.8%, 양주시 39.4%, 의정부시 38.8%, 하남시 37.0%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 5.2%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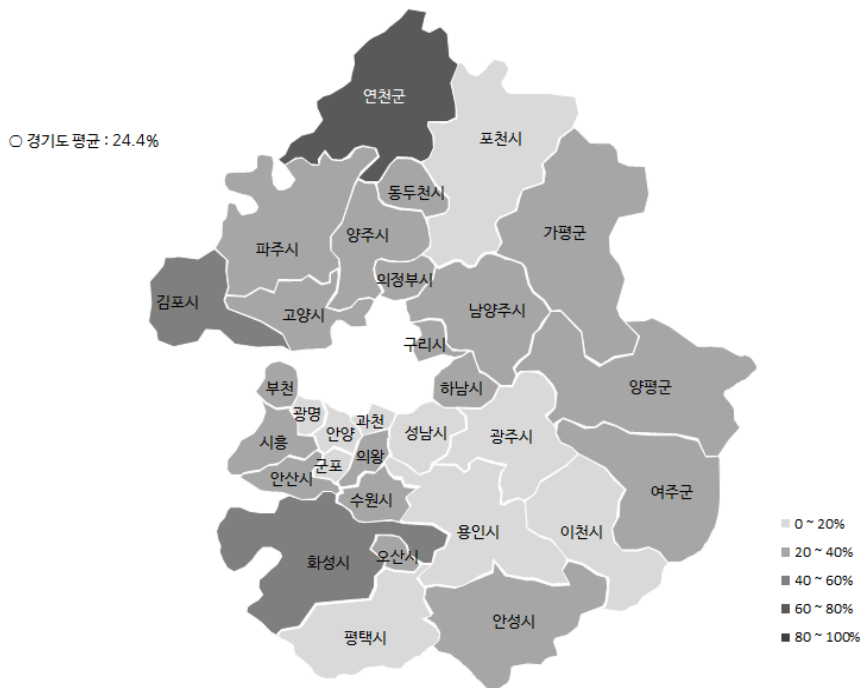
〈표 Ⅲ-26〉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단위 : 가구, %)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133,419	32.4	156,705	38.1	20,953	5.1	100,295	24.4
수원시	12,710	35.5	11,248	31.4	1,355	3.8	10,476	29.3
성남시	13,316	40.8	11,833	36.2	2,251	6.9	5,247	16.1
의정부시	3,457	19.6	5,757	32.7	1,562	8.9	6,828	38.8
안양시	9,920	40.4	9,462	38.5	863	3.5	4,320	17.6
부천시	10,668	34.9	10,732	35.1	1,342	4.4	7,833	25.6
광명시	5,647	30.6	9,413	50.9	435	2.4	2,981	16.1
평택시	5,608	37.2	6,494	43.1	785	5.2	2,190	14.5
동두천시	797	34.7	434	18.9	483	21.0	582	25.3
안산시	4,807	24.9	8,358	43.3	156	0.8	5,963	30.9
고양시	8,559	29.7	11,678	40.5	945	3.3	7,628	26.5
과천시	562	37.1	669	44.2	29	1.9	254	16.8
구리시	1,837	26.1	3,320	47.2	261	3.7	1,621	23.0
남양주시	3,423	18.1	8,654	45.9	1,541	8.2	5,253	27.8
오산시	2,261	40.2	1,656	29.4	391	6.9	1,322	23.5
시흥시	4,280	30.6	5,645	40.4	621	4.4	3,430	24.5
군포시	4,178	40.2	3,536	34.0	695	6.7	1,990	19.1
의왕시	1,179	20.3	2,531	43.6	271	4.7	1,821	31.4
하남시	2,126	30.1	1,444	20.4	881	12.5	2,612	37.0
용인시	16,648	38.3	20,513	47.2	516	1.2	5,823	13.4
파주시	4,069	34.5	3,732	31.7	548	4.6	3,430	29.1
이천시	3,775	37.5	4,066	40.4	551	5.5	1,684	16.7
안성시	2,031	37.9	1,165	21.7	851	15.9	1,320	24.6
김포시	1,706	18.8	2,406	26.5	1,005	11.1	3,968	43.7
화성시	2,443	21.0	3,693	31.8	746	6.4	4,740	40.8
광주시	2,675	38.2	2,763	39.4	327	4.7	1,238	17.7
양주시	1,459	27.8	1,576	30.0	145	2.8	2,067	39.4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포천시	255	25.9	51	5.2	627	63.7	51	5.2
여주시	1,143	23.6	1,586	32.7	355	7.3	1,759	36.3
연천군	7	1.9	30	8.3	62	17.2	261	72.6
가평군	390	24.7	503	31.8	150	9.5	538	34.0
양평군	1,485	32.9	1,757	38.9	206	4.6	1,067	23.6

〈그림 Ⅲ-19〉 경기도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유형별 현황

- 경기도 전체 독거노인 가구 중 소득빈곤가구가 39.6%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가 32.5%, 자산빈곤가구는 5.3%로 나타남
- 시군별 독거노인 가구의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용인시가 58.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광명시 55.1%,

평택시 46.7%, 성남시 45.3%, 안산시 44.4%, 남양주시와 광주시 4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포천시 12.5%로 가장 비율이 낮고, 연천군은 소득빈곤 해당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동두천시 18.5%, 연천군 17.8%, 여주시 12.5%, 의정부시 12.3% 등의 순으로 높았고, 광명시 (1.2%)와 안산시(1.4%)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음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78.4%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그다음으로 의왕시 54.2%, 화성시 49.1%, 의정부시 48.8%, 김포시 47.2%, 하남시와 수원시 46.3%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가 12.5%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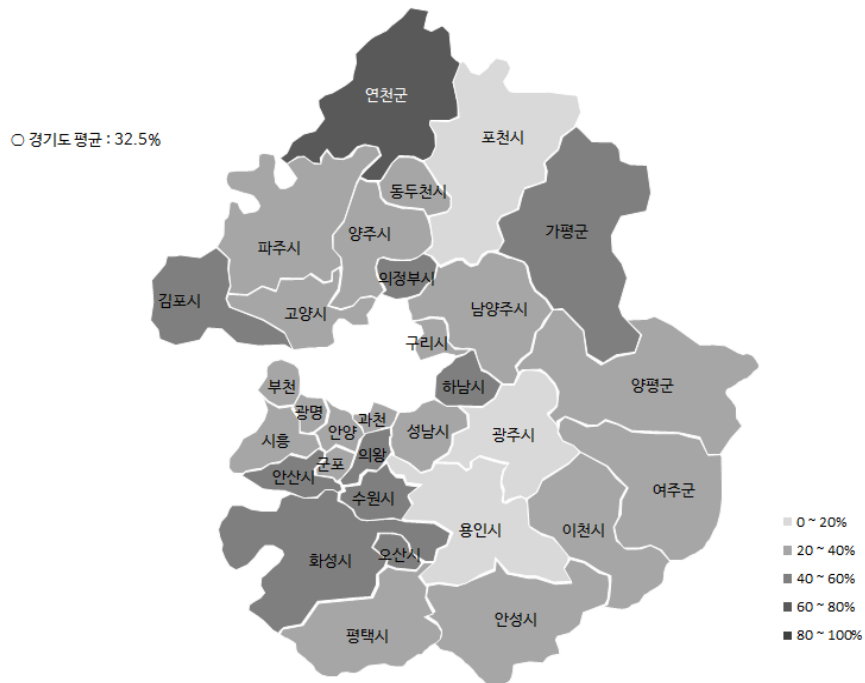
〈표 Ⅲ-27〉 독거노인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단위 : 가구, %)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47,693	22.6	83,532	39.6	11,128	5.3	68,484	32.5
수원시	4,517	24.7	3,971	21.7	1,355	7.4	8,471	46.3
성남시	4,210	27.5	6,936	45.3	1,067	7.0	3,113	20.3
의정부시	1,518	17.1	1,941	21.9	1,092	12.3	4,333	48.8
안양시	4,394	31.9	5,407	39.2	537	3.9	3,448	25.0
부천시	3,143	18.9	6,833	41.1	858	5.2	5,801	34.9
광명시	2,115	22.9	5,093	55.1	109	1.2	1,920	20.8
평택시	1,777	25.0	3,321	46.7	262	3.7	1,752	24.6
동두천시	257	20.1	385	30.1	237	18.5	401	31.3
안산시	1,553	14.1	4,884	44.4	156	1.4	4,408	40.1
고양시	3,404	22.1	6,100	39.5	403	2.6	5,526	35.8
과천시	285	34.8	336	41.0	29	3.5	170	20.8
구리시	937	25.3	1,537	41.4	156	4.2	1,082	29.1
남양주시	1,133	13.0	3,841	44.0	552	6.3	3,213	36.8
오산시	699	28.0	567	22.7	195	7.8	1,037	41.5
시흥시	1,953	24.7	3,357	42.4	358	4.5	2,250	28.4
군포시	1,383	28.0	1,540	31.2	326	6.6	1,682	34.1
의왕시	266	9.4	902	31.8	128	4.5	1,535	54.2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하남시	679	19.2	868	24.5	353	10.0	1,640	46.3
용인시	5,683	25.2	13,109	58.0	516	2.3	3,285	14.5
파주시	1,398	23.5	1,949	32.7	367	6.2	2,246	37.7
이천시	1,205	24.6	2,038	41.6	245	5.0	1,416	28.9
안성시	677	28.9	806	34.4	123	5.2	739	31.5
김포시	853	15.5	1,477	26.8	584	10.6	2,601	47.2
화성시	777	12.7	2,138	35.0	191	3.1	3,000	49.1
광주시	1,011	34.5	1,286	44.0	218	7.5	411	14.0
양주시	833	28.2	1,023	34.7	72	2.4	1,022	34.6
포천시	102	25.0	51	12.5	204	50.0	51	12.5
여주시	379	17.0	826	37.0	279	12.5	751	33.6
연천군	7	3.9	-	-	31	17.8	136	78.4
가평군	106	17.6	183	30.5	37	6.2	275	45.7
양평군	442	20.8	827	38.9	88	4.1	768	36.1

〈그림 Ⅲ-20〉 경기도 독거노인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 장애인 가구의 빈곤유형별 현황

- 경기도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가 26.9%로 가장 높았고, 소득빈곤가구는 17.2%, 자산빈곤가구는 16.0%로 나타남
- 시군별 장애인 가구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시흥시가 30.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의왕시 28.6%, 광명시 28.5%, 양평군 25.7%, 평택시 25.1%, 광주시 22.7%, 과천시 22.4% 등의 순으로 높았고, 연천군이 4.5%로 가장 낮고, 포천시는 소득빈곤 해당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52.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동두천시 40.3%, 양주시 34.6%, 성남시 28.5%, 화성시 27.1%, 이천시 26.4% 등의 순으로 높았고, 안산시가 6.2%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파주시가 47.8%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부천시 42.5%, 안성시 41.2%, 연천군 38.2%, 의정부시 37.1% 등의 순으로 높았고, 안양시와 구리시가 15.6%로 가장 비율이 낮고, 포천시는 소득-자산이중빈곤 해당 가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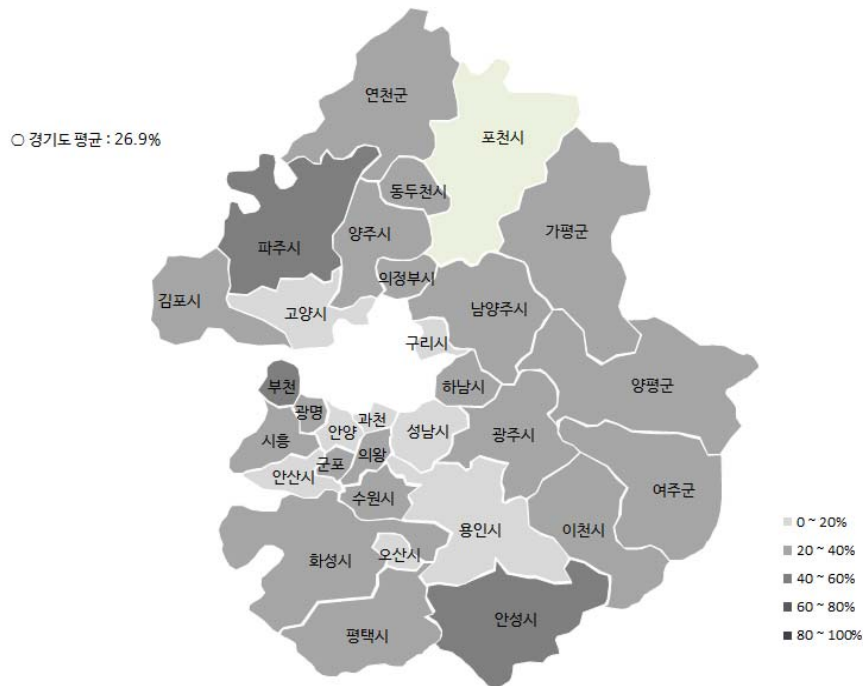
〈표 Ⅲ-28〉 장애인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단위 : 가구, %)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116,449	40.0	49,984	17.2	46,569	16.0	78,372	26.9
수원시	11,881	43.1	3,944	14.3	4,100	14.9	7,614	27.6
성남시	8,671	42.5	2,222	10.9	5,823	28.5	3,693	18.1
의정부시	3,619	31.3	1,885	16.3	1,777	15.3	4,298	37.1
안양시	6,525	58.3	1,469	13.1	1,453	13.0	1,748	15.6
부천시	6,577	28.0	4,163	17.7	2,756	11.8	9,962	42.5
광명시	4,219	36.2	3,323	28.5	903	7.7	3,216	27.6
평택시	4,078	34.5	2,964	25.1	873	7.4	3,899	33.0
동두천시	300	17.7	106	6.2	684	40.3	608	35.8
안산시	10,121	55.0	3,529	19.2	1,136	6.2	3,632	19.7

	비빈곤		소득빈곤		자산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양시	12,786	56.3	3,439	15.1	2,343	10.3	4,143	18.2
과천시	410	40.1	230	22.4	218	21.3	165	16.1
구리시	3,152	53.2	1,024	17.3	823	13.9	928	15.6
남양주시	3,745	31.9	2,484	21.2	1,284	10.9	4,221	36.0
오산시	1,582	50.6	395	12.6	551	17.6	602	19.2
시흥시	4,952	35.6	4,293	30.8	1,476	10.6	3,209	23.0
군포시	3,501	49.5	479	6.8	1,666	23.6	1,423	20.1
의왕시	759	23.3	935	28.6	535	16.4	1,034	31.7
하남시	1,923	27.8	864	12.5	1,638	23.7	2,491	36.0
용인시	10,774	50.3	3,546	16.6	3,235	15.1	3,860	18.0
파주시	772	10.4	1,295	17.4	1,808	24.3	3,554	47.8
이천시	2,154	27.0	1,542	19.3	2,109	26.4	2,172	27.2
안성시	1,336	34.3	266	6.8	687	17.6	1,606	41.2
김포시	2,510	31.3	1,361	17.0	1,778	22.2	2,362	29.5
화성시	3,885	44.8	613	7.1	2,351	27.1	1,826	21.0
광주시	2,102	34.2	1,398	22.7	813	13.2	1,839	29.9
양주시	1,553	29.7	535	10.2	1,811	34.6	1,329	25.4
포천시	237	78.3	—	—	66	21.7	—	—
여주시	1,202	29.9	698	17.3	704	17.5	1,422	35.3
연천군	33	5.2	28	4.5	326	52.1	239	38.2
가평군	282	22.9	202	16.4	312	25.4	435	35.4
양평군	807	27.5	756	25.7	533	18.1	842	28.7

〈그림 Ⅲ-21〉 경기도 장애인가구 이중빈곤율 현황



□ 상대빈곤 가구의 빈곤유형별 현황

- 경기도 전체 상대빈곤가구 중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는 44.4%에 이르고 있으며, 소득빈곤가구는 55.6%로 나타남
- 시군별 상대빈곤 가구의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와 이중빈곤가구의 비율은 이중빈곤가구가 높을수록 그 지역의 기초수급자들은 자산빈곤도 동시에 겪는 비율이 높음을 의미
 - 분석대상자가 상대빈곤가구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소득빈곤가구는 전체 100%임
 - 이중빈곤가구가 높은 지역은 연천군이 95.6%로 거의 대부분이 소득-자산이중빈곤을 겪고 있으며, 다음으로 동두천시 71.3%, 화성시 65.9%, 하남시 65.0%, 가평군 62.8%, 김포시 61.6%, 여주시 61.3%, 양주시 6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용인시는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의 비율이 27.0%로 가장 낮으며, 의왕시 28.6%, 광명시 29.8%, 안양시 30.2%, 과천시 32.3%, 구리시 33.2%, 시흥시 36.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Ⅲ-29〉 상대빈곤 가구 소득-자산 기준 빈곤유형 구분

(단위 : 가구, %)

	소득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기도	259,823	55.6	207,232	44.4
수원시	21,501	49.8	21,642	50.2
성남시	17,652	60.5	11,503	39.5
의정부시	9,887	42.4	13,412	57.6
안양시	14,273	69.8	6,180	30.2
부천시	19,685	51.5	18,534	48.5
광명시	14,074	70.2	5,985	29.8
평택시	13,688	61.4	8,617	38.6
동두천시	499	28.7	1,238	71.3
안산시	14,753	55.5	11,836	44.5
고양시	17,782	55.7	14,117	44.3
과천시	873	67.7	417	32.3
구리시	5,146	66.8	2,559	33.2
남양주시	14,541	57.3	10,825	42.7
오산시	2,515	51.4	2,380	48.6
시흥시	10,900	63.7	6,200	36.3
군포시	4,632	54.6	3,850	45.4
의왕시	8,064	71.4	3,226	28.6
하남시	3,085	35.0	5,732	65.0
용인시	25,835	73.0	9,579	27.0
파주시	5,471	42.9	7,271	57.1
이천시	6,000	55.7	4,768	44.3
안성시	6,035	63.0	3,551	37.0
김포시	5,148	38.4	8,262	61.6
화성시	5,114	34.1	9,904	65.9
광주시	4,542	51.3	4,308	48.7

	소득빈곤		소득-자산이중빈곤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양주시	2,067	39.7	3,134	60.3
포천시	102	50.0	102	50.0
여주시	2,447	38.7	3,870	61.3
연천군	39	4.4	841	95.6
가평군	779	37.2	1,316	62.8
양평군	2,693	56.5	2,071	43.5

IV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제언

IV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요약

- 경기도민의 빈곤율은 2018년 현재 19.1%이며, 시군별로는 연천군(43.7%)이 가장 높고 오산시(13.5%)가 가장 낮음
 - 빈곤율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상대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며,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 빈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경기도 31개 시군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에 가장 취약한 노인,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
- 경기도 노인빈곤율은 47.7%이며, 노인가구 유형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빈곤율은 47.2%, 1인가구 빈곤율은 48.5%로 전반적으로 빈곤상태가 심각한 상황
 - 노인가구를 노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47.7%)이 가장 낮고,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74.9%)이 가장 높음
 - 시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포천시(70.1%)와 가장 낮은 성남시(35.5%) 간 약 2배의 차이가 나며,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이 5개(의왕시, 안산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에 달하여 매우 심각함
 - 경기도 장애인빈곤율은 47.2%이며, 군포시가 33.4%로 가장 낮고 여주시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50%를 넘는 시군이 14개에 달함
 - 장애인빈곤율은 노인빈곤율에 비해 약간 낮은 상황이고, 시군 간 격차는 노인빈곤만큼 크지 않은데,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합산한 결과 안양시가 가장 양호하고, 여주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빈곤율은 48.5%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년가구의 고독사 등을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은 30.4%로 근로능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지역적·빈곤요인별로 종합적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旣(기) 축적된 경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적 단위의 분석을 수행**

-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노동패널,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통계청 자료를 통해 빈곤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분석에는 데이터에 한계가 존재
 -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시작되어 동태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 기준 6,721패널가구(98표본 및 통합표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약 1,500가구가 조사대상임
 - 1,500가구의 표본으로는 경기도 전체의 특성을 조망할 수는 있으나 빈곤요인별 특성 및 31개 시군별 빈곤 특성을 분석하기에는 한계 존재
 - 또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약 2만가구를 조사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15% 수준에 불과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보다는 표본수가 많으나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경기복지재단은 행복e-음 자료를 통해 경기도내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와 2016년 경기복지 기준선 자료, 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욕구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시군별 빈곤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
 - 2016년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를 위해 경기도 내 18,573가구, 30,918명의 소득, 주거, 일자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건강 및 여가활동, 사회복지 인프라 등 7개 영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축적
 - 또한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욕구조사를 통해 27,153가구(시군별 인구규모에 따라 500가구~1250가구 차등)의 아동돌봄, 성인돌봄(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 보호·안전, 건강(신체적, 정신적),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11대 영역에 대한 조사자료를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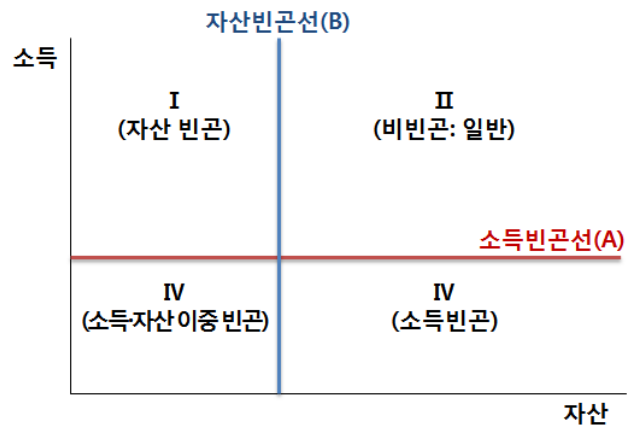
- 이외에도 경기도 기초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소득계층별 (빈곤)특성을 분석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
 - 이를 통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별 대상자, 요인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빈곤특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자 구분)빈곤층의 구분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수급자/차상위/사각지대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 일반적으로 빈곤층의 정의는 과거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대상자를 지칭하였으나, 최근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차용
 - 최근 OECD 등이 사용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층의 규모 및 여러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빈곤층을 가구원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의 대상자를 빈곤층으로 설정
 -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은 다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공적부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도 추가하여 분석하고자 함
 - 차상위계층의 설정은 하한선의 경우 기초수급자로 하고, 상한선은 가처분소득 중위값 50% 이하에 위치하면서도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함
 - 차상위계층을 빈곤특성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들은 상황변화에 민감하여 언제라도 절대빈곤으로 떨어져 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임(이상봉·한준, 2016)
 - 또한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정부의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사각지대 대상자 등을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빈곤특성을 분석하고자 함
- (특성 구분)빈곤의 특성은 인구·사회학적/노동시장/경제적 가치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
- 빈곤특성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빈곤수준이며, 독립변수는 사회인구특성, 노동시장 특성, 경제적 가치 특성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
 - 사회인구특성은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 등이 해당되며, 노동시장 특성변수는 노동참여형태가 포함됨

〈표 IV-1〉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

변수구분		변수명	측정
종속변수		빈곤수준	수급자, 차상계층, 사각지대 등
독립 변수	사회인구 특성	성별	남성, 여성
		연령	20세 이하 ~ 65세 이상(10세 단위 구분)
		학력	무학, 초졸이하,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하, 석사이상
		거주지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노동시장 특성	노동참여형태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 구직활동, 주부, 학업, 무직 등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이중 기준에 따른 분석을 위해 경제적 가치 특성(비금융자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

〈그림 IV-1〉 자산·소득 기준에 따른 빈곤 지위



□ 분석결과

- ①기초수급자 : 경기도의 기초수급자는 전국 평균(3.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시군별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남
 - 전국의 기초수급자 183만명 가운데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30.6만명)보다 많은 수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음
 - 그러나 수급률에 있어서는 경기도의 2.4%는 전국(3.5%), 광역시 평균(3.8%), 광역

도 평균(3.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또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3.1%)보다 0.7%p가 낮으며, 인접지역인 인천(4.0%)에 비해서는 1.6%p가 낮은 상황임
- 31개 시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저 수급률(용인시, 1.2%) 및 최고 수급률(연천, 동두천, 6.1%) 지역간 5.08배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경기도 기초수급자 실태는 여성, 일반수급자, 1인가구, 소득인정액 없음, 근로능력 없음, 기초연금 비대상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기초수급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80세 이상의 고령자의 수급자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 기초수급자는 대부분 일반수급자 가구이며, 조건부 수급자, 특례가구수급자, 시설수급자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수급자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대부분의 시군에서 50%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5인가구 이상의 비율도 5%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분포를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이 30%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초수급자의 상당수가 소득인정액이 없는 상황임
- 생계급여의 수급여부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이외에 근로능력 유무도 중요한 변수이며, 경기도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비율이 67.4%로 높음
- 경기도 31개 시군은 대부분 30% 수준의 기초연금대상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급자 연령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②일반적 빈곤실태 : 노인, 장애인, 1인가구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노인가구를 노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47.7%)이 가장 낮고,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74.9%)이 가장 높음
 - 시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포천시(70.1%)와 가장 낮은 성남시(35.5%) 간 약 2배의 차이가 나며,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이 5개(의왕시, 안산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에 달하여 매우 심각함
- 경기도 장애인빈곤율은 47.2%이며, 군포시가 33.4%로 가장 낮고 여주시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50%를 넘는 시군이 14개에 달함
 - 장애인빈곤율은 노인빈곤율에 비해 약간 낮은 상황이고, 시군 간 격차는 노인빈곤만큼

- 크지 않는데,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합산한 결과 안양시가 가장 양호하고, 여주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빈곤율은 48.5%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년가구의 고독사 등을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은 30.4%로 근로능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③소득-자산 이중빈곤 : 경기도 전체 빈곤가구 중 자산빈곤가구가 자산빈곤 13.7%로 가장 높고,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8.7%, 소득빈곤가구 7.0% 순임
- 시군별 빈곤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빈곤유형에 따라 비율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빈곤가구 비율은 의왕시 22.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안성시 21.6%, 남양주시 14.5%, 광명시 14.4%, 평택시 12.9%, 양평군 12.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포천시는 0.7%로 1.0% 미만으로 낮음
 - 자산빈곤가구 비율은 포천시 53.6%로 매우 높았고, 그다음으로 연천군 34.8%, 이천시 25.0%, 여주시 24.8%, 양주시 24.4%, 가평군 24.1%, 하남시 23.1%, 안성시 22.7%, 파주시 22.2% 등의 순으로 높았고, 자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명시(6.5%)로 확인됨
 - 소득-자산이중빈곤가구 비율은 연천군이 54.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가평군 16.8%, 의정부시 14.9%, 여주시 14.7%, 안성시 12.7% 등의 순으로 높았고, 포천시가 0.7%로 가장 비율이 낮았음
- 이중빈곤은 가구요인(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주거형태 등), 근로요인(근로활동, 경제활동상태 등), 사회요인(거주지역, 수급가구여부 등) 모두 빈곤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또한 가구유형별로는 시군별로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경제의 수준(지가, 물가 등)이 낮은 북부 및 농어촌 지역에서 대부분의 가구유형에서 이중빈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2. 정책 제언

□ 생애주기별/근로가능여부별 맞춤형 빈곤개선 정책 구상

- 그동안의 빈곤개선을 위한 정책은 수당을 중심으로 현금성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생애주기별/근로가능성을 기초로 구분하여 운영될 필요가 높음
 - 기초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조건부수급자로 편입되어 자활사업 참여가 전제가 되는 현금성급여 지급제도는 존재
 - 그러나 현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판정은 나이와 실제 입증가능한 질환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은 것도 사실
 - 또한 생애주기별로 동일한 조건/급여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생애주기별/대상자별/근로가능여부별 맞춤형 빈곤개선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하여 빈곤가구 토탈 지원정책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
- 이를 위해 정책대상자를 크게 근로활동이 힘든 지속적 빈곤가구와 근로가 가능한 가구로 구분하고, 근로가능 가구는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정책을 구상

□ 저소득: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 중앙정부차원의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 등과 함께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한 정책의 사각지대와 함께 지속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높은 추정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어야 하는 빈곤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이중 일부 가구는 긴급지원제도에서 정한 위기상황이 있어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위기상황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따라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욕구(need)가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경기도형 종합지원정책의 마련이 필요

- 이에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을 통해 경기도형 긴급복지(舊 무한돌봄 사업이나 긴급복지제도 지원을 통해 위기탈출이 어렵고,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자활을 지원
 - 대상자 선정기준의 완화 :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부터 우선 실시하되 장기적으로 확대하며,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0%로 상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인상(부양능력판정소득 160%이상 적용 제외)해 사각지대 해소
 - 급여 : 생계지원 중심으로 12개월 지급(1회 연장 가능)
 - 이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무한돌봄사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

□ 자산형성사업: 가칭)인생 3모작 희망통장 신설, 일하는 청년통장 확대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중년들을 위한 경기도가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이 높음
 - 정부 자료에 따르면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2008년 만 53세에서 (노동부) 2019년 만 49.4세(통계청)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 15년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높아지고 있음
 - 인생 3모작에 대비하기 위해 취업준비 및 창업자금 등 중년에게 필요한 자산형성과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인생 설계를 위한 준비자금 마련
- 이를 위해 공고일 현재 만 50세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중장년 통장사업을 시행
 -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근로유형(상용직, 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지원제도 등의 가입자 및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중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 약 1,000만원 적립
- 또한 현재 경기도 청년들에게 정책적 지지를 많이 얻고 있는 일하는 청년통장의 확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만기도래자에 대한 정확한 사후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나, 현재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정책수요가 높은 일하는 청년통장의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상자 및 자격기준 완화를 통한 양적 확대와 수급액 인상 등 질적 확대의 결정은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노인: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시장형)

- 현장과 학계 등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모델을 정립하여 노인들의 빈곤개선에 기여
 - 이에 많은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
 - 서울시의 경우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 50+일자리 모델 발굴’사업을 통해 당사자, 단체 및 전문가, 일자리 관련기관 등의 참여로 새로운 모델을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 반찬가게, 실버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커피숍 등이 지속적으로 매출 유지와 성공사례 홍보가 되고 있는 만큼, 시장형사업단을 중심으로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소득 증대를 도모
- 이는 경기도 브랜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노인일자리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여 매출실적·이용실적 증대하고, 경기도 노인일자리 브랜드 가치 창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형일자리 중 복수의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생산품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실시
 - 생산품·서비스를 경기도브랜드화하여, 포장 디자인, 규격, 서비스제공 체계 등을 통일하여 홍보 및 판매
 - 각각 생산품·서비스의 고유브랜드와 경기도 브랜드를 병기 가능하도록 함
 - 생산품·서비스에 따라서는 원자대 등을 공동구매하여 효율성 증대방안 모색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전수당 지급

- 영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지급
 - 지속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영세 시설의 경우 어렵기 때문에 근로 장애인에 한하여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지급
 - 이는 현재 임금수준이 낮아 장애인들이 연금을 적립해도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연금급여를 받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차액분에 대해 공공이 지원
 - 이를 통해 일하는 장애인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근로소득의 확대를 통해 빈곤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국문 논문〉

- 구인회. (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0) : 82-112, 한국노동경제학회.
- 권순원. (1992). “보건의료서비스의 재원조달과 전달체계”, 『사회보장연구』, 8(1) : 115-154, 한국사회보장학회.
- 김경혜. (2011). “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 『정책리포트』, 100 : 1-21, 서울연구원.
- 김교성. (2010). “서울시 가구 빈곤의 원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정책』, 17(1) : 215-240,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교성, 노혜진. (2009). “지역 빈곤의 격차와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2) : 85-106, 한국노동연구원.
- 김교성, 최영. (2006). “근로계층의 빈곤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8(2) : 119-141,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문길. (2017). “사회갈등 및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45 : 37-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2008).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성태, 김명규, 임병인. (2016). “우리나라 소득빈곤 및 자산빈곤의 이행추이 분석”, 『재정학연구』, 9(3) : 127-156, 한국재정학회.
- 김수완. (2015).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의 공공성”, 『한국사회정책』, 22(4), 135-160,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수정. (2008). “빈곤의 여성화”재검토 : 지표의 사실과 허구, 『젠더와 사회』, 7 : 182-211,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 김안나, 홍현우. (2019). “청년 빈곤 및 고용실태 분석”, 『사회복지연구』, 49(2) : 93-124,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김영주. (2008).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0(4) : 31-53, 한국사회복지학회.
- 김윤택, 서재욱. (2015). “빈곤의 다차원성-이론적 논쟁의 검토”, 『비판사회정책』, 48 : 146-186,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김은주. (2015). “다차원적 빈곤지표로 측정한 한국의 아동빈곤: 새로운 지표의 적용가능성 탐색”, 『한국사회정책』, 22(3) : 105-137, 한국사회정책학회.
- 김태완. (2010). “우리나라 장애인 빈곤과불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164 : 20-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환준. (2011). “누가 왜 빈곤에 빠지는가? 빈곤진입자의 특성 및 요인”, 사회복지연구, 42(4) : 365-388,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남상호. (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2007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재정학회 분과 발표논문.
- 남상호. (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527-556.
- 박경숙, 김미선. (2016).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가 노인 빈곤율 변화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0(1) : 221-253
- 박능후 외. (2003).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 259 : 122-123, 국토연구원.
- 박혜원, 김원호. (2019). “중고령층 장애인가구의 빈곤수준 및 빈곤결정요인분석: 비장애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9(3) : 119-143.
- 배화옥. (2008). “아동빈곤의 결정요인 분석: 가족요인과 사회요인”, 『보건복지포럼』, 139.
- 서연숙. (2015).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 노년학』, 35(1) : 99-117.
- 서재욱. (2019). “한국 복지국가의 주관적 빈곤 완화 효과: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26(2) : 147-175.
- 신규수. (2019). “소득·자산 기준 빈곤 지위별 부채 보유특성”, 『사회복지정책』, 46(2) : 287-309, 한국노동연구원.

- 여유진. (2017). “박탈의 실태 진단 및 사회통합에 대한 함의”, 『보건복지포럼』, 3 : 50-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봉. (2018). “중고령자의 빈곤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결정요인”, 『사회과학연구』, 25(1) : 79-97,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상봉, 한준. (2016). “빈곤의 특성과 결정요인: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5(1) : 1-26,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
- 이상은, 이은혜, 정찬미. (2011). “한국에서 자산빈곤의 변화추이와 요인분해”, 『보건사회연구』, 31(3) : 3-3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균. (2019). “가구주 특성과 상대적 빈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지역사회학』, 20(1) : 5-34, 지역사회학회.
- 이순미. (2018). “지방 중소도시 청년들의 다차원적 빈곤과 행복의 역설”. 『한국사회학』, 52(4) : 243-293, 한국사회학회.
- 이웅, 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 93-1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정우, 이성림. (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2) : 79-109, 한국국제경제학회.
- 이현재. (2014). “여성 빈곤의 세 가지 측면 :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빈곤: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 21 : 39-66, 한국여성철학회.
- 임유진, 박미현. (2018). “1인가구 중년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4(1) : 187-206,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전승훈, 임병인. (2008). “2000년 이후 가구 자산구성 및 자산불평등도의 변화 분석”, 『한국경제연구』, 31(1) : 97-124, 한국경제연구학회.
- 정경희. (2009). “노인 빈곤의 실태 및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문, 『학술대회논문집』, 1 : 121-124, 한국사회정책학회.
- 최옥금. (2007).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 5-25, 한국사회복지학회.
- 최현수, 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 143-160, 한국노년학회.

- 허수연. (2011). “취업여성의 ‘자녀유무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 연구』, 26 : 139-164,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허종호, 조영태, 권순만. (2010).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4(2) : 93-120, 한국사회학회.
- 홍경준. (2001). “빈곤에 대한 또 다른 탐색-사회적 자본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9 : 165-19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홍백의.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 275-290, 한국사회복지학회.
- 황선재, 김정석. (2013). “노년기 소득불평등 분해 분석”. 『한국사회학』, 47(4) : 201-226, 한국사회학회.

〈국문 단행본〉

- 김수현, 이현주, 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한울.
- 김유선. (2008).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실태 연도별 추이』,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기탁간행물, 1-16.
- 김태성, 손병돈. (2007).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
- 김희연, 신현중, 김정숙, 좌승희. (2007). 『경기도 빈곤아동 특성 분석 연구』, 경기연구원 기본 연구, 1-3.
- 남상호. (2009). 『저소득층의 자산실태 분석』,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 (200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여성·농어촌·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미곤, 김태완, 손창균, 최현수, 이선우, 김문길, 김계연, 오지현, 송치호, 서봉균, 유현상, 김은정. (2007). 『2007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정, 정경희, 이윤경, 유삼현.(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태진, 신영석, 김미곤, 노대명. (2005).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시행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국 논문〉

- Andrea Brandonoli, Silvia Magri and Timothy M. Smeeding(2010). “Assets-based Measurement of Poverty”,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29(2), 267-284.
- Haveman and Wolff(2001). “Who Are the Asset Poor?: Levels, Trends, and Composition, 1983-1998”,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no.1227-01*.
- Iceland(1997). “Urban Labor Markets and Individual Transitions Out of Poverty”, *Demography*, 34(3), 429-441.
- McLaughlin and Jensen(1995). “Becoming Poor: The Experience of Elders”, *Rural Sociology*, 60(2), 202-223.
- Oliver, Melvin L. and Thomas M. Shapiro(1990). “Wealth of a Nation: At Least One Third of Households are Asset Poor”, *The American Journal Economics and Sociology*, 49(2), 129-151.
- Sen(1985). “A Sociological Approach to the Measurement of Poverty: A Reply to Professor Peter Townsend”, *Oxford Economic Papers*, 37(4), 669-676.

〈외국 단행본〉

- Burchardt, T., J. Le grand & D. Piachaud, 2002. “Degrees of Exclusion: Developing Dynamic, Multidimensional Measure” in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eds.) J. Hills, J. Le Grand & D. Piachau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 1988.
- Eurostat,(2010). Combating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010 edit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Eurostat,(2013). European Social Statistics 2013 edition,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Lelli, S.,(2008). “Operationalising Sen’s Capability Approach: The Influence of the Selected Technique” in The Capability Approach: Concepts, Measure and Applications(eds). F. Comim, M.Qizilbash & S.Alk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ster, R.(2004). Poverty, Polity Press.
- OECD(2011).Society at a Glance, OECD Publishing.
- Townsend(1979). Poverty in the United Kingdom: A Survey of Household Resources and Standards of Living, Harmondsworth:Penguin.
- UN(1995). The Copenhage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New York: UNICEF.
- Wagle, U.(2008). Multidimensional Poverty Measure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Springer